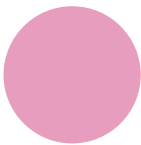


한국 여성운동의 전환을 꿈꾸다

2014 여성회의



일시 : 2014.10.17(금)~18(토)

장소 : 한국여성수련원

주최 :  한국여성재단
KOREA FOUNDATION FOR WOMEN

한국
여성운동의
전환을
꿈꾸다

2010년대 한국 여성운동은

이슈와 주체, 방법, 장소 등 다양한 차이를 보이며 전개되어
하나의 여성주의, 하나의 여성운동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전통적인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새로운 모색과 실험들 또한 적지 않습니다.

여성운동의 정체성에 끊임없이 물음을 던지는 변화와 역동의 시기!

한국 여성운동은 어떤 도전과 과제를 안고 있는지,

여성운동의 영향력을 넓히고 지속가능한 운동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은 무엇인지,

함께 성찰하고 이야기를 모으는 장으로서 <2014 여성회의>를 개최합니다.

전환을 꿈꾸는 여성 활동가들과 함께 합니다.

한국 여성운동의 전환을 꿈꾸다

2014 여성회의

일시 : 2014.10.17(금)~18(토)

장소 : 한국여성수련원

주최 :  한국여성재단
KOREA FOUNDATION FOR WOMEN

10월 17일(금)

12:30~12:40 등록

12:40~13:30 점심식사

13:30~14:00 여는 순서

개회 인사: 조형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참가자 소개

14:00~16:30 **1부 여성운동의 진단과 전망**

사회 유성희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발표 류지연 숭실대 전 총여학생회장

박인혜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전희경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정책국장

16:30~18:00 모듬토론

18:00~19:00 저녁식사 (입실, 산책)

19:00~20:00 종합토론

20:00~21:30 **2부 여성운동의 전환을 위한 대화**

1분과 여성운동은 왜 마을로 들어가야 하는가?

서경남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조직국장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

2분과 사회적 이슈(세월호, 밀양 등)와 여성주의는 어떻게 만날 것인가?

전현숙 서울YWCA 사무총장

김은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사

3분과 사회적 경제, 여성들에게 희망이 될까?

어라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 사무국장

김연순 마을기업 인큐베이터

4분과 거버넌스와 제도화 전략은 여성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김성미경 인천여성의전화 전 회장

5분과 여성학과 여성운동의 농업한 대화 : '그리고'를 넘어서

김홍미리 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허성우 성공회대 교수, 실천여성학

6분과 여성운동의 활동가 재생산, 어떻게 할 것인가?

몽 언니네트워크 사무국장

7분과 농업과 먹거리의 위기, 여성운동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한경례 전국여성농민회연합 부회장

김신효정 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21:30~22:30 자유대화

22:30~ 취침

10월 18일(토)

08:00~09:00 아침식사

09:00~09:10 공동체 인사

09:10~11:30 **3부 새로운 여성운동의 기획과 전략**

사회 박기남 한국여성재단 사무총장

발표 분과별 패널발표

종합토론

11:30~12:30 닫는 순서: 참가소회 나눔

12:30~14:00 점심식사

1부

여성운동의 진단과 전망

20대 페미니스트와 총여학생회운동	10
류지연 송실대 전 총여학생회장	
여성의전화와 여성인권 이슈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15
박인혜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여성, 여성주의, 정치적 액티비즘에 대한 생각들	28
전희경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자급의 정치: 맞벌이 대신 맞살림	33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정책국장	
종합토론	41

2부

여성운동의 전환을 위한 대화

1분과 여성주의, 왜 마을로 들어가야 하는가?	58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	
1분과 2011~2014 동네방네(동Net 방Net) 프로젝트	65
서경남 한국여성의전화 조직국장	
2분과 위기 그리고 파국,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관하여	73
김은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사	
3분과 사회적 경제, 여성들에게 희망이 될까?	77
김연순 마을기업 인큐베이터	
4분과 거버넌스와 제도화 전략은 여성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82
김성미경 인천여성의전화 전 회장	
5분과 여성학과 여성운동의 관계: 더 오래 물어야 할 질문	86
허성우 성공회대 교수, 실천여성학	
6분과 여성운동의 활동가 재생산, 어떻게 할 것인가?	91
뭉 언니네트워킹 사무국장	
7분과 농업과 먹거리의 위기, 여성운동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94
김신효정 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3부

새로운 여성운동의 기획과 전략

1분과 서경남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조직국장	104
2분과 이보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06
3분과 어라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 사무국장	108
4분과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111
5분과 서지영 대학교 수료	114
6분과 뭉 언니네트워킹 사무국장	116
7분과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118
종합토론	120

부록

분과별 명단	134
참가자 명단	135

1부

여성운동의
진단과 전망

20대 페미니스트와 총여학생회운동

류지연 숭실대 전 총여학생회장

저는 숭실대학교에서 총여학생회 경험을 통해 여성운동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청년 센터활동가로 <평화를만드는여성회>에서 인턴활동을 하며, 학내에 남아있는 친구들과 숭실대 운동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고민하고 있는 망지입니다. 제가 경험한 총여학생회와 대학운동을 말하고, 제가 갈망하는 여성주의 운동의 요소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런 힘든 것들이 한풀이하기보다는 여성운동의 발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겪는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페미니스트라고 스스로 정의하고 여성주의 운동을 나의 운동의 기본이 될 수 있다고 마음먹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고민의 기간이 짧은 만큼 제 견해가 짧더라도 20대 활동가의 패기라고 생각해 관용 있게 들어주시리라 믿고, 제가 만났던 여성주의 운동에 대한 경험과 고민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겪어왔고 겪고 있는 여성주의 운동

페미니즘을 알려주고 고민하게 한 선배가 없었다. 그냥 옛날부터 위안부 문제를 보고 여성이 약자임을 고민하게 되었다.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해서 사회복지의 진한 보수성에 실망하고 듣도 보도 못한 '여성복지'를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게 전부였다. 그렇게 학교에서 선배를 잘 만나(?) 학생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내 발언과 고민을 들던 선배가 없다가 만들어진 총여학생회를 제안했다. 총여학생회를 맡으며 고민과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한국여성민우회 물길캠프 활동으로 다른 청년 페미니스트들을 만나면서 여성운동을 하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리고 계속 총여학생회 활동을 하다가 올해 졸업을 하고 계속 총여학생회에 남아있다.

지금의 총여학생회는 노답이다. 모두 알다시피 요즘의 총여학생회는, 뿐만 아니라 대학의 페미니스트들은 외롭다.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학우들 사이에서 총여학생회 폐지 서명이 돌기도 했고(비록 큰 반향을 끼친 것은 아니었고, 이유가 너무 빈약해 학우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무슨 활동을 하는지 크게 관심이 없으며 총여학생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내내 이야기해도 '잘 몰라요~'라는 답변이 나오기도 한다. 지난주에 있었던 숭실 토론광장에서 '총여학생회의 투표권을 남학우도 가져야

한다'는 주제에 대한 토론에서는, 성차별이 사회에는 있으나 학내에는 없다는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총여학생회가 만들어낸 총여학생회 필요 담론들을 무색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우리가 총여학생회를 잡고 첫 해, 총여학생회 필요론에 대한 이야기로 선거를 하였고 올해는 더 이상 반대급부에 머무르는 소모적인 담론이 아니라 어떻게 숭실대에서 성차 없는 문화로 발전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여성주의적 내용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과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학우들이 있는 것이고, 학내 성폭력실태와 위계질서가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가를 느끼지 못하는 학우들에게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총여학생회 필요론에 대한 피로한 이야기를 지속해야 하고, 그에 묻혀 더 진일보한 담론들을 내놓지 못하게 되는 것이 지금 총여학생회의 현실인 것 같다.

총여학생회는 대중학우들뿐만 아니라 타 학생회 단위와도 싸운다. 계속해서 19급 술 벌칙과, 술 강요 문화, 외모비하와 성 비하 문화에 대한 싸움이 있었고, 심지어 올해에는 동성에 포비아에 있는 한 단과대 학생회장이 페이스북(학우들이 볼 수 있는 공개된 계정)에 동성에 비하 게시글을 올려 동성애에 대해 페이스북으로 설전을 해야 하기도 했었다. 설전 이후 학생회 간부 교양이 더욱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지만 또 다른 당시 싸워야 할 주제에 묻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기도 했다. 물론 타 학생회 단위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총학이다. 학생회비를 논의할 때 총여학생회가 왜 있어야 하나, 여학우 복지를 자신들이 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한다던가, 설전을 하다가 총학 집행부가 총학생회장을 말리는 모양새가 나오기도 하고, 사사건건 총여학생회를 무시하는 태도들을 취한다. 그리고 나아가 많은 '선배 및 오빠'의 권위로 총여학생회 대표자를 쉽게 무시하는 행동들이 정말 많다.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여도 결판 인정하는 뉘앙스로 사과를 하는 정도로 끝이 나며 행동엔 변함이 없다. 고발성 대자보를 붙이더라도 가뜩이나 총여학생회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혹여나 학우들이 권력 다툼하는 모양새로 보일까 그런 이야기를 강하게 밀고 나갈 수도 없는 형국이다.

뿐만 아니라 학내에 있는 다른 퀴어모임이라던가 다른 인권을 공부하는 친구들과 연대 단결이 되지 않는 점도 포함된다. 여성운동은 퀴어운동을 안고가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젠더의 관점에서 여성이라고 분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소수자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막상 연락을 돌려둘러 취해도 목소리조차 듣기 힘든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집행부 모집 또한 페미니즘에 관심 있고 의지 있는 친구가 오지는 않는다. 거의 인맥으로 키워진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충격적인 건 올해 단체 활동가로 만난 어떤 활동가가 내가 총여학생회 대표자시절 학부생이었던 숭실대 학우란 것을 알고 반가움과 동시에 이렇게 조용히 있는 사립들을 묶어내지 못하는 역량의 한계에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만큼 총여학생회의 학내 정치력은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것들은 일상적인 어려움이라고 보더라도, 총여학생회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든 것은 집행부의 이탈이다. 열심히 사업해서 데려온 친구는 총여학생회가 이렇게 욕을 많이 먹는 건 줄 몰랐다며 떠나기도 하고, 필요성과 책임감도 있으며 내용도 좋은 친구들은 위와 같은 힘든 상황들에 소진되어 대부분 '이젠 좀 쉬고 싶다', '이제는 공부를 좀 해야 할 것 같다', '취업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며 떠났다. 그렇게 해서 남는 친구는 정말 '착한' 아이들이고 책임감과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 결국 다음

대 대표자와 대표자와 친한 동기 이렇게 남는 것 같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친구들이 빈 자리는 일을 많이 해서 매우면 되지만 남는 사람들의 부담과 스트레스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내가 욕구하는 여성주의운동의 요런점.

내 대학운동의 시작과 끝에는 페미니스트 선배라는 존재가 없다. 혼자 접하고, 혼자 시작하고, 혼자 고민하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깨졌고, 깨지고 있는 와중이다. 1년은 더 학교에 남을 생각인데 그 마지막도 사실은 내가 최후의 선배일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 섭섭할 내가 존경하는 활동가들이 있을 테지만(있으면 좋겠지만), 숭실대 학내 여성주의활동을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선배는 없다는 말은 모두 동의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위와 같은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학내 운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상'과 '함께하는 의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꾸리는 것조차 너무 힘든 현실이다. 여성운동을 한다는 것은 페미니즘으로 자아실현 하는 게 아니라 집단이 유지되고 사람이 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2년을 몸소 깨치고서 이제 깨달았다. 2년 과정에서 이미 많은 친구들은 총여학생회를 스쳐 지나갔고, 나는 이미 '졸업한 몸'이 되었다. 직접 대중 앞에 서기에는 농담처럼 '배후 세력'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과정에서 전면 결합은 못해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조연만이라도 해줄 수 있는 선배 페미니스트가 옆에 있어줬다면, 쓸데없는 토론에 휩쓸려 마음 고생할 시간에, 굳이 할 필요 없는 사업들에 힘 쏟을 시간에, 교수님들과 의미 없이 싸울 때, 당신들이 쌓아온 경험과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줬다면 어떨을까. 물론 내가 잘하지 못 했던 부분을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어서 우물쭈물 대응할 때에 한번 들여다봐주고 '그게 맞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야기해줄 선배라도 있었으면, 좀 더 지치지 않고 확신 있게 밀어붙일 수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최소한, 총여학생회를 하고 싶다는 후배가 있는데 지금 당장 역량이 안 된다고 판단해 총여학생회를 못 세우겠다는 답을 할 지경까지 오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학교 운동을 함께 터놓고 같이 고민해줄 선배가 필요했다.

대학 운동은 정말 중요하다. 많은 활동가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이란 공간은 청년들이 사회를 직간접적으로 겪으며 문제들을 인식하고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공간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로 나가기 전 자기가치에 대한 사고와 인식이 뚜렷해지는 시기이다. 가장 기존 세상에 찌들지 않고, 가장 비판적이고 날카로울 수 있으며, 가장 힘있게 무엇인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유로운 시기이다. 이런 공간에서 지금과 같은 여성혐오와 동성애 및 소수자 혐오, 가부장적 문화를 답습하는 것들을 비판 없이 접한다는 것은 새로 사회가 바람직하게 나아가야 할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총여학생회와 각 대학 페미니즘집단의 약화는 이 중요한 시기와 공간을 전체 운동의 판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은 운동을 유지 발전시키는 데에 필수적인 공간이다. 선배도 없고, 담론도 없는 지금 공간에서는 여성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기대하기 어렵다. 어쩌다가 특이한 친구 하나가 혼자 튀어 나

왔다. 그 친구는 학내에서 떠돌 수밖에 없었고 혼자 고민하다 자퇴를 결심했다. 어쩌다가 한 친구가 나왔다. 혼자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판단에 지쳐 취업준비를 했다. 이후에 운동 단체로 가기는 했지만 대학운동에서 이 친구가 또래 대중과 가장 밀접히 호흡하고 토론하고 그 와중에 자기내용을 성장할 기회를, 운동적인 관점에서 더 좋은 고민을 함께 나눌 기회를 놓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아낼 공간도, 자기가 밟고 있는 땅에서 내 이야기를 확장시키고 공감 받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 얻게 되는 힘도 모른 채 뿔뿔이 있다가 흩어질 뿐이다.

그러나 지금 기성단체들의 활동은 대학의 운동을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청년 활동가 인큐베이팅은 있어도 사람을 만들고 고민하고 대학운동의 중요함을 알아주는 곳이 없는 것 같다.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로 선배 총여학생회, 선배 페미니스트는 없다. 숭실대에서 쇠파이프 들고 공대랑 맞장뿔 다던 총여학생회 선배에 대한 이야기는 왜 난 바람 같은 소문으로만 들어야 하는가. 기성단체와 선배 페미니스트들의 간섭과 잔소리와 비판이 고프다.

운동을 하며 욕구했던 것 중 다른 하나는 현재를 진단하고 전체를 통틀을 수 있는 사상이란 것이다. 계란도 사상이 있으면 바위를 깰 수 있다고 했다. 이것저것 알고 깨치며 배우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지만 공통적으로 현 상황과 정세에 맞는, 특히나 한국의 정세와도 맞는 여성주의 사상의 정립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분단의 현실은 여성들, 그리고 소수자들에게 정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정말 한국사회에서 여성운동에서도 빨리 깨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POST-2015 베이징 회의가 열리는 걸 알고 있다. 개인적인 감상은 정말 멋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단위에서 각자의 활동을 보고 문제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신념을 줄 수 있는 사상적인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소심한 바람이다. 파편화되어 있고 위력을 발휘하지 못 하는 에너지를 우리 안에서부터 토론하고 정립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런 고민들의 과정에서, 나는 단체에 들어가는 것에 주저한다. 단체 활동가들이 정말 불편할 수 있지만 정말 솔직한 심정이 그렇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지금 대학의 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욕구했던 대학의 선배 페미니스트가 되려고 한다. 사람을 만들고 그와 부딪히는 모든 것들과 토론하고 함께 고민할 생각이다. 두 번째는 단체 운동으로 들어갔을 때, 그 단체안의 실무와 단체 내부의 규정과 문화 속에 들어가기에 주저하는 것이다. 불안정하고, 엄마아빠한테 인정 못 받더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는 친구들과 더 주체적인 목소리로 운동하고 싶다. '나는 나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단체운동을 통해 얻을 수 있을지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선배 페미니스트들에게

후배 페미니스트들의 삶에 간섭해주세요. 선배들도 지금까지의 여성운동을 만들어낸 것이 엄청 힘든 토양에서 혼나면서 겪고 싸워서 이뤄낸 경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 소중하고 대단한 것들입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 싸우느라 엄청 힘드실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후배들은 선배 페미니스트들이 어떻게 싸워왔는지, 어떻게 이겨냈는지 신문으로만, 책으로만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들, 힘들었던 부분들, 깨달았던 부분들, 그리고 지금 후배 페미니스트들에게 따끔하게 충고하고 싶

은 부분들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인과 충고를 아끼지 말아주세요.

단체에 안 들어가는 이유를 들어주세요. 활동가 유입 잘 안되죠. 일 너무 많고 지치시죠. 저희가 바로 단체 안 들어가고 해매거나 공부한다고 대학원 간다 그러면 갑갑하시죠. 단체에 들어가지 않는 페미니스트들 모두 각자의 이유가 다르겠지만, 모두 더 나은 페미니스트들이 되기 위해서 라고 생각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유를 들어주시고 토론하고 설득해 주세요.

2014 여성회의에서 많은 선배 페미니스트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운동의 진단과 전망

—여성의전화와 여성인권 이슈의 제도화를 중심으로—¹⁾

박인혜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시작하며

한국 여성인권운동은 민주화 이후 공적 담론 장에서, 제도화의 측면에서, 그리고 운동참여 주체의 측면에서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여성의전화의 경우, 성폭력, 가정폭력 등 피해여성 상담활동과 더불어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을 위한 입법운동에 앞장서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으며, 대중의 관심과 동의를 동원하여 여성인권을 민주화 시대의 보편적 담론으로 만들고, 정부 여성정책의 주요한 부분으로 자리하게 만들었다. 이런 성과를 배경으로 여성의전화는 전국 조직으로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상담'과 '상담소'라는 여성폭력추방운동의 모델을 제공하여 다양한 여성폭력추방운동의 주체들이 전국에서 대거 출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제도화 이후 여성인권 개념이 축소되고, 여성폭력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이 가족주의 관점과 경합하면서 여성인권 담론이 가진 정치적인 힘이 약화되었다. 제도화는 여성의전화 주체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쳐 여성인권운동의 목적이 여성폭력 관련제도의 운영인지, 여성폭력의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는 사회변혁운동인지에 대한 주체들의 정체성 갈등을 심화시키고, 주체 재생산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현 시기에 이르러 제도화에 따른 구 모순과 지구화로 인한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의 신 모순이 복합적인 쟁투를 벌이면서 새로운 여성인권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여성운동의 성장은 '여성인권' 담론에 힘입은 바가 크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여성폭력이 여성의 핵심적인 인권문제로 부각되면서 여성운동은 크게 도약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현재 여성인권운동이란 여성운동의 대중적인 표현이 되었으며(Bunch, 2001:131) 여성인권은 "페미니즘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여겨지는 전통적인 여성단체까지도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신혜수, 2003)가 되었다. 여성폭력추방운동은 글로벌 여성인권담론을 적극 수용하여 여성폭력 과제를 제도화시키는 동시에 인권의 문제로 정치화시켰으며, 주류 인권운동이 수렴하지 못한 사적 영역의 여성인권 문제를 드러내었다.

1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여성인권운동의 프레임과 주체 변화에 대한 연구—여성의전화를 중심으로" (2010)의 출판본 "여성운동 프레임과 주체의 변화, 여성인권 담론을 중심으로"(2011, 한울아카데미)의 제1부와 결론을 재구성한 것이다.

인권은 일차적으로는 국민국가 내에서 적용되며 인권의 보호는 국민국가의 법과 제도에 의해 실현되기 때문에 인권운동의 일차적인 운동 전략은 제도화를 향하게 된다.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다”라고 선언한 1995년의 제4차 북경세계여성회의의 선언과 그 행동강령은 여성인권의 실현이 국민국가의 틀에서 작동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지침으로 제공된 여성인권의 ‘글로벌 스탠다드’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제도화 전략은 일차적으로 민주화운동의 직접적인 성과물로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권위주의 국가 아래서의 비민주, 악법들에 대한 개정운동이 봇물처럼 터졌을 때 젠더 이슈들의 제도화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은 기존 법의 개정운동 안에 여성의제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시작되었으나 곧 젠더 이슈의 특성을 반영하는 독자적인 법제정운동으로 발전했다. 1991년에 여성의전화가 개척한 《성폭력관련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로 시작된 법제화운동은 2003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기까지 소위 “여성인권 3법”이라 불리는 여성인권 관련법 제정으로 일단락되었다. 이는 국제사회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놀라운 성과였으며, 한국의 여성운동은 민주화된 국가와의 거버넌스를 통한 젠더 이슈들의 해결, 즉 제도화가 지속되고 그 성과를 여성운동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사회운동 이론에서는 제도화를 사회운동의 성공으로 간주(임희섭, 2001:185)하기도 하지만 여성운동의 입장에서 보면 제도화를 둘러싼 문제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제도화는 여성운동의 자율성 훼손과 국가의 주도권 행사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도 가져왔다. 따라서 여성계 내부에서도 제도화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입장과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입장, 양자를 절충해보려는 시도들과 무비판적으로 정부의 지시를 따르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반응이 등장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 이후 제도화의 성과들이 상당 부분 훼손되었고, 현실적으로 여성인권정책에 대한 여성운동의 개입이 이전보다 현저히 약화되었으며 여성들의 집합행동은 저조했다. 이러한 상황을 여성인권운동의 위기라고 볼 때 이 위기를 넘어 다시 새로운 여성운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박인혜, 2006a; 2006b; 2006c; 2007).

계기를 만들기 위한 작업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인권에 대한 제도화가 이루어졌으므로 권리담론의 유효성과 그것을 근거로 하는 여성운동의 역할은 다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불충분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더욱 강력하게 제도화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인가? 제3의 전략은 없는 것인가? 서구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인권 개념의 한계를 둘러싸고 여성운동에 있어 권리담론의 유효성에 대하여 논쟁을 벌여왔다. 탈식민 페미니스트들은 형식적 권리들이 사회적 적대를 은폐하며, 권리에 대한 주목이 계급·젠더·인종의 불평등에 대한 주목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주류 페미니스트들은 형식적 권리 없이는 실제적 쟁점들에 대한 주목도 있을 수 없다고 반론을 편다.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들은 사회집단들에 의한 권리주장이, 법률이 주체들을 창조하고 그 주체들에게 행위능력을 귀속시킨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 채 과정의 인과관계를 뒤바꾸어 놓으며, 법률은 법률이 구성한 정의에 들어맞는 사물만을 인정하게 된다고 지적한다(스콧, 2001:235-239). 각각의 입장들은 권리 담론의 여러 측면들을 드러낸 것으로서 각 입장들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보적인 것이며 역설적으로 권

리 담론의 유용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여성운동의 역사 속에서 여성인권 담론과 여성운동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생산되지 못했다. 여성인권에 대한 추상적 선언은 있었지만 여성운동 현장에 기반한 지식은 창출되지 못했으며 여성인권 담론은 비가시화되고 저발전 상태에 놓여 있다. 여성인권운동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인권사건들의 서술과 여성인권 개념의 분석과 해석에 한정되어 있으며, 여성인권운동의 변화 경로와 그에 영향을 미친 운동요소들은 무엇이며 그 요소들 간의 동학을 연구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여성운동/사회운동

여성운동은 사회운동이다. 사회운동은 기존의 규범, 가치, 제도, 체제 등을 변화시킬 것을 목적으로 다수의 개인들이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집합행동의 한 형태다. 즉 사회변동을 목적하는 집합행동이다. 여성운동은 자본주의적/가부장적 성별 권력관계를 해체하고 성평등적 권력관계 수립을 목적하는 여성들의 집합행동이다.

신그람시운동론에 의하면, 사회운동은 “미시적·중범위적·거시적 수준 등 다층적인 수준에서 헤게모니 각축 과정에서 전개되는 대항 헤게모니적 실천”이며 “사회적 과정의 일부로서의 사회운동 역시 실제적 존재물이 아니라 주체의 실천에 의해서 구성되는 헤게모니적 구성체”라고 정의된다. 다시 말해 사회운동은 대항 헤게모니적 실천 단계를 미시적 수준에서 거시적 단계까지 끌어올려 그람시가 말하는바 역사적 블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때 시민사회는 지배 이데올로기와 대항 이데올로기가 각축하는 장소로서, 사회운동은 이 시민사회 안에서 “지배의 헤게모니화를 위한 지배블록의 전략적 실천과 사회구성원들의 저항적 주체화(self-empowerd subjectification of people)를 향한 사회운동의 대항 헤게모니적 실천의 각축 속에서 이루어진다.” 사회구성원들의 삶에 다양한 불만, 긴장과 모순을 유발하는 체제 속에서 대중은 체제에 대한 순응과 저항이라는 양자를 모두 가진 ‘잠재적인’ 경향성을 가진 존재로 살아간다. 다양한 잠재적 경향성 중에서 어느 측면이 지배적 현실이 되는가를 두고 헤게모니적 접합을 둘러싼 각축이 일어난다. 한마디로 사회운동이란 바로 “헤게모니 구성을 둘러싼 각축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조희연, 2010:27-33).

이 정의가 여성인권운동에도 적용될 수 있겠으나, 여성운동은 사회운동의 맥락과 자원동원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성운동의 헤게모니 각축과 실천의 내용은 사회운동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된다. 민주화 이후 탈권위주의국가로의 이행은 여성폭력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기대와는 달리 여성폭력은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지속되고 있음이 목도되었다. 정치적·절차적 민주화는 성별적 가부장제 지배 이데올로기를 크게 완화시키지 못했으며, 오히려 성별적 가부장제 지배 이데올로기를 깊이 내장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 이유로 국가가부장제, 사회운동의 가부장성, 계급중심의 진보 여성운동 등의 문제들을 지적할 수 있겠으나,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여성인권운동의 가부장제에 대한 불철저한 헤게모니 각축과 저항이며, 그 이유로서 고려하는 것은 대항주체 구축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사회운동의 대항 헤게모니적 실천은 미시적·중범위적·거시적 수준 모두에서 동시에 전개된다고 할 수 있지만, 여성운동은 자원취득에서 역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왔기 때문에 각 수준에서의 대항 헤게모니적 각축을 동시에 전개하기 어려우며, 대항 헤게모니적 각축은 미시적→중범위적→거시적 수준의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가부장제 지배 헤게모니가 여성의 일 상에서 관철되면서 미시적 수준에서 장기간 여성에 대한 억압과 폭력이 축적되어 왔으므로 여성들이 중 범위 수준의 동원을 끌어내고 헤게모니 각축을 벌이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미시적 수준에서의 자 원동원이 축적되어야 했다. 그런데 미시적 수준의 자원축적만으로는 그것이 아무리 대규모라 하더라도 거시적 수준의 헤게모니 각축으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다. 또한 거시적 수준의 변화 없이는 미시적 수 준의 변화도 지속되기 어렵다.

1980년대 진보적 여성단체들이 설립되고 국가와의 헤게모니 각축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 니라 미시적 동원의 축적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운동이 중범위 수준에서 헤게모니 각축을 벌 일 수 있게 된 것은 해방 후 여성교육의 제도화, 1980년대의 민주화, 그리고 산업화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동과 주부계층의 확대 등으로 상당한 미시적 동원이 제공된 결과 저항적 주체화가 가능해졌기 때문이 다. 여성단체들은 자력으로 미시동원을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그 결과 대항주체의 재 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90년대의 제도화 국면은 지배 헤게모니에 동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수준의 동시적 각 축에 있어서는 거시적 수준의 '포스트-민주화'가 중범위 수준의 운동의 자원동원의 확대로 이어지는 지 지력이 되지만 순차적 각축에 있어서는 중범위 수준에서 제도화에 포섭된 여성운동은 다음 단계의 실 천을 위한 대항 헤게모니 형성에 실패하게 되어 거시적 수준에서의 헤게모니 각축의 발생, 맥락의 전환, 즉 가부장제의 전복에까지 이르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여성운동의 맥락에서 '포스트-민주화'는 사회 운동의 맥락에서만 정치적인 의미를 갖지 못했다. 또한 민주화 맥락과 가부장제 맥락이 중첩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에 있어 가부장제 vs 반(反)가부장제의 전선이 명확했던 적이 거의 없었 다. 여성운동은 민주화 과정에서, 민주화운동의 일부분으로서, 그 성과를 함께 누리면서 가부장제에 대 한 저항을 유보해야 했다. 반가부장제 투쟁에서 남성은 적이면서 자원이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부장제는 언제든지 여성들의 동의에 기반하여 그 헤게모니를 관철시킬 수 있었다. 국가에 대 해서도 마찬가지로, 여성은 국가권력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국가권력 쟁투의 상상력이 부족했으 며, 여성운동을 반가부장제운동=반체제운동=체제도전적 운동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여성운동에 있어 자원동원 축적의 핵심적인 도구는 의식화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프레이리(2003)는 원천적으로 자원취득이 제한되어 있어 대항 헤게모니 형성이 어려운 피억압자들에게는 중범위적 수 준의 동원을 위해 교육이라는 교량(bridge)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신그람시운동론은 대항주체들이 헤게모 니 각축의 장에서 저항과 수용의 잠재적 경향성 중에서 어느 하나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 지만(조희연, 2010: 37-46), 피억압자들은 지배 헤게모니를 온전히 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자발적 선택이 어렵고, 전통교육은 가부장제 사회의 유지와 재생산에 기여하도록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곽삼

근, 2001:10-11) 그런 지배적 상황에 대한 자각을 일으키는 의식화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여성인권운동의 대항 헤게모니 실천이란 측면에서 의식화교육이란 헤게모니 의식을 자각하고 습득하 게 하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권리를 부르주아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부정했지만 신그람시주의적 관점은 권리를 피억압자들의 대항 헤게모니적 실천전략으로 재해석했다. 헌트(Hunt, 1990:314)에 의하면, 헤게 모니 실천은 조합주의 단계, 계급의식 단계, 헤게모니 의식(hegemonic consciousness) 단계라는 세 단 계를 거쳐 이루어지며, 마지막 단계인 헤게모니 의식 단계로의 전환이 일어나기 위해서 권리담론이 필요 하다고 역설했다. 이는 여성인권운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첫 단계는 여성들이 자신 이 속해 있는 가족이나 공동체, 그룹의 특수한 이해와 자신의 이익을 결부시키는 것이다. 이 단계의 의 식은 권리의식이라 할 수 없고 이익추구의 단계라 할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조합주의적 한계를 극복하 고 여성들이 자신을 사회구조적으로 억압된 존재로 인식하고 다른 여성들의 이익과 동일시하는 여성의 식(feminist consciousness)을 형성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는 여성들이 자신을 다른 피지배집단의 이익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치적 단계로서 헤게모니 의식을 갖게 되는 단계이다. 헌트의 논지에 비추어 보면, 현재까지의 여성운동은 많은 경우 여성의식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여성운동이 거시적 수준의 가부장제와 헤게모니 각축을 벌일 수 있는 역사적 블록이 되기 위해서는 헤게모니 의식 의 단계, 즉 여성인권의 정치학의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항 헤게모니 형성에 있어서 계급의식 단계에서 헤게모니 의식 단계로 변환시키는 전략이 권리담론 이다. 이익담론이 특수성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면 권리담론은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권리담론은 권 리주장, 제도적 권리, 법적 권리의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특수한 이익이 보편적 권리가 되는 과정이 기도 하다. 특정 개인이나 그룹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미시적 수준의 헤게모니 각축을 벌 여 정당성의 근거를 확보하게 되면 지역적이고 부분적인 인정을 받아 중범위 수준의 제도적 권리가 된 다. 정당성을 얻지 못하면 개인의 이익은 사적인 것이 되고 부당한 것이 된다. 제도적 권리가 다시 정당 성을 확보하게 되면 거시적 수준의 법적인 인정을 받아 법적 권리가 된다. 이러한 정당성의 확보는 “투쟁 을 통해, 투쟁에 의해 구축되고 정교해진다”(Hunt, 321-325). 그러나 서구와 달리 한국은 권리담론이 반대의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거시적인 국가 차원의 법적 권리 확보가 먼저 진행된 후 지방의 제도를 변화시켰으며 개인들이 권리의식을 갖게 만들었다. 이 점이 여성들의 미시적 동원의 축적 이 거시적 수준의 대항 헤게모니를 구축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거시적 권리담론은 미시적· 중범위적 대항주체 형성과 부정함을 이루게 된다. 무엇이 인권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그 결과는 법 의 형태로 주어진다-이며, 여성들의 미시적 인권침해 경험은 이에 부합되지 않는다. 국가가 부여한 인권 개념을 내재화한 여성들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인식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권리주장도 어렵고 투쟁 은 더 어렵게 된다. 이것이 여성들의 대항주체화를 위해 헤게모니 실천전략으로서의 여성인권 담론이 갖 는 의미이다.

여성인권 프레임과 주체의 변화²⁾

한국의 여성인권운동은 군부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의 흐름 속에서 발원하고 민주화운동과의 긴장 속에서 성장했다. 민주화운동 이전에도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를 중심으로 한 여성단체활동이 존재했지만 그것은 미군정과 군부독재 지배 헤게모니의 영향권 속에서 '요보호부녀' 프레임을 공유하고 전개된 자유주의적인 활동이었다. 군부독재는 반공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가안보담론과 경제발전 우선주의, 그리고 충효사상을 결합한 가부장적 지배 헤게모니를 구축했다. 이념과 도덕적 기반이 취약한 독재정권은 억압기구를 전면으로 등장시키고 공공연히 국가폭력을 자행하게 된다(김동춘, 2000:108, 조희연·조현연, 2002:24).

여성폭력은 이 시기 권위주의 독재권력에 의해 우연히 돌출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가부장제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축적된 결과였다. 국가가부장제 체제가 강화되어온 역사적 배경 속에서 196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서구 문화의 유입, 그리고 급격한 가족구조의 변화 등이 오랜 전통사회의 문화 및 가치관과 충돌하면서 심각한 사회변동을 겪게 되었다. 산업화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 가치혼란과 가족의 변화 등 갖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했으며 그 일단이 여성폭력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권력은 여성폭력 침해를 당한 여성들을 사회에 역기능을 하는 '요보호부녀'로 인식했다. 정부의 여성정책은 여성폭력의 피해를 외면한 채 요보호여성의 선도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황정미, 2005:35-36).

사회운동은 1970년대 이래 본격화되어 대항 헤게모니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대항주체는 대학교수, 언론인, 종교인, 여당정치인 등의 소위 재야인사와 학생운동 참여자들, 그리고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의 저항활동은 군부독재로 인해 침해받은 정치적 권리의 회복을 목적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인권운동으로 인식되었다. 인권운동을 위한 프레임은 주로 종교인들, 그중에서도 크리스찬아카데미(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한 진보적인 기독교지식인들로부터 제공되었다. 이들은 제3세계의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아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와 정치적 독재로 인해 발생한 사회문제를 양극화와 비인간화현상으로 정의하는 '인간화' 프레임을 생산했다. 그러나 '인간화' 프레임은 여성들이 장기간 경험해온 여성폭력의 본질을 확실히 포착하지 못했다.

사회운동 속에 잠재되어 있던 여성운동의 주체들은 첫째 '인간화' 프레임, 둘째 1975년 유엔 세계여성의 해 선포와 여성발전담론, 그리고 서구 여성학의 도입이라는 자원을 총화하여 '여성의 인간화'라는 하위 프레임을 만들었다. '여성의 인간화' 프레임을 사회운동 속에 잠재되어 있던 여성운동 주체에 연결한 의식화교육 프로그램은 아카데미가 중간집단교육론에 근거하여 제공한 《여성사회교육》이었다. 아카데미는 1970년대 10년간 젊은 여성, 지역사회주부, 여성농민, 여성노동자, 교회여성, 여성단체 지도자 등 전 계층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2,000여명의 여성들을 교육했다. 《여성사회교육》은 이 여성들에게 여성학과 사회비

판과 분석 등의 강의를 제공하여 여성들이 당시의 현실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가부장제의 본질을 직시하여 "주체적 인간으로서의 새로운 자기발견에 이르는 경험"(한명숙, 1985:416)을 하게 했다.

'여성의 인간화' 프레임에 연결된 진보적 여성운동의 주체들은 1970년대 중후반 크게 세 그룹으로 응집했다. 제1그룹은 기층여성 정체성을 가진 변혁적 지식인들이었다(강남식·윤정숙·남인순, 1999). 제2그룹은 1970년대 초반부터 성장해온 여성노동자그룹이었다(이옥지, 2001:183-184). 마지막으로 제3그룹은 중산층 주부그룹이었다. 앞의 두 그룹은 모두 기층여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으나, 마지막 그룹은 가정주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이 관심가진 여성문제는 1, 2그룹의 여성들과 다를 수밖에 없었다. 계급적 관점에서 보면 아내폭력이라는 여성의 이슈는 중산층 부르주아 여성들의 가정문제에 불과할 뿐이었다. 그러나 전업주부 계층의 등장은 1970년대 이래 산업화로 형성된 중산층 가족의 형성에 따른 필연적인 것이었다(강정희, 1995). 변혁적 지식인 그룹의 일부와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경향을 지닌 중산층 여성들이 결합하여, 아내구타 이슈를 적극 수용하는 여성폭력추방운동을 위한 집합주체인 여성의전화를 조직했다. 이는 사적 영역의 가부장적인 젠더 권력관계에 저항하는 대항 헤게모니 실천의 출발이었다.

1970년대 말~1980년대 초에 지배 권력이 재편되면서 지배 헤게모니에 균열이 발생했다. 한국의 사회운동이 아래로부터의 급진적 민주화를 쟁취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가 저항적으로 활성화되면서 권위주의 권력에 대한 사회의 동의가 축소되었다. 사회운동은 "개발독재의 폭력에 저항하면서 스스로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게 되며, 이를 억압하는 독재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활성화되어갔다"(조희연, 2004:38). 사회운동 주체들은 재야인사로부터 노동자·농민·학생으로 이동했으며, 이들은 민족·민주·민중(삼민)을 이념으로 하는 민주화운동 담론을 만들었다.

한국 사회운동의 강력한 '민주화' 프레임은 진보 여성운동이 젠더 모순에만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민주화' 프레임은 남성중심적 정치·경제 민주화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여성운동의 대응양상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민주화' 프레임의 토대 위에서 젠더 모순을 해결하고자 했던 여성평우회는 '민주화' 프레임과 젠더 모순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4년 만에 해체되었다. '민주화' 프레임을 온전히 공유한 여성단체들은 1987년을 계기로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이라는 전국적인 연대체로 결집했다. 반면 아내폭력 과제에 집중된 여성의전화는 '민주화' 프레임을 전적으로 공유하는 대신 여성연합 가입단체로서 공감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여성인권'이라고 하는 사적 영역에서의 반(反)가부장제 헤게모니를 구축하고자 했다.

여성의전화는 여성의 비인간화를 초래하는 여성폭력을 '성폭력'으로 명료화하고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성폭력으로 재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도 가시화시켰다. 이러한 '성폭력' 프레임을 전달받은 여성의전화 중산층 전업주부들의 대항 헤게모니 실천은 여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여성상담이란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반면 여성의전화 지식인 여성들의 대항 헤게모니 실천방식은 사회운동과 진보적 여성운동의 영향권 하에 놓여 있었으며 공적 영역에서의 직접적인 정치투쟁방식을 선호했다.

2 프레임이란 고프만의 정의에 따라 "개인이 자신의 삶의 공간과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위치시키고 구별하여 이름붙이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해석의 틀"

프레임을 전달하는 교육은 《여성상담교육》이었는데, 이는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성폭력 피해자 상담의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다 보니 《여성상담교육》은 여성의전화 주체들 간의 상이한 체계모니 실천을 통합하거나 균형을 잡아주어 대항주체를 강화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주체들 간의 갈등과 긴장의 원인으로 작동했다. 상담활동 참여자들은 민주화운동의 정치투쟁 방식에 호감을 갖지 못한 반면, 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은 여성상담만으로는 근본적인 사회변혁을 도모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여성상담교육》은 양자의 견해를 조정해주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성폭력 프레임의 증폭 과정에서 여성의전화 상담사업이 활발해지고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된 데 반해 조직의 내부는 약화되었다. 1980년대 말 민주화 이행으로 사회운동과 여성운동이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거나 조직구조나 인적 구성을 변화·확대하던 분화의 시기에 여성의전화는 분열되어 계급운동을 지향하던 지식인여성그룹이 조직에서 이탈했다. 이것은 여성의전화 내부에서 여성인권 담론 및 주체 재생산의 장애를 가져오는 요인의 하나로 작동했다. 동시에 계급중심적인 진보 여성운동은 여성의 몸이나 섹슈얼리티(sexuality) 담론을 더욱 주변화하고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1990년대는 위로부터 국가 및 지배의 합리화, 즉 자본과 권력의 합리화가 진전되는 저강도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한편 시민사회 공간이 확보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사회운동은 이념지향적·정치투쟁적 운동에서 개혁지향적 시민운동으로 변화했다. 1980년대와 달리 사회운동은 자율적인 정치적·사회적 공간의 확대를 향유했으며, “고문과 투옥 등 극단적인 희생을 무릅쓰고 저항해야 하는 조건이 없어지고 ‘합법적인’ 공간이 확장되면서 이를 최대한 활용하며 대중적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시민운동이 출현했다(조희연, 2004:40).

그러나 보수적 민간정권은 자유민주주의 혹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한국적인 초보형태로 김영삼, 김대중 정부 모두 아래로부터의 민주화가 아닌 구 권위주의 정권과 타협하여 성립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조희연, 1998:11-14). 가장 큰 한계는 성별적 공·사이분법에 근거한 여성차별, 성별 권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여성폭력이라는 지배 이데올로기는 그대로 관철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치적·절차적 민주주의의 이행에 따라 국가의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은 상당 부분 감소했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여성폭력의 실태는 큰 변동이 없었고 오히려 더 일상으로 파고들었다.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은 직접적·물리적 폭력의 정당성을 완화시켰지만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을 크게 완화시키지는 못했다. 오히려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이 새로이 등장했다. 가부장적 가족의 문제들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고,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공적 공간에서의 성폭력이 증가했다. 여성폭력을 규제하기 위한 법제들은 내밀화되고 일상화된 여성폭력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한편 여성들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세력화(empowerment)되고, 공적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의 여성의 피해를 스스로 드러낼 힘을 갖게 되었다. 권위주의 시대 개발국가의 여성정책은 여성에 대한 통제와 동원이 목적이었으나 민주주의로 이행되면서 국가와 여성운동 간의 관계가 변화하여 여성정책 담당기구가 설치·확대되고, 여성정책 또한 확장되고, 양성평등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다(권태환·김태현·최진호, 2005; 황정미, 2004).

여성운동은 북경대회에 영향을 받아 여성인권 담론을 채택하고 성폭력·가정폭력의 입법운동을 적극 추진했다. 제도화 과정에서 성폭력 프레임은 혐의의 개념으로 축소되었고 여성의전화는 광의의 여성폭력 개념을 회복하기 위해 ‘글로벌 여성인권’ 개념을 도입했다. 글로벌 여성인권은 인권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과 재구성을 시도하는 것이며 여성인권의 주류화를 추구하는 것이었으나 여성을 단일한 주체로 상정함으로써 여성 내부의 차이를 보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여성인권 이슈가 제도화되자 여성의전화 이외에도 전국에서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들이 급증했다. 민주화와 글로벌 여성인권 프레임에 힘입어 여성의전화에는 새로운 중산층 전업주부들이 대거 유입되었고 주체들이 다양화되었으며 이에 힘입어 여성의전화는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자 《여성상담교육》만으로는 다양한 주체들을 여성인권 프레임에 연결시키기 어렵게 되었다. 성폭력 프레임을 전달하도록 구조화된 《여성상담교육》이 글로벌 여성인권 프레임을 반영한 교육체계로 충분히 전환되지 못했으며, 여성폭력추방운동의 사회운동/여성운동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제도화 이후 유입된 주체들을 의식화시키지 못하고 여성폭력추방운동을 제도화된 상담기관에서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상담에 한정하는 관념을 강화시켰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의전화는 《여성상담교육》을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여성주의 원리를 강조하는 《여성주의상담교육》으로 개편하는 한편 사회운동/여성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지부 활동가교육》을 강화했다.

이는 이전 시기와는 다른 형태의 주체 정체성 긴장을 가져왔다. 성폭력 프레임을 전달하는 《여성상담교육》이 ‘상담=운동’이라는 논리를 편 데 반하여 글로벌 여성인권 프레임을 전달하고자 하는 《지부 활동가교육》은 ‘상담≠운동’이라는 입장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두 교육이 모두 글로벌 여성인권 프레임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재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체들이 느끼는 상담가와 운동가의 사이의 정체성 긴장은 더욱 커졌다.

2000년대 들어 민주주의가 공고해지고 시민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사회운동/여성운동의 분화와 확장이 일어났다. 사회운동이 제기한 각종 과제들이 제도화되면서 민주화 프레임은 쇠퇴해졌다. 2000년대 민주주의의 이행과 여성인권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들의 보완으로 국가의 직접적인 여성폭력은 감소했으나 법과 제도가 배제·누락시키거나 제도의 모순으로 인한 여성폭력의 문제가 새롭게 등장했다. 여성인권보호를 위한 국가 책임성도 완벽히 확보된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여성폭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재현되었다. 지구화는 신자유주의적 지구적 맥락에서 진행되는 시장자율화(자본권력과 시장권력의 강화)와 개방화, 그에 따른 물질 조건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지구화라는 국제 자본주의 체계들의 침투는 발전국가 내부의 경제적 빈곤을 가중시키고 특히 여성들에 대한 착취의 정도를 심화시켜 여성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여성폭력 강화라는 구모순과 가부장제로 구성된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라는 지구화에서 비롯되는 신모순이 복합적인 쟁투를 벌이면서 여성운동은 공간과 시간의 복합적인 수준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여성폭력을 경험하게 되었다(허성우, 2010b:256).

민주화 이후 민주화 프레임 및 지배 체계모니의 가부장성이 존속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것은 한국의 민주화가 수동혁명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민주화 프레임 자체가 가부장성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이

기도 하지만 여성인권운동이 강력한 반(反)가부장제 헤게모니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글로벌 여성인권 프레임은 여성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성을 우선시하면서 여성인권운동의 자율성을 감소시켰기 때문에 여성인권 담론은 민주화 이후에도 존속하는 가부장적 지배 헤게모니에 저항하는 대항 헤게모니를 생성할 수 있는 정치적 전략으로 기능하기 어렵게 되었다. 여성인권 프레임은 협의의 성폭력 개념으로 축소되었고 나아가 여성인권운동의 개념도 축소되어 여성인권운동은 여성폭력 피해여성을 상담하고 상담소를 운영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동일시되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지구화 시대의 복합적인 여성폭력에 접근할 수 있는 여성운동의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여타 여성단체들 또한 성주류화 전략과 정부와의 거버넌스에 치중하느라 새로운 여성운동 담론을 만들지 못했다.

지구화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중산층의 붕괴를 가져왔다. 이는 여성의전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자신들이 의식하던 의식하지 못하던 여성의전화 주체들이 중산층 전업주부라고 하는 단일한 정체성 이해는 해체되었으며 여성은 젠더·계급·인종적 요소들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주체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여성의전화가 제도화에 전념하면서 가정폭력·성폭력으로 재현된 여성폭력 이슈는 더욱 단일해졌고 운동의 분화도 발생하지 않았다. 제도화 이후 사회운동/여성운동은 지도그룹을 중심으로 제도에 포섭되었지만 여성의전화에 있어서는 지역과 회원들을 중심으로 포섭되었다. 전 시기부터 누적되고 심화되어 온 정체성 긴장 때문에 여성의전화는 제도화가 여성의전화 주체들에게 미치는 원시력을 차단하지 못했다. 여성의전화 주체들은 제도의 영향력 속에 '전문' 상담가 정체성으로 기울거나 상담가 정체성과 운동가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었고, 갈등을 이기지 못한 주체들은 좌절된 채 기능적으로 일하거나 조직을 떠났다. 반면 새로운 여성운동을 지향하는 새로운 주체들에게 이러한 여성의전화는 매력적이지 못해 새로운 운동주체들의 유입을 방해하고 주체 재생산의 위기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주의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상담원을 양성하는 《전문 여성상담교육》을 표방하고 《지부활동가교육》을 체계화했지만 이들 교육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여성폭력 이슈의 제도화와 프레임 전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체를 의식화시키는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한 채, 이전 시기의 프레임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인권 프레임을 주체에 전달하는 의식화교육의 부정합은 대항주체 내부에 '전문 상담가 vs 여성운동가'의 정체성 긴장을 발생시켰으며 그 결과 강력한 반(反)가부장제 헤게모니를 형성하지 못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회운동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담론에 맞설 민주화 이후의 사회운동 담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신자유주의화된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의 급진성을 되살리고자 하는 급진민주주의 담론 생산의 노력이나(장훈교, 2011; 조희연, 2011), 신좌파운동·생태운동·페미니즘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적·녹·보'담론(고정갑희, 2009; 박영균, 2009), 그리고 가부장제가 내장된 젠더화된 민주주의 담론을 비판하는 시도들이 그것이다(허성우, 2010a; 2011). 이런 논의들은 여성인권운동의 새로운 프레임과 주체 생성을 위해 국가와 시민사회와 그 가부장성에 주목하고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마무리

지금까지 여성운동의 주체가 약화되고 재생산이 어렵게 된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여성폭력의 문제가 제도화되었다고 해서 여성폭력추방운동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성인권 담론 자체에 프레임과 주체 전환의 위기의 원인이 내장되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대신 주체의 재생산은 '프레임-의식화교육-주체'의 정합/부정합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프레임-의식화교육-주체의 정합이 원활히 이루어질 때는 주체의 재생산이 활발하고 프레임 전환의 힘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프레임-의식화교육-주체의 정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체 재생산의 위기가 발생하고 이는 프레임 전환의 위기로 이어진다. 프레임 전환의 위기는 다시 프레임-의식화교육-주체의 부정합을 낳는다는 점에서 순환적이다. 여성의전화는 각 단계에서 프레임-의식화교육-주체의 부정합이 발생했고 이는 '상담이나 운동이나' 하는 방식으로 표현되는 주체 정체성의 긴장을 초래했다. 이 부정합과 긴장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누적 정도가 증가했고 젠더 이슈만이 아니라 여성운동마저 제도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슈의 제도화와 동시에 그 제도 속으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포섭되어 들어갔다. 이는 여성인권 분야만이 아니라 여성운동 전반의 현상이며 여성정치세력화 부분은 더욱 심각하다.

사회운동이 권력 외부에서 발생하여 권력 내부로 진입하는 제도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제도화가 완성되면 사회운동은 소멸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른다. 제도화는 체제 그 자체의 변혁이 아니라 체제 내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운동이 사회체제-권력구조 변혁이라는 급진적 목적을 상실한다면 사회운동의 위기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알맹 뚜랭은 페미니즘은 사회변동에 동반하여 발생했지만 그 자체가 여성운동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페미니즘의 한계와 모순을 넘어서 지배관계에 대항하는 투쟁과 그러한 지배가 파괴한 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투쟁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권력관계를 드러내고 바꾸려는 행동이 여성운동이라고 정의했다(뚜랭, 1980). 인권의 정치적인 힘은 그것이 사회변혁을 위한 대항 헤게모니의 창출이라는 데 있다. 인권은 인권보호를 위해 그것이 제도화되는 순간 저항담론에서 체제유지담론으로 전화되는 역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성인권운동의 목표는 제도화를 통해 지배 권력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 지배 권력을 바꿀 대항 헤게모니로서의 긴장을 놓치지 않고 유지하는 데 있는 것이다(조효제, 2007:299-230).

여성인권운동의 대항 헤게모니 강화와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하에서 발생하는 여성인권 침해를 읽어낼 새로운 여성인권 프레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가와 제도, 그리고 상담을 넘어 여성의 욕망에 기초하여 여성이 권리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프레임을 상상하는 것이다. 새로운 프레임은 여성폭력 과제의 제도화에서 비롯된 구모순과 지구화에서 비롯되는 신모순이 복합적인 쟁투를 벌이면서 공간과 시간의 복합적인 수준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 현장을 어떻게 읽고 해석할 것인가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프레임을 주체에 매개할 프레임-교육-주체의 정합을 이루는 적합한 교육방식을 창안하는 것이다. 또한 젠더에 기반한 단일한 '여성'들이 지구화에 의해 해체되고 있으며, 이들이 어떤 시간과 공간에서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주시하면서 단일한 여성주체의 구축이 아니라 "차이의 보존이나 승인이 아닌 차이를 생산하는 현실 메커니즘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고 여성주

의적 관점에서 차이의 생산적 흐름을 전유하고 그 생산의 흐름을 여성주의적으로 활성화하려 시도”하며 이러한 차이의 연대로 이루어진 주체들의 집합행동을 시도하는 것이다(이상화, 2007:36-46). 그람시는 사회운동이 활발하다고 해서 모두 사회체제 변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변혁을 가져올 만큼의 집합행동의 축적, 즉 사회적 블록이 형성되어야만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회적 블록의 형성을 촉매하는 유기적 지식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역사적으로 성공한 변혁이나 혁명은 외부의 선도적이며 탁월한 지식인 세력(외생적 지식인)의 지도로 일어나지 않았다. 사회운동 스스로 자기 지식인, 유기적 지식인을 창출해야 한다(보그, 2001). 이를 위해 운동 내부의 자원들을 총동원해야 한다.

지난 30여년간 여성운동의 현장들과 여성학의 발전은 197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풍부한 인적 자원을 축적할 수 있게 해주었다. 여성단체들은 각자 주체들을 재생산할 수 있는 독자적인 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운동의 영향 하에서 여성들을 주체화할 수 있는 다양한 여성교육의 기회들도 증가했다. 이와 같이 운동 내부에 대항담론 생산에 필요한 자원이 풍부하고 다양한 운동 주체들이 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론 생산이 지체되고 새로운 운동으로의 질적 전환, 집합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운동 내부의 자원들이 운동 주체 재생산으로 총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운동의 지속과 질적 전환을 위한 장기적 전망에 있어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실천은 운동 내부의 자원들을 총화하여 여성운동의 유기적 지식인을 만들어내는 것, 즉 운동 주체의 재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참고자료

강남식·윤정숙·남인순, 1999, “80-90년대 여성운동의 평가와 세기전환기 여성운동의 전망과 과제”,

한국여성연구소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세기 전환기 여성운동과 여성이론』.

강정희, 1995, “중산층 주부의 여가에 대한 사례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고정갑희, 2009,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진보와 패러다임의 전환”, 『진보평론』 49호.

곽삼근, 2001, 『여성과 교육』, 박영사.

권태환·김태현·최진호, 1995, 『한국의 인구와 가족』, 일지사.

김동춘, 2000, 『근대의 그늘』, 당대.

박영균, 2009, “오늘날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적·녹·보 연대를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 『진보평론』 49호.

박인혜, 2006a, “여성운동이란 무엇인가? 전환인가? 좌절인가?—새로운 여성KR운동은 가능한가”,

한국여성학회 주최,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_____, 2006b, “한국여성운동의 흐름과 고민”, 한국여성의전화연합, 2006년 정책토론회 발제문(미발간).

_____, 2006c, “자율성, 보편성, 실천성을 품은—열린 여성인권 공동체를 향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여성연합의 비전 마련과 새로운 운동방식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발표문.

_____, 2007, “여성운동단체에서 여성운동가는 누구인가?” 한국여성학회 연대위원회 주최,

<집담회 한국여성운동 20년> 발표문.

보그, 칼, 2001(1991), 『다시 그람시에게로』, 강문구 역, 한울.

스콧, 2001, “젠더와 정치에 관한 몇 가지 성찰”, 한국여성연구소 편, 『여성과 사회』 13호.

신혜수, 2003, “여성인권을 위한 지구적 연대”, <새로운 지구질서와 여성주의 인권>, 김옥길기념강좌위원회.

알랭 투렌, 1980, ‘노동운동의 제도화와 새로운 사회운동의 전개’, 새로운 사회운동과 참여민주주의, 정수복 편역,

문학과지성사, 1993.

이상화, 2007, “지구화 시대의 현장 여성주의: 차이의 존재론과 연대의 실천론”, 한국여성연구원 편,

『지구화 시대의 현장 여성주의』, 이화여대 출판부.

이옥지, 2001,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한울.

임희섭, 2001,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의 이론』, 고려대학교출판부.

장훈교, 2011, “사회운동정당: 사회운동과 정치정당의 접합을 통한 민주주의의 급진화”, 『연대의 정치학』, 한울.

조효제, 2007, 『인권의 문법』, 후마니타스.

조희연, 1998,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당대.

조희연, 2004, “민주항쟁 이후 사회운동 변화와 그 특성: 4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시민의 신문(편),

『한국시민사회운동15년사 1987-2002』, 시민의신문.

조희연, 2010, “거대한 운동에서 차이의 운동들로의 분화”, 조희연·김동춘·김정훈(역음), 『거대한 운동에서 차이의

운동들로』, 한울.

조희연, 2011, “‘포스트 민주화’ 시대의 ‘민주주의 좌파’의 정치학: 급진화 전략과 헤게모니 전략의 조합을 지향하며”,

김명희·서영표·김우정 외, 『연대의 정치학』, 데모스미디어.

조희연·조현연, 2002, “국가폭력·민주주의투쟁·희생에 대한 총론적 이해”, 조희연(편), 『국가폭력,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 함께 읽는 책프레이리(2003).

프레이리, 파울로, 2003, 『페다고지』, 남경태 역, 그린비.

한명숙, 1985, “크리스찬 아카데미 20년과 여성운동”, 크리스찬아카데미(편), 한국아카데미총서 12권, 『민주사회를 위한

대화운동』, 문학예술사.

황정미, 2005, “한국 여성정책의 형성과정과 1990년대 여성정책의 의의-패러다임 전환의 두 가지 요인”, pp. 33-68,

권태환·김혜란·양현아 외, 『한국 여성정책의 쟁점과 전망-가족, 성폭력, 복지정책』, 함께 읽는 책.

허성우, 2010a, “포스트/발전국가론과 여성주의적 개입”, 한국여성학회 제26차 추계학술대회, <초/국가시대의 여성주의

지식생산> 자료집.

_____, 2010b, “민주화 이후 필리핀 여성운동의 변화·분화와 신자유주의 대항 헤게모니”, 조희연·허성우·이기호 편,

『아시아 정치변동과 사회운동의 변화: 아시아 민주화와 분화하는 사회운동들』, 한울.

Bunch, Charlotte, 2001, “Women’s Human Rights: The Challenges of Global Feminism and Diversity”, In Feminist

Locations: Global and Local, Theory and Practice, Ed. Marianne DeKoven,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Hunt, Alan, 1990, “Rights and Social Movements: Counter-Hegemonic Strategies”, Journal of Law and Society,

17(3), Autumn.

여성, 여성주의, 정치적 액티비즘에 대한 생각들

전희경 여성주의 연구활동가¹⁾

1. 상황의 개괄

- 신자유주의 시대, 양극화와 불안에 잠식된 일상, 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절차적 민주주의 쇠퇴, 여성 가족부라는 계류, 의료와 같은 사회안전망의 영리화, 극우의 세력화.
- 배신당하는 여성주의: 대중적 여성운동의 성과와 열매가 너무 신속하게 잊혀짐. 이것은 민주화운동이 기억되는 방식, 그것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위치와 입장을 설명하는 '참조점'으로 위치지어지는 방식과는 매우 다름.
- 여성혐오의 심화, 역차별 담론의 확산, 성평등은 이미 (심지어 과도하게) 이루어졌다는 환상.
- '여전한' 문제들 (고용차별, 여성에 대한 폭력, 제도정치에서의 성주류화의 어려움 등).
- '여전한' 어려움들 (활동가 재생산의 어려움, 재정적 어려움, 전업/비전업을 막론한 활동가들의 과로, 공부할 시간의 부족)
- 그러나 끊임없이 '새로움'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
- 페미니스트들의 상이한 세대적 경험(대학 여성운동의 난국, 20-30대 여성주의자들의 모색, 중년기로 진입하고 있는 '영페미니스트'들의 각개전투, 20~30주년을 맞이한 여성운동단체 리더들의 고민 등)

2. 지금 '여성주의'는 어떤 이름인가: 단상들

(1) 대중적 담론장에서 누가 '여성주의자로서' 발언하고 있는가?

- 대중적인 담론장 안에서 '여성주의'는 경청할만한 정치적 입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즉, 새로운 해석틀을 제시하는 질문, 다른 목소리들의 등장, 문제적 상황에 대한 정치적 개입으로서의 발언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남성지식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빠르게 단행본을 출간할

1 junhk1018@naver.com 발표자의 위치를 드러내기 위해 간단한 이력을 쓰자면 '운동사회성폭력뿌리뽑기100인위원회' 활동. 90년대 중후반 '영 페미니즘'의 영향권. 대학과 대학원에서 윗세대 여성주의자들로부터 '여성학' 교육을 받은 수혜자. 언니네트워크 활동. 여성학 박사. 현재는 나이(들), 세대, 건강/질병에 대한 연구관심을 갖고 있는 여성주의 연구자. 비정규직 여성학 강사 13년차.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 특히 살림의료협동조합 여성학 전문이사로 활동 중.

수 있을까?

- 물론 명백한 '여성 이슈'라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미디어는 여전히 여성주의 지식인과 활동가들을 호출한다(낙태, 저출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형과 다이어트, 성 상품화 등). 그러나 '여러 다양한 전문가들 중 1인'으로서 호출되며, '깨시민이라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재확인하는 '편한 규범적 언설'로서 소비되곤 한다.
- 여성주의가 '인기 있는' 담론/지식/실천이었던 적은 없다. 문제는 누구에게, 어느 만큼, '설득력'이 있는가 이다. 혹은 누구에게 어떤 설득을 하기 위해서 발언하고 있는가 이다. 나아가,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존재하는가 이다.

(2) '여성대통령' 시대의 '여성주의'? : '여성의 이름/눈'만으로는 부족하다

- 대학 강의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것은 ① 여학생과 남학생의 젠더의식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는 것, ② 특히 외모관리 및 가족주의에 대한 여성학 분석에 대해 강한 감정적 반감을 표시한다는 것, ③ 신가부장주의/극우적 입장을 가진 학생들이 점점 더 '부끄러움 상실'해가고 있는 반면, 소수자 감수성과 민주주의 의식을 지닌 학생들은 '집단지성 문제제기'에 대해 상당한 회의와 무력감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모임을 만들기보다 강사를 찾아오고, 단체를 찾아가기보다 단체에서 기획한 강의를 들으러 가고, 세미나를 만들기보다 개인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등).
- 제도정치와 풀뿌리정치 모두에서 여전히 '여성'이라는 단어가 생물학적 범주에 고착된 채 거의 해체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런데 '여성 대통령' 시대에 '여성'이라는 단어에 기초하여 액티비즘을 기획하는 것이 좋은 선택인가?
- 여성주의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은 여성주의자들에게는 '상식'이 되었지만, 사회적으로 여전히 '여성계'라는 말이 통용되며, 성공한 일부 여성들이 여성정점을 과잉대표하면서 '여성들의' 다층적 위치성이 논의되기보다 '성공한 여성 vs. 피해자 여성'으로 양분되어 논의되는 양상?

(3) 신자유주의 담론과 구분하기 어려워진 여성주의 언어/실천?

- 개인, 자유, 독립성, 주체성, 자율성, 선택권, '자기 스스로', '진정한 자신'...?
-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은가? '개인', '정치'가 무엇을 뜻해야 하는지를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 신자유주의가 '사회적인 것(the social)'을 파괴하는 체제라면, 여성주의는 '사회적인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운동이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인 것'이 1980년대에는 주로 법률과 정책, 제도정치, 정권변화를 지칭했고,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에는 문화적/담론적 장으로의 '초점이동'을 새롭게 내포했다면, 2010년대에는 모든 문제의 시장화(경제로의 환원)로부터 '사회'를 구해내야 한다고 말해지는 상황. 여성주의는 다시 만들어내야 할 '사회'의 질서가 어때야 하고 그 사회를 이루는 '개인들'이 어떻게 재정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어떤 대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은 왜 '여성주의'의 대답이라고 말해질

수 있을까?

(4) 다른 사회운동과 구분하기 어려워진 여성주의 언어/실천?

- 공익, 공감, 존중, 반차별, 인권, 행복, 사랑, 연대, 함께, 소수자 감수성...
- 이러한 경향은 여성혐오와 반여성주의가 공공연해진 시대에 '여성주의'라는 이름이 피곤을 가중시키고 고립의 공포를 자극하는 이름이 된 것과도 관련이 있다.
- 이것은 여성주의의 '대중적 언어'인가, '확장된 언어'인가, 아니면 여성주의의 '희석된 언어'인가?
- 2000년대 이후 다양한 여성주의 의제영역과 이를 주도하는 여성운동조직들이 등장하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각 영역마다 연대하는 조직이 다르며, 그에 따라 애착/신뢰/상부상조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여성주의의 '확산, 다변화'인가, 여성주의의 '개별 영역화'인가? '다양한 영역(field)'의 출현 혹은 여성운동의 '다변화'라고 평가하기에는, 1) 대화가 부족하고(논쟁하지 않고), 2) 큰 지도(map)가 공유/갱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5) 세대별 집단성 및 세대간 연결성의 약화?

- 여성주의자 각 세대들은 누구를 향해 어떤 말을 걸고 있는지 궁금하다.
- 2010년대의 '20대 페미니스트' 실천은 계속 존재하며 분투하고 있다.(대학 내 여성주의 조직들, 물길캠프, 청년젠더활동가, 단체 상근/비상근 등) 그러나 마이크는 좀처럼 돌아가지 않는다.
- 한편, '젊은 세대의 목소리'라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성주의자 개인'으로서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이나 '여성주의자 개인'으로서 여성학과에 진학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떤 형태로든 '집단성'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 '집단적 세력화'라는 지점에 대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 1세대, 1.5세대, 2세대 페미니스트 선배들의 '현재의 여성주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번에는 우리 차례'라는 말에 설득되었지만, 여전히 나/우리에게 선배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는 중요하다.

3. 무엇이 여성운동을 여성운동에게 하는가?

(1) 우리는 왜 '우리'인가?

- '페미니즘의 위기' 혹은 '여성학의 위기'에 관해 지난 수년 간 지적된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를 열거하기보다는 토론을 위한 질문을 던져보고자 함. 단적으로, 우리는 왜 '우리'로서 여기에 모였는가?
- 여성운동'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기정사실로 수용되고 있는 것에 비해, 그 다양한 여성운동들 '사이'의 관계는 분명치 않은 것 같다.
- 여성주의의 '대중성'은 여성주의가 아닌 다른 이름들로 용해될 때만 성취 가능한가? 그 결과 지금 여성주의라는 이름은 여전히 생물학적 '여성'의 피해경험으로 한정될 때에만 분명해지거나, 그 밖의 모든 개입은 반여성주의적/여성혐오적 담론들 속에서 '지나친 것'으로 고립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2) 감수성과 액티비즘은 구분되어야 하지 않는가?

- 여성주의 감수성 확산이 여성주의 실천과 동의어가 될 수는 없다.
- 대중동원이 가능했던 '민주화' 세대의 액티비즘과, 소비자본주의 시대 '영 페미니스트' 세대의 액티비즘...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시대의 액티비즘은 어떤 조직론, 방법론(전략), 비전을 구상해야 할까?
- 약자의 '권리' 주장이 의존성이라는 '부도덕'으로 비난받는 등 정치가 도덕화되는 시대에, 여성주의 액티비즘은 어떤 단어를 구심점으로 재구성되어야 할까? 여성주의를 '정치화' 하기 위해, 즉 개인적 힐링과 성찰에서 머물지 않고 액티비즘이 될 수 있기 위해, '권리'(평등권/인권) 외에 어떤 또 다른 구심점이 필요할까? (정의? 윤리? ...)

(3) 여성주의자 '활동가'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속될 수 있는가?

- 페미니스트로 '사는 것' 이상의, 페미니스트 '활동가'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슬로건이 여성운동의 주체 형성으로 이어지는 '과정'과 '기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 '20년간 한 단체에서 활동했다'는 식의 경험이 현재의 20대에게 가능한 생애전망인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혹은 훨씬 더 단속적이고 불연속적인 생애과정을 시대적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조직을 통한 꾸준한 활동'이 아닌 다른 액티비스트 생애모델이 모색되어야 할까?
- 희생/헌신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희생/헌신의 '의미'를 알아야겠다는 것

(4) 여성주의 '역사의식', 혹은 '팀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 여성주의의 '총량'을 늘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여성주의의 '내용'을 구성하고 갱신해내는 것이다. 무엇이 우리 시대의 '여성주의'여야 하는가 라는 내용은, 우리 시대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라는 '공유된 지도'가 만들어질 때 가능하다. 그리고 '공유된 지도'는 현실진단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다.
- 이런 점에서 가장 문제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대화, 토론, 논쟁의 부족. 현재를 살아가는 여성주의자들은 각자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가? '여성주의'에 대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혹시 일베와 남성연대인가?
- "페미니스트들이 반드시 서로를 좋아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서로 대화할 필요는 있다": 논쟁에서 상처받았던 기억? 상처 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혹은 상이한 입장을 논쟁할 수 있는 장(場)의 부족?
- '여성주의자'라는 이름의 무게를 감당하고, '여성주의자로서' 다른 위치/영역/세대/계층의 여성주의자들과 대화하겠다는 것은, '여성주의'를 도착점이 아닌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것이기도 하다. 같음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대화 가능성에 대한 신뢰. 대화하려고 할 것이라는 신뢰. 이것은 단시간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운동들 사이의 관계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
- 누구와 팀플을 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어떤 '팀'에 속한 존재로 규정하는가와 관련되며, 이는 여성주의 '역사의식' 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감각이다. 이런 점에서, 여성주의자들의 세대간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고민해보고 싶다.

- 운동 영역의 분류를 넘어서고, 분과학문의 분류를 넘어서는 것은 여성주의 지식/실천의 출발이자 지향이었다. '여성학'이 있고 '여성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둘 사이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여성주의 '지식'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지식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의논해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김현미 (2011), "신자유주의 경제하의 생활정치와 여성운동", 2011 여성회의 1세션 발표문.

낸시 프라이저, <지구화 시대의 정의>

손희정(2014), "우리 시대의 여성혐오: 네 가지 접근", 성균관대 여학생잡지 <녹지> 2014년 가을호.

이유진(2014), "가부장제 맞선 한국 여성학 30년... 이젠 젊은 층 답답함 풀어줄 때", <한겨레신문> 2014/6/11.

자급의 정치: 맞벌이 대신 맞살림¹⁾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정책국장

1. 내 삶의 대안은 무엇일까? '평등한 벌이 vs. 쇼핑물 하나'

세월이 흘러도, 여성운동 황금기의 성과가 정책으로 반영되어도 여성 취업률은 여전히 M자 곡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첫째아이 출산 후는 약착같이 복직하지만, 둘째아이를 낳고서는 결국 직장을 그만 두는 여성들이 주변에도 많다. 여성단체들은 지난 총선과 대선 때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보장 및 '아버지 영아휴가제' 도입을 주장했다. 아이를 낳고 3년 동안 육아휴직을 보장받고, 그 중 1년 혹은 2년을 남성이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받고 복직한다면 그들의 삶은 안정적이고 행복할까?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고 했던가. 유사부모 노릇을 해 주던 가족과 친지, 이웃과 마을 등 공동체는 사라진 대신 각종 오염물질이 넘쳐난 자급의 현실. 친환경 먹거리와 생활용품으로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라는 지상과제와 무한책임이 오롯이 개인에게 전가되는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맞벌이로 살아간다는 것의 비인간성을 절감하게 된다. 다행히 아이를 함께 키우자고 모인 부모들이 자구책으로 만든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맡겼다 하더라도 말이다. 출근과 함께 아이를 맡기고 어린이집 교사의 퇴근시간을 넘기지 않게 스스로의 퇴근시간을 조절하며 매일같이 전쟁을 치른다. 머피의 법칙처럼 맞벌이 부부의 회의는 왜 매번 겹칠까? 저녁에 열리는 회의는 경중을 떠나 죄다 부담스러울 뿐이고, 아이는 늘 부모와의 시간이 부족하다. 어지간히 육아와 가사를 분담하는 맞벌이 부부라도 시간은 한없이 모자라라고 개인적으로 쉬거나 재충전할 시간 같은 걸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나날이 지쳐간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식과 가공식품 구입을 늘리고, 아이에게 각종 장난감과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베이비시터 삼아 선물해야 하는 걸까?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쇼핑물 하나가 필요할 지경이다. 부모님에게 평생을 살아온 고향을 떠나 아이를 보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걸까? 격의 없이 드나들며 아이를 돌봐줄 이웃 하나 못 만든 내 낮가림과 부족한 사교성이 문제일까? 어쩌면 부부 모두가 전일제-임금노동을 해야 하는 시스템과 저녁에도 일해야 하는 노동중독 사회가 문제인 건 아닐까? 나는 '여성학 전공

¹ 이 원고는 이안소영, 윤박경, 최이윤정이 쓴 '우리의 꿈은 평등해지는 것인가? 행복해지는 것인가?' <모심과 살림> 창간호, 2013 여름을 일부 재활용하였음을 밝힙니다.

자답게' 남녀가 평등해지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평등한 경제적 기여'와 '자원의 권력'을 공평하게 가지려고 '맞벌이-임금노동'을 하지만, 그 '노동'은 나와 가족을 행복하지 못 하게 만드는 것 같아 불행하고 불안하다. 행복하지 못한 나와 내 가족과 이웃을 구성원으로 하는 이 사회 또한 행복하지 못한 것 같다. 돌봄과 살림을 전담하는 여성들이 '집에서 놀아요'라고 말하게 만들고 돌봄의 경험이 경력단절로 낙인찍히는 현실을 해결하는 방법이, 거꾸로 그녀들이 돌봄과 육아와 '절연'한 채 GNP 양을 높이는 일에만 몰두해 온 남성 모델의 '생산'영역으로 모조리 걸어 들어가는 것일까? 과연! 여성학과 여성운동이 내게 답을 주었으면.

2. 맞벌이 엄마-시민단체활동가-시민 사이에서

왜 아이를 가진 여성은 단체활동을 열심히 하기 힘든가? 시민단체 활동가 집단에서조차 싱글여성, 남성만이 뛰어나고 헌신적인 활동가가 된다. 여성단체를 제외하면 처장은 거의 다 남자다. 개인의 자질 문제인가, 조직문화와 운영원리가 문제인가, 혹은 다른 무엇 때문인가? 가사와 육아 책임을 맡고 있는 여성 활동가는 '시민단체 활동가'라는 단어에서 풍기는 '남다른 열정과 헌신성'을 구현할 수 있는가? 그 여성이 전사회적으로 여전한 성별분업 때문에 돌봄노동을 도맡아하기 때문인가? 물론 부분적으로 그렇다. 하지만 부모 모두를 시민단체 활동가로 둔 아이의 삶은 어떤가?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여성(혹은 남성) 활동가는 어떻게 돌봄을 수행하는가? 시민단체 활동가는 누구를 모델로 하는가? 가사와 육아의 책임에서 벗어난 싱글-남성인가,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엄마-여성인가? 1985년 독일 녹색당에서는 '어머니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있었다. 이들이 제기한 문제는 어머니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남성이나 소위 '커리어우먼'이라 불리는 아이 없는 여성들과 똑같은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녹색당의 일과 조직이 변화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시민단체 활동가는 자원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자신의 일이 이미 일부 자원활동을 포함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고, 너무 바쁘기 때문일 것이다. 나의 활동은 정당하게 대가를 받는가? 정당한 만큼의 대가는 얼마 만큼이고, 왜 나는 활동의 대가를 화폐로 지급받는 일만 하는가? 시민의 자발성을 끌어내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민단체 활동가가 자신의 자발적 참여는 구현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3. 수고로움을 대체한 일회용 & 기계들: 성별분업과 자유에 대한 단상 1

여성학의 오래된 논쟁 중 하나가 새로운 기술이 여성을 자유롭게 하는가를 둘러싼 질문이다. 세탁기, 냉장고, 전기밥솥, 가스오븐, 청소기 등 가전제품은 오래되고 고된 가사노동으로부터 여성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노동을 더하게 한다. 세탁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세탁기에 빨래를 분류하고 기계 조작을 하고, 또 빨래를 널고 개는 노동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세탁기의 출현'은 더 자주 빨래해서 더 하얗게 된 옷을 입는 것을 '정상'으로 여기게 만들었다. 스팀청소기는 더 자주 물걸레로 집안을 청소하는 것을 현대인의 표준화된 양식으로 만들어냈다. 세탁기와 청소기를 남성이 사용한다면 문제가 해

결되는가? 요리하는 기계나 로봇까지 남성이 작동하게 된다면? 새로운 기계와 기술의 출현은 그 기술을 운영하기 위한 추가노동을 계속해서 발명해내고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가사노동을 해야 하며, 남성과 여성이 나누더라도 전체 일의 양은 줄지 않는다. 근대화된 '청결'과 '위생' 관념은 먼지, 벌레들과 공존하지 않는 것이 현대적이며 '좋은 삶'이라 규정한다. 이 기계들을 생산-유통-사용-유지-폐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원과 에너지가 필요하고, 더 많은 자연을 파괴하며,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 더불어 우리는 더 많이 일을 해야 하고 또다시 삶을 누릴 시간은 점점 부족해진다. 결국 손노동을 대체하는 기계노동을 누가 하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근대화된 '청결'관념을 통해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위생'에 대한 욕구를 상품으로 주조하는 자본주의, 자본이 일상에 개입하고 표준을 독점하는 이 시스템이 우리를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일회용 기저귀와 생리대는 여성을 자유롭게 했는가? 많은 여성들(과 여성단체들)은 마음편히 천기저귀와 면생리대 운동을 지지하기 어렵다. 여성의 가사, 육아노동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회용 생리대는 온갖 화학물질과 고분자흡수제를 넣어 피부 짓무름뿐 아니라 극심한 생리통과 자궁내막증 등의 원인으로 의심받는다. 일회용 기저귀 또한 신생아에게 피부알레르기, 아토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게다가 일회용 생리대와 기저귀를 생산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숲이 파괴된다. 우리는 일회용 생리대와 기저귀를 통해서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어떠한 행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월경을 하지 않는 남성을 기준으로 설계된 생산영역에 동등하게 참가하기 위해 자신과 아이의 건강, 지구생태계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 잡히는 것이 여성주의가 원하는 자유 혹은 해방일까? 우리는 이제 방향을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게 아닐까?

4. 돌봄은 필수, but 돌봄노동은 계류?: 성별분업과 자유에 대한 단상 2

돌봄노동과 돌봄감수성은 사실 다루기 곤란한 문제이다. 인간의 생존에 돌봄은 필수 불가결하지만 여성에게 적합하고 여성만의 일로 강요되었으며, 그로 인해 임금노동 시장에서도 여성의 일은 가치평가되고 저임금화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어왔다. 그 중 돌봄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첫째,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둘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받을 서비스의 질과 돌봄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근무조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특히 돌봄노동의 사회화 방식을 둘러싼 쟁점은 유료화할 것인가, 유료화한다면 현금과 현물 중 무엇으로 하며,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가?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면 가족, 친지 등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등등의 쟁점이 있다.

몇 가지 논란과 쟁점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들은 대부분 돌봄을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소를 가정이나 공공시설로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어린아이와 노인, 장애인들을 공공시설로 보내고 모두 일터로 나가는 것이 자유로 나아가는 삶일까? 그 시설이 모두 질 좋은 무상서비스로 제공된다면 괜찮은 걸까? 질 좋은 무상서비스라면 오랜 시간 함께 하며 나의 개성과 역사성을 공유하고 있는 가족과 친구, 공동체를 떠나 홀로 요양시설에 가는 것이 행복할까? 지역, 계층, 성, 나

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국민 모두가 제공받아야 하는 공공시설을 무료이면서 질 좋게 유지하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야하며,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야 하며, 그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족과 친구와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노동해야 하는가? 그것은 국가 차원으로 볼 때 제3세계라는 식민지 없이 자연으로부터의 착취 없이 가능한 일일까?

사실 돌봄은 익명적인 관계에서는 질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어렵다. 모든 대량생산-대량소비 방식이 사용할 사람의 독특성을 말살시키고 획일화한다는 점에서 폭력적이지만, 특히 돌봄노동은 더 그렇다. 돌봄은 의식주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애정과 신뢰와 안정감이라는 욕구를 주고받아야 흡족한 감정노동이기 때문이다. 여성을 '가족'에 가두지 않아야 한다는 여성학의 대명제와 익명적 관계를 통해서 는 완성되지 않는 돌봄의 욕구는 어떻게 서로를 상처주지 않고 충족될 수 있을까?

5. '생산' 중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 여성운동을 위하여

추석 즈음 내성천 하류에 갔다. 그 곱던 모래들은 벌써 아이들이 놀기엔 발바닥이 저릴만큼 굵은 모래로 변해있었다. 지울스님의 '모래가 흐르는 강'에 출현했던 할머니들이 평생을 살아온 마을과 허리반이 꺾이도록 공들여 가꾼 밭고랑과 솔향기가 나서 좋았던 마을 어귀, 그들의 문화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수 만년 동안 흘러내려와 수많은 생명을 품고 있는 내성천이 4대 강 사업으로 사라져가고 있었다. 4대강과 주변 마을과 생태계가 파괴되고,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이며 그 중 청소년과 노인 자살률이 유난히 심각한 나라. 정부도 규제하지 않고 기업도 책임지지 않는 가습기 살균제와 불산가스, 반도체 공장 화학물질로 시민과 노동자가 수십 수백 명이 죽어가는 사회. 찬란한 봄에 떠났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300여명의 생명들. 앞으로 석 달 후면 전면 수입 개방되는 쌀. 결혼하지 않을 권리와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을 권리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육아부담이 크고 미래가 불안해서 OECD 국가 출산률이 꼴찌인 나라는 문제적이다.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까? 이런 상황에서 페미니즘은 어떤 전망을 내와야 하나. 이러한 문제들은 '젠더' 문제가 아니므로 여성운동의 과제는 아닐까? 여성학, 여성운동의 목표는 무엇이었나? '돈보다 생명'이라는 화두가 어떤 이론이나 운동보다 우리 사회를, 전국민의 마음을 뒤흔들던 봄을 보내고도 아무 것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2014년 10월을 목도하며, 묻는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대로 괜찮은 걸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에코페미니스트의 자급적 관점에 대하여

산업사회 이후, 생태사회운동을 제외하면 모든 진보적 운동이 '생산'을 중심으로 자신의 아젠다를 개발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과 남성, 노동자와 자본가, 지방과 서울,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모두가 산업화가 가져온 성장의 열매나 하이테크놀로지의 수혜를 얼마나 '평등하게' 혹은 '공평하게' 나누는가를 기준으로 인권(자유와 평등)을 제기하고, 정책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파이의 원천이나 너무 커져 버린 파이의 크기를 문제 삼지 않고, 단지 분배방식을 제기하는 운동은 실제로 평등을 가져오고 있는

가? 그렇게 가져온 평등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를, 여성을, 농촌을, 제3세계를 착취하지 않고 가능한가? 우리가 바라는 평등과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무엇과의 평등과 혹은 자유인가? 우리의 삶을 지속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제3세계가 제1세계를 닮기 위해 '따라잡기식 개발/악개발'을 하는 것처럼, 여성-노동자-농촌도 남성-자본가-도시를 닮기 위해 '따라잡기식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할 때이다. 우리 불행의 대부분이 '따라잡기식 개발'에서 오는 것은 아닌지.

독일의 에코페미니스트 마리아 미즈는 <에코페미니즘>에서 '자유'란 '필요의 영역'을 정복하거나 초월함으로써가 아니라 필요의 제약, 즉 자연의 제약 '안'에서 자유, 행복, '윤택한 생활'에 대한 비전을 발전시켜나가는 데 초점을 맞출 때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필요의 영역 '내'에서의 자유는 모든 이에게 보편화될 수 있지만 '필요로부터'의 자유는 소수에게만 돌아가기 때문이다. 미즈의 자급적 관점subsistence perspective은 상품이 아니라 삶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욕구를 상품에 기대지 않고 직접 해결한다. 경제활동의 목표는 익명의 시장에 산더미 같은 상품과 화폐(임금 혹은 이윤)를 점점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창조, 혹은 재창조가 된다. 자급자족, 지역성, 국가관료주의로부터 탈중앙집중화가 원칙이다. 물, 공기, 쓰레기, 토양, 자원 등의 공유재산을 사유화하고 상업화하는 것을 반대한다. 또한 자연과의 관계 혹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변화하기를 요구한다. 먹거리는 마트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텃밭을 통해 가꾸고 얻어내며, 자존감 상실과 애정부족을 쇼핑중독이나 권력중독으로 풀지 않고 관계와 신뢰의 회복을 통해 실현한다. 지역공동체에서 만들어낸 재료로 먹거리를 만들며 지역공동체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폐기물은 생산하지 않는다. 전 지구적인 책임감을 느끼지만, 전지구적인 생산-유통-폐기 시스템에 탑승하지 않는다. 전지구화된 신자유주의-자본주의 착취 시스템에서 내려와 공동체에 기반한 살림살이 경제를 제안하며, 부족한 것은 지구생태계를 병들게 하지 않는 규모 내에서 교환하고 선물한다. 보다 많은 생활용품을 핸드메이드하고,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의 아이와 어른들이 모여 서로의 재능과 기술을 화폐를 매개로 하지 않고 교환하고 선물한다. 노년의 복지를 사보험과 저축으로 보장받지 않고, 관계와 공동체를 복원하고 그를 신뢰하는 것을 통해 보장받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관점과 제안은 많은 비판에 부딪힌다. 자급적 관점은 여전히 여성들에게 돌봄과 살림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성친화적이지 않다거나 여성들은 영원히 지구청소부가 될 것이라는 비판들이다. 혹은 삶을 자급적으로 생산한다는 것이 이미 복잡하게 현대화된 사회에서는 실현가능하지 않고 오히려 안전하고 환경부담이 적은 친환경물품을 생산하여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도 한다. 물론 친환경 상품은 변화로 가는 길목의 중간전략으로서는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환경친화적인/착한 상품을 만들어내도록 정부정책과 시장에 관여하는 것, 혹은 남성과 평등하기 위해 먼저 현재의 사회제도와 권력에 동등하게 참여한 뒤 새로운 사회를 제안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대안을 만들기 어렵다. 게다가 차별과 배제를 그 고유의 속성으로 내재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체제 하에서 평등에 대한 이상적 기대가 과연 실현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임금노동중심사회에서 돌봄중심사회로

우리 사회는 임금노동중심사회이다. 임금노동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화폐로 삶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모든 요소를 구입해야 살아갈 수 있으며, 임금노동만이 노동으로 인정받는다. 전업주부와, 직장을 가지지 않은 청년들, 노인들, 자원활동가, 고용되지 않은 예술가와 심지어 농민들은 모두 사회와 사회구성원을 위해 가사, 육아, 환자와 노인돌봄, 가정 대소사와 관계유지, 이웃 교류와 공동체 노동, 시민단체 자원활동, 지역사회 가꾸기와 환경보호를 포함한 시민노동, 삶의 충족감을 높이고 기본적인 먹거리를 제공하는 '일/활동'들을 한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일/활동은 '노동'이 아니다. 자본주의 상품생산 시스템 하에서 이들은 '미성숙하거나' '불완전하고' '퇴물이 된' '쓸모없는' '전근대적인' 존재로 취급받는다. 노동 중독증과 노동중심성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임금에 의존하는 경향을 버리고 마음을 탈식민화하는 일이 중요한 '자급운동'. 우리는 임금노동을 탈식민화해야 한다.

일의 개념이 임금노동으로 축소되듯이 경제의 개념은 이렇게 상품생산으로 축소되었다. 패스트푸드와 서비스가 서비스 상품이 여가를 대체해도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주부'라는 역할이 필요하다. 인간은 '자연적으로' 즉 자동적으로 자신을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과 음식, 보살핌, 사랑과 애정을 통해 자신을 재생산한다. 인간에게는 생존노동-생계적 노동이 삶을 유지하는 노동이며 이를 중심에 두고 일/활동을 다르게 이해하는 개념이 필요하다. 임금 노동 체계의 해체모니를 해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금노동 자체의 종말이 아니라 임금노동의 지배에 종말이 필요하다. 우리 인생이 더 높은 비율로 자급과 임금노동을 병행하고 결합해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여성만이 담당해서는 사회를 바꿔낼 수 없다. 젊은 남성들이 보수를 받지 않는 살림과 자급노동에 참여해야 한다. 젊은 남성들이 아이와 노인을 돌보고 마을공동체를 돌보고 상품이 아니라 삶을 생산하는 영역으로 들어와야 할 것이다. 도시를 경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도 함께 시작해야 한다. 도시를 다시 경작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도시가 더 이상 기생적으로 존재하는 방식을 중지하고, 수동적인 소비만 일어나는 장소가 아니라 삶의 필수품들을 생산해내는 공간으로 변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가 다시 돌봄과 환대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는 것이다.

6. 자급의 정치: 맞돌봄&맞살림을 위한 몇 가지 제안

우리는 평등해야 행복하다. 하지만, 평등해지기 위한 기준은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 기준중 하나가 마리아 미즈가 말한 것처럼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생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급적 관점'이 되리라 기대한다. 우리의 목표는 평등이 아니라 행복이며, 진정 행복해지기 위해서 평등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맞벌이가 아니라 맞살림과 맞돌봄이 필요하다.

자급적 관점을 삶에서 실현하는 주체를 드러내는 단어로써 '맞살림'과 '맞돌봄'을 제안한다. '맞'은 '마주 대하여 하는' 또는 '서로 엇비슷한'을 뜻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맞'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다. '맞'은 여성과 남성을 뜻하면서 동시에 자연과 인간을 뜻한다. 그리고 '살림'은 일반적으로 '집안일'이라 불리는 일을 의미함과 동시에 '살리다'의 명사형으로서 무엇을 살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결국 기존의 인

간중심주의와 성별분업의 경계와 독선을 모두 넘어 가 새로 짜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오랫동안 여성해방적 역할분담의 상징으로 추구했던 '맞벌이'는 상품생산과 상품생산에 대한 기여를 중시하는 임금노동시장 진입을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권한 대 표적인 용어다. 반면, '맞돌봄'과 '맞살림'은 여성과 남성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돌봄과 살림의 책임과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 가구 단위 내 여성과 남성이 나누는 역할분담에서 나아가 사회 전체가 성별역할 구분 없이 돌봄과 살림의 가치를 지향하고 사회전체의 운영원리로서 이를 채택하고, 정책화함을 뜻하며, 그것이 자급의 정치이다. 돌봄과 살림의 대상에는 인간뿐 아니라 인간이 속해있는 못생명과 자연생태계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맞벌이가 아닌 맞살림의 관점으로 지구사회를 다시 기획하고 짜낼 때, 자연과 인간, 여성과 남성이 모두 서로를 살리는 맞살림이 실현될 것이다. 맞살림과 맞돌봄은 임금노동중심 사회에서 돌봄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인간중심성에서 생명 중심성으로의 전환을 제안하며, 모두를 살리고 행복하게 할 것이다.

페미니즘은 여성과 남성을 사회적으로 평등하게 만들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여성과 남성을 불평등하게 만들었던 위계적 이분법이라는 기원에 뿌리를 둔 다양한 층위와 영역의 억압기제를 해방시켜 내기를 추구하는 운동이다. 위계적 이분법에는 공/사 - 생산/재생산 - 고용/자발적 노동 - 중앙/지역, 풀뿌리 - 성장/머무름, 멈춤 - 근면함/계름 - 과학기술/핸드메이드 - 개인의 자유/관계성 - 화폐성/무료 - 근대/전근대 - 여성/남성 - 인간/자연 등이 포함된다. '여성은 모두 주부여야 하는가?'와 '우리는 모두 (임금)노동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식 사이에서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불안하겠지만, 위계적 이분법을 그대로 둔 채, '너머'를 꿈꿀 수는 없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그래서 국가, 경제라는 거대담론으로 통하는 친밀하고도 사적인 관계에서의 성별권력관계를 보는 페미니즘은 매력적이고 저항적인 운동이다. 하지만 삶은 총체적이고 개인을 구성하는 정체성 중 성별은 한 부분이다. 임금노동 중심의 자본주의-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동시에 성별이라는 차이를 차별로 강요하는 시스템에 같이 균열을 내야 우리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적게 벌고, 적게 일하고, 적게 쓰고, 행복하게 서로 돌보고 살리는 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유하고 시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상상할 수 있는 현실운동으로 다음의 것들을 함께 검토해보기를 제안한다.

1.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동권과 돌봄권을 함께 보장한다.
2. 돌봄분야 해당정책뿐 아니라 모든 국가정책과 사업에서 돌봄·살림 중심적 기획과 집행이 필요하다.
3. 마을 단위의 공동체 복원, 세대간 어울림 장치 등을 통해 서로 돌보는 사회환경을 조성한다.
4. 단계적으로 임노동시간을 단축하여 모든 노동자가 일, 가정, 공동체, 휴식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게 한다.
5. 고용된 임금노동을 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생활임금제나 기본소득 지원책을 마련한다.

6. 도시텃밭은 대도시의 기생성을 탈피하게 하고, 여러 세대가 어울리는 돌봄과 놀이, 교류의 공간으로 가능하다. 동네마다 공유지 텃밭을 거점으로 텃밭교육, 유아 독서지원 등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내 돌봄에 참여하여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 연계형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7. 농사와 농사짓는 사람들의 삶이 지속가능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수립한다.
8. 어린이, 노인, 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방식의 좋은 돌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한다. 돌봄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돌봄집중기간 동안 사회문화적 소외를 극복하고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가 가능하도록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을 활용한 동 단위의 실질적 육아사랑방 혹은 마을돌봄센터를 운영한다.
9. 우리 모두는 공동체라는 그물망에서 안전과 지속가능성, 공감과 자유를 확보할 수 있다. '얼굴이 보이는' 공동체 복원과 작은 규모의 공동체에서 자급수준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별, 연령, 계층과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동네형 일자리를 만든다.

참고문헌

강수돌, 2011, 『경제와 사회의 녹색혁명』, 문화과학사.

마리아 미즈·반다나 시바, 손덕수·이난아 옮김, 2000, 『에코페미니즘』, 창작과 비평사.

마리아 미즈·베로니카 벤홀트-툼젠, 꿈지모 옮김, 2013,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힐러리에게 암소를』, 동연.

종합토론

주제발표에 대한 질문과 의견을 도출하기 위하여 분과별 모듬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의 결과로 확보된 질문과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고, 사회자와 발표자들이 논의하여 질의내용과 응답자를 연결한다.

분과별 서면질의

1분과

1. 돌봄의 사회화가 반드시 탈가축화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2. '저항주체를 만드는 교육'을 현재 시스템에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단체별로 쪼개져있는 교육 / 기능 위주의 교육)
3. 여성주의 교육과 연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지역에서는 진행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4. 전희경 선생님께
이안소영 선생님의 발표 내용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2분과

1. 젊은 세대의 활동을 선배들이 지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2. 전희경 선생님께. 여성운동의 다양성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다양성이 어떻게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든지 분명치 않은 사이가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
영 페미니스트들이 다양하게 나름 활동(운동)하는 사람들 많은데(다르게 나름대로 운동하고 있는데), 집단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한다. 집단으로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인가?
신자유주의 시대에 여성주의 시각을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면 될까요? (뭔가 대안을 갖고 계신 것 같아 질문합니다.)

3분과

1. 청년들이 원하는 소통방식은 무엇일까? 청년들이 생각하는 여성단체란 무엇인가?
2. 여성주의가 무엇인지 더 예리하게 만드는 것이 자칫 고립되게 만들지 않을까?

3. 영 페미니스트 선배들의 현재 삶의 모습이 궁금하다.
4. 이안소영님께, 지역 기반 페미니즘과 비혼여성과의 접점은?
5. 여성주의는 왜 투쟁을 해야 하나? 투쟁을 하는 사람 본인의 삶은 어떤가? '생각과 생활의 괴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자.
6. 남성들의 역차별 주장, 교육계의 여성교사 편중 현상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는 없을까?
7. 여성주의 교육의 효과성이 지역 현장에서 약하다. 교육을 통한 확산의 방법론에 대해 고민.
8. 지역 여성운동 현장은 보수, 진보로 양분되어 있고, 제도화되어 있어서 '여성운동'을 못한다. 새로운 여성들이 모이지 못한다. 기성조직에 속하지 않는 여성들이 지역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으려면?
9. 여성운동의 투쟁적 방법론이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긍정적이고 편안한 운동은 없나?
10. 자꾸 기준을 주기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다. 사회적 기준이 아닌 개인의 행복을 위한 기준을 여성주의가 제시해주었으면 한다.
11. 차이를 인정하면서 대화하는 것의 어려움. 운동가/단체 스스로 왜 옥석을 가릴까?
12. 학생운동의 침체 속에서 총여의 고민을 위치시켜 이해하려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 총여를 여성활동의 재생산 도구화 하고 있지는 않는가?
13. 20대에게, 여성운동 선배와 역사성에 대한 존중은 있는지? 운동의 역사에 관한 기록을 왜 안 찾아보는지. 세대 안에서의 연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4분과

1. 류지연 선생님께, 지역에서 20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하여 그들이 오면 "내가 막상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의 발제에서 그녀의 울컥함을 공감했는데, 질문하고 싶은 것은 "뭐가 가장 힘들었을까?"라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개입' '간섭'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서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졸업한 선배들과의 만남의 장이 왜 없었을까? 같은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치열하게 활동했던 그 선배들은 정말로 후배들과 만나려 노력한 적이 없었을까?
2. 여성주의라는 것이 여성의 관점을 넘어 그 특수한 것이라는 것을 박인혜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 알았다. 제도에 들어갔을 때 저항의 주체로 발전하기보다 개인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 새로운 여성 저항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제시한 '교육' 방안을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고, 그러한 교육을 씬터, 상담소와 같은 사회복지시설에서 활동하는 이들에게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3. 제도화와 관련하여, 박인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제도화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성운동이 제도화에 들어가려는 것에 대한 저항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저항감으로 인해 블랙홀과 마찬가지로 다.

4. 이안소영 선생님이 대안으로 제시한 8번의 문제는 본인 또한 고민하고 있었던 점이다.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마을돌봄센터로 만들고 마을의 구심점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 듣고 싶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그 이유는 사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런 방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경로와 대안을 구체적으로 갈 수 있는 시사점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5. 새로운 활동가가 고민하는 점이 여성활동가와 노동자의 차이에 대한 문제이다. 운동을 하는 것은 주말을 반납하기도 하며 복무하는 반면에, 노동자로서는 이는 근로초과이며, 여성단체 또한 권위적이기도 하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은 돌봄 노동도 아닌 '뒤치닥거리'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갈등이 생긴다. 전희경 선생님의 발표 내용에서 여성활동과 노동(근로) 사이의 갈등에서 여성주의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여성주의라는 것을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을까? 이에 더해 여성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에게 여성단체의 활동은 근무로만 인식되기 쉽다. 특히 그 이유는 최근에는 여성주의 교육이 거의 제공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판단되기에, 상근활동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더욱 더 제공하려고 한다. 여성주의 활동가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속할 수 있을까? 발제문 4쪽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어떻게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을까?

이는 자기결정, 주체성의 정도의 문제일 수 있다 / 이는 교육의 결과 - 다시 말하자면, 논의와 대화, 공감 등의 과정을 통해서 여성주의 활동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인가의 문제일 수 있다. / 예를 들어, 회원으로 운영되는 단체의 재정사업 일 경우, 이는 엄청나게 큰 압박으로만 작용할 수 있다.

전희경 선생님, "여성 단체 활동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방식이나 교육 내용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6. 박인혜 선생님께서 "권리 담론이 유효한가"라는 말씀에서 권리 담론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고 결론으로 제시한 반면, 전희경 선생님은 권리 담론이 역차별의 관점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담론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7. 이안소영 선생님께서 대안적 삶을 말씀하시면서 국가의 삶을 벗어나서 사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는데.. 임금 문제를 벗어나면 젠더 문제가 사라질 수 있다고, 도시 속에서 맞벌이가 기본적인 삶으로 구성되는 것에 대항하여 맞돌봄이라고 제시하는 것 같은데, 맞돌봄이 젠더 관계의 변화, 탈제도/탈국가의 관계 방식을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반자본주의적인 삶이 마치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처럼 들려서, 자본을 넘어서 상상의 공동체가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이전의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현가능성의 관점에서 맞돌봄의 상상이 성폭력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5분과

1. 후배는 선배가 없다고 하고, 단체에서는 '활동가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고민 사이에는 어떤 거리, 어떤 문제가 있을까?
2. 맞돌봄, 맞살림이 전 세대의 여성들에게 공감받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20대 여성 페미니스트들에게 조금은 맞돌봄, 맞살림은 공감되지 않는 기존 세대의 고민의 결과처럼 느껴지는 것 같다.

6분과

1. 여성주의자 세대 간의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7분과

1. 박인혜 선생님께, 의식화와 교육으로 제도화의 문제를 정말 풀 수 있는가? 활동가들이 정말 이를 원하는가? 다양한 여성들의 지향과 비전을 묶어낼 수 있는가?
2. 농업, 지역 여성운동은 어떠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가?
3. 맞살림을 어떻게 정치화할 것인가?
4. 여성운동의 전환이 국가라는 단위를 넘어서는 상상력이 필요하진 않는가?
5.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건 어떻게 가능한가?
6. 우리의 아젠다를 어떻게 잘 유통할 수 있는가?

사회자(유성희) 질문이 굉장히 많고,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보다는 장기적인 과제로 함께 고민해야 할 내용이 많네요. 질문이 뭐가 나왔다는 것만 정리해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장문과 단문의 질문, 그리고 토론 제기가 다양하게 섞여 있는데, 발표자들께서 전체 질문 내용을 살펴보고 자신이 대답해야 할 내용을 고르세요. 1인당 10분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줄에 앉아 계신 명진숙 국장님, 10분 타이머 맞추어 소리나게 때릉때릉 부탁드립니다. 류지연 선생님께 발표를 첫 번째 순서로 했으니 답변은 순서를 거꾸로 하라 물었는데 그냥 제일 먼저 하시겠대요. 젊으니까 빨리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질의에 대한 발표자들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류지연 제가 받은 질문은, 선배님들의 간섭을 바라다고 했는데 그 간섭이 어떤 간섭이냐는 것입니다. 저도 고민입니다. '어떤 간섭을 바라는 건가?' 이 질문은 마지막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보다 "졸업한 선배들이랑 왜 만나는 장이 없는가, 열심히 했던 선배들이 어디로 사라지고 후배들과 연락을 취하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언젠가 학생운동하셨던 분이 총여학생회 했던 분을 안다는 이야기에 번호 좀 받을 수 있느냐고 했더니 그 분이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총여학생회 운동하고 졸업한 후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데 제가 가서 얘기 한마디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열심히 운동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논의할 사람이 없었다는 건데요. 학생처나 총학생회에 대응하기 위해 어느 정도 스탠스(stance)를 취해야 되는 건지,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도와주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고, 전반적으로 권력관계에서 정치력을

어떻게 발산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집행부 내부에서, 아니 학생회 자체가 총여학생회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여성주의 활동을 하는 동아리도 아니고, 사실 학생회라고 정식으로 이야기하기에도 조금은 애매하고 그 위치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거의 일 년이 걸렸었던 것 같아요. 토론과정. 그때 힌트라도 줄 수 있는 선배들이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 아쉽고요.

어떻게 선배들이 간섭을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여성민우회 물길캠 프를 통해서 선배님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생겼어요. 전희경 선생님이라, 호빵 선생님이라... 만나고 나서 뭐가 펍 치는 거예요. 그때 해주셨던 말씀이, 과거의 여성운동, 그 학생회가 학교에서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우리 상상도 못할 정도로 진짜 심각한, 신선한 충격을 주셨거든요.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 사실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장(場)만 있어도 우리의 고민들이 많이 해소되고, '우리가 지지받고 있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라는 자신감을 얻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대학운동 자체를 고민하고 계신 선배들이 있다면 저처럼 대학운동을 고민하고 있는 이들과 연대체를 만들어서 각 대학에 페미니스트를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현장에 와서 보고 그 주체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주에 한번이나 한 달에 한 번 가는 방식으로... 부담스럽죠? 제가 막 상상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와서 좀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청년들이 원하는 소통방식에 관한 거예요. 소통방식이 어떤건지 좀 궁금하긴 해요. 소통방식은 평화로워야 되죠. 제가 지금 <평화

를여는여성회)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어서 평화로운 소통방식으로... (웃음)

그리고 3분과에서 주신 질문이 있는데 어떤 맥락으로 주신건지 사실 감이 잘 안와요.

3분과 기존의 여성단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그쪽에선 이미 갖고 있는 소통방식이 있는데 어떤 점이 좀 더 보완되거나 잘 맞겠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류지연 포래들끼리 모이면, “나는 여성단체는 아직 생각이 없어.” 이런 얘기를 터놓고 해요. 단체는 단체의 운동 기초가 있는데 내 운동화 시키기 어려운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간극들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고민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단체에 직접 들어가서 나에게 맞냐 안 맞냐 경험해보는데, 이번 여성회의에 함께 온 목련이라는 친구는 자기 활동 코드랑 단체 기초가 잘 맞아서 거기 취직하게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많이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장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인혜 저에게는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물었지만 여성주의 교육이 무엇이나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제일 첫 번째는 의식화와 교육으로 정말 제도화의 문제를 풀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그걸 정말 활동가들이 원하냐 하는 질문이네요. 저는 활동가들이 풀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설문조사 해 보면 많은 활동가들이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자기 발전의 욕구를 갖고 있는데 다만 생각하는 교육이 각각 다르다는 점은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의 내용을 얘기해보는 것부터, 그 자체가 이미 교육의 시작이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의식화 교육은 제도화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 문제에 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 내는 일, 즉 차세대를 만들어내는 재생산 문제로서 생각했던 것이구요.

그 다음 질문은 저항주체를 만들어내는 교육시스템을 현재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역에서는 여성주의 교육과 연구가 어렵고 교육의 효과성도 약한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방안이 뭐냐? 제도화라는게 뭐냐? 권리담론이 저는 유효하다고 했고 전희경선생님은 유효하지 않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등. 전희경 선생님과 같은 분과여서 얘기를 해 보니까 결국 표현방식의 차이이지 얘기하려는 바는 같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점은 전희경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지 여성주의교육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차피 여성주의 교육이라고 할 때 그것을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여성주의에 관한 교육과 여성주의적인 교육. 하나는 방법론이고 하나는 목적에 관한 것인데, 그 부분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말 그거냐 하는 것을 논의해 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만들 거냐고 할 때, 저는 지금 여러 분야에서, 또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실천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위기를 넘어 서보자 하는 상황을 또 다른 대안세계를 꿈꾸는, 그것이 여성주의 이름으로 하든 아니든 간에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되고 있는 것들, 여성운동이나 아니냐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실천의 현상들을 만나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성의 경험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실천의 경험, 직접적인 현장을 찾아보고 그 속에서 지향하는 흐름 전체를 읽어내는 거죠. 읽

어내는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하는 거죠. 저는 그러한 집단학습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자리도 좋고 아니면 개별로 찾아가도 좋고 그런 경험들을 나누고 경험 속에서 나오는 지향의 새로운 흐름들을 찾아내서 명명하고 정리하는 노력이 결국 새로운 프레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집단학습의 과정이 되고 집단교육의 과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지만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논문 쓰고 나서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아보고 있고 이것저것 해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후에 무엇을 하자고 제안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혼자서 이거다 라고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여성운동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희경 저의 이름을 딱 집어서 질문하신 것이 많아서, 제가 10분 안에 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노력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답을 못 드리는 확실한 질문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누가 주셨어요. 신자유주의 시대에 여성주의 시각을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면 될까요? 뭔가 대안을 갖고 계신 듯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렇게... 이걸 제가 답할 수가 없네요. 그걸 알면 제가 다른 발제를 했겠죠. (웃음) 이 질문에 답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 토론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답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이 없기도 하고...

그 다음 몇 가지 간단한 질문에 대해 답할게요. 3분과에서 주신 ‘현재 페미니스트 선배들의 삶이 궁급합니다.’ 모든 영 페미니스트들의 동창회가 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요.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가방끈이 많이 길어졌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저를 포함해서 저의 세대의 연구자들은 대학에서 정규직을, 즉 교수가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기 어려운 세대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지식인으로서 자기 삶을 재생산해야 되는 위치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업으로 가서 운동단체에 있을 때는 접할 수 없는 종류의 자료들을 뺄아오겠다 다짐하면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단체에서 활동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플랜트 같은 것을 하기도 하고, 귀농귀촌을 해서 지역운동 같은 것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20년 동안의 여성단체 운동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지만, 20년 이후의 삶을 제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기획하기 어려운 삶의 조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걸 질문하신 거라면 그 정도의 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아까 류지연 쌤이 이야기한 물갈퀴 초안하는 자리에 저랑 다른 친구 두 명이 같이 갔었는데 거기 모임이 끝나고 나서 저희끼리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영 페미니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간접적으로는 여성학 교육이라고 하는 여성학 교양부터 여성학과 이런 식의 제도 아카데미 안에서의 여성학 교육의 직접적인 수혜자이기도 하고 활동을 해 나갈 때 아주 실무적 훈련도 바로 윗세대 페미니스트들한테 받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할 차례가 아니냐. 그런 걸 찾아봐야 되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운동의 다양성에 대해서 2분과에서 주신 질문은, ‘다양성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은 사이가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 하는 거네요. 이 문장만 가지고는 제가 정확히 파악했는지 모르

지만, 제가 아까 발제를 할 때 문제제기 했던 것은 우리가 여성운동의 역사 이런 거를 서술하는 글들을 가끔 보게 되잖아요. 물론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식으로 쓰지만, 그런데 대체로 여성운동의 경향성이나 지난 20년 총화 이런 걸 할 때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여성, 이전에 삼민운동이나 이런 과정과 법제화 운동, 연연을 중심으로 한 운동해서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됐는가, 여성주체들이 세력화하고 목소리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다변화되었다 보통 이렇게 많이 기술을 해요. 그런데 그게 여성주의, 여성운동의 다변화라고 정말 평가할 수 있으려면 아무리 영역이 다양하고 주제가 다양하고 각자 세우고 있는 비전이 다양해도 그래도 이것을 묶어주는 무언가가 있다고 스스로들이 믿고 있어야 하고 그 사이에 어떤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서로 영향을 미쳐야 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항상 부드럽지만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비전이 서로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어떤 종류의 아주 글로벌한 차원의 이야기가 어떤 다른 현장에 있는 여성운동가들한테는 당장 이 법안이 통과되느냐 마느냐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맘 편한 소리 하고 있다고 얘기할 줄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여기서 중요하게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 주제가 다른 단체에서 보기에는 저건 답이 아닌데 하고 볼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정도도까지 넓혀져 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온 그 다음에 저희가 평화롭게 서로 화나지 않고 만나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영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조용히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그런 예의 차리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거냐. 저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제 제안이었던 거고, 영향을 미치는 관계라는 것은

좀 비판하기도 하고 아니라고 본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좀 논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어야 10년 후에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갈등을 포함한 의사소통의 의지 같은 것이 결국 서로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 하구요. 너무 상처줄까 겁내지 않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3분과에서 주신 의견으로는 '여성주의가 무엇인지 더 이야기하는 것이 자칫 고립감을 주지 않을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개인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성주의의 코어core라고 할 수 있는 '여성주의'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 죽을 때까지 그 세상은 오지 않겠지만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코어를 만들어내는, 입장을 만들어내는 것과 그것을 어떤 방법론과 조직론을 가지고 나의 현장과 나의 지역, 나의 시공간에서 풀어낼 것인가 라는 전략과 방법론의 문제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둘 간의 사이는 무척 밀접하죠. 소설이 있다고 쳐도 논지가 없는데 문체가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렇지만 문체가 결국 논지이기도 한 것이어서 결국 전략과 코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완전히 분리되어서 각론으로 갈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전략을 더 센 언어를 써야 한다, 이렇게 희미한 언어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그 여성주의가 쓰고 있는 어떤 언어들, 대중을 향해서, 매체를 향해서 쓰고 있는, 캠페인 할 때 쓰는 그 언어들, 정말로 전략적으로 선택이 된 것이고 전략적 목표로 발현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성주의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 규정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에 대한 표현인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다

는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여성주의가 무엇인지 더 예리하게 만드는 것이 자칫 고립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여기에 대한 제 질문은 예리하게 안 만들면 고립되지 않을 거냐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고립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사례이기도 한데, 2000년도에 한국의 어떤 남자 지식인이 "나는 부드러운 페미니스트가 좋다"라는 책을 써서 발표를 해 가지고 각 대학교의 여성학 서가에 꽂혀 있더라고요. 그걸 볼 때마다 분노하는데... 부드러운 페미니즘이 좋다는 식의, 여성주의 운동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안 들었던 활동가가 있을까 싶은데, 저는 이제 감정적으로 하거나 세계 하면 네 편이 될 사람도 되지 않는다, 등을 돌리게 만든다는 식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내 편이 될 사람이었으면 내가 말을 어떻게 하든 내 편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립에 대한 불안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고립에 대한 불안을 항상 느끼면서 살지만 그건 버티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런 식의 얼굴을 확인하는 자리가 버티는 힘을 얻어가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꼭하고 싶었는데, 아까 박인혜 쌤이 얘기하셨던 교육, 저는 아주 분명하게 여성주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대중교육에서건 아니면 활동가 교육에서건 마찬가지로 생각하구요. 그런데 정말로 항상 잘만 기획되면 대박을 터뜨리는 게 강좌형식의 교육인데, 강사들을 잘 설계해서 묶어서 프로그램을 돌리면 많은 경우 대박이 나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정말로 활동가가 자기 자신을 주체로 만들어내는 것은 좋은 강의가 아니라 좋은 강의로 촉발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 세미나팀이 만들어지는 것이 정말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강좌를 기획하더라도 이후가 있어야지만 그게 완료되는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여러 단체에 강의를 다니면서 경험한 것이기도 한데, 어떤 단체는 작년에 요청했던 걸 가지고 올해도 똑같은 것을 요청해요. 그런데 어떤 단체는 프로그램이 진화하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런 걸 해 봤는데 그 다음에 세미나팀을 꾸려서 어떤 공부를 해 가지고 문제의식이 바뀌어서 이번엔 이런 걸 해 줘야 좋겠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진도가 나가려면 그 단체 안에서 공부가 이렇게 틀 같은 것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조직이 그것을 보장하고 촉진하고 격려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안소영 선생님의 발표내용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참가자 웃음) 발제자들끼리 따로 저거 하는 시간 있나요? 지금 빨리 대답해야 하나요? (웃음)

저는 이안소영 쌤의 발제를 들으면서 엄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는데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하나는 저의 위치와 지금 현재의 경험에서 나오는 질문 같은 거예요. 자급적인 작은 규모의 마을 공동체를 상상할 수 있고 그것은 멀리 있는 불가능한 미래 같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당장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지금 제가 지역 풀뿌리 협동조합운동을 하면서 보니까 동네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의 무서움 같은 것을 느껴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무섭고, 이거는 정말, 왜 모든 사람이 서로 다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인간이 인생을 새로 살수도 없잖아요. 방향할 자유가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풀뿌리 지역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육아에서 시작되어 거기에서부터 다져져온 멤버십인데 비혼여성의 위치를 가진 제가 들어가려고 했을 때 아주 이질적인 어떤 존재가 되거나, 암묵적으로는 다

른 기존에 멀쩡히 잘 가고 있는 결혼 관계를 파탄에 빠트릴 수 있게 하는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어떤 존재로.. 그러기도 하고, 최근에 연구했던 것 중에서, 아까 성미산마을 이야기 했는데 성미산 마을이 서울지역에서 주목받는 마을운동 사례이지만 성미산 마을과 같은 구에 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귀어운동단체에서는 성미산마을이 완전 자본주의의 온상이다, 저기랑 나랑 무슨 일을 같이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네, 마을 단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급하는 마을, 공동체, 어린이와 노인 이렇게 다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이, 어떤 전체, 이성애주의와 어떤 가족형태와 세대 간의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관계들을 전제된 상태에서 상상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상력의 한계가 아닌가. 그 이상에 대한 상상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논의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고.

또 한 가지는 약간 추상적인 이야기이지만 아까 발제에서 이렇게 표현하신 부분이 있어요. “삶은 총체적이고 개인을 구성하는데 있어 성별은 한 부분이다. 이런 문제는 젠더문제가 아니므로 여성운동의 관심은 아닌 걸까?” 저는 이 부분, 이 문장에서, 선생님이 ‘젠더’라는 이 개념 혹은 성별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인구학적으로 쓰고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이 좀 들었어요. 그게 저의 발제의 요지였거든요. 여성대통령 시대에, 여성의 눈으로, 여성의 힘으로, 여성의 입장에 기반해서 여성이 경험했다라고 할 때 그 여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여성을 여성의 경험이라고 불러대는 여성운동이었는데. 그렇게 질문했을 때 이안소영 쌤이 여기서 비판하고자 하는 기존 페미니즘, 혹은 기존 여성운동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누구의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인지, 혹은 젠더문제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여성이 경험하는, 생물학적으로 2번으로 시작하는 그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경험하는 문제를

여성이 경험한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저는 그러지 않아야 하는 것이 여성주의가 아니냐가 저의 페미니즘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좀 토론을 할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안소영 이 질문을 누가 했는지 알듯.. 왜 이런 질문을 하셨죠? (웃음) 일단은 저한테 들어온 질문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단답형 질문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도 해결하지 못하는 질문과 같이 고민하고 싶은 질문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돌봄의 사회화가 반드시 탈 가족화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돌봄의 사회화와 돌봄 노동의 사회화는 다르죠. 지금 정책은 탈가족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성단체가 돌봄의 사회화를 가족 밖으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4분과에서 제기한 내용 중에, 돌봄센터에서 그림 그리는 상상했었는데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방안과 경로와 대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냥 독일의 마더센터를 떠올렸어요. 여성들이 마을에서 모여서 일자리도 만들고 시간도 나누고 정보도 나누고 한 공간에서 하는 그런 걸 떠올렸고요. 한편에서는 뭔가 운동을 공간적으로 굴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텃밭이라든가 동네에서 잘 만드는 것을 떠올리기도 했고요. 이 말을 자꾸 하는 이유는 노인문제와 이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가 지속가능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을 계속 유료화하는 거 돈을 많이 들여서 시설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선물경제 같은 걸로 할 수는 없을까. 이게 어떤 식의 대안으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화폐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고민할 때 돌봄센터를 생

각하기도 하고 텃밭공유지 같은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 기타 등등을 생각하기도 해요. 만약에 마더센터에 대한 것이라면 제가 자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간단한 거라서 그 정도로 마무리하구요.

7분과에서 말씀하신 게 ‘맞살림을 어떻게 정치화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여성운동의 전환이 국가의 단위와 범위를 넘어서는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아젠다를 어떻게 잘 유통할 것인가.’ 이런 전체적으로 저한테 맞살림이라는 제 제안이 개인 단위에서 제안되어서 이걸 정치화가 가능한 것이냐고 질문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두 번 나온 질문은 ‘맞돌봄, 맞살림, 이런 이야기가 이십대와는 공감하지 못하거나 소통되지 못하는 문제인 것 같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할 건가하는 질문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질문이 참 어렵기도 하고 제가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했던 거였는데 ‘도시에서 맞벌이가 기본적으로 구성되는 것을 맞돌봄이라고 했는데 이 맞돌봄이라는 테제, 혹은 지향이 젠더관계의 변화라든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젠더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국가라든가 아니면 성희롱이라든가 성폭력의 문제들도 마치 반자본주의적인 삶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냐.’

맞살림을 어떻게 정치화 할 것인가 하는 과제는 사실 고민이에요. 제가 아직 답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맞살림이나 살림, 보살핌 같은 이야기가 이십대와 소통하지 못하는 지점은 제가 돌봄을 이야기할 때 남성과 여성의 개인적인 돌봄, 아이를 돌보는, 딱 그거, 제가 그렇게 발제를 했을 것 같아요. 제 잘못된 것 같은데, 이십대와 소통하지 못한다는 그 질문을 받으면서 생각해보니, 맞벌이라고 할 때도 한 가구 내에 개인 여성과 남성이 둘이 버느냐 하나가 버느냐의 문제라기

보다는 개인 단위에선 이런 게 나타나지만 그것이 사회나 국가 단위에서는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사회가 구성되는 거 그리고 성장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임금노동시장에 들어가서 노동을 해야지 자기의 기본적인 의식주부터 컨설팅이라든가 자기의 창조성이라든가 기본적인 욕구 모두를 상품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그것의, 그 상징어가 맞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맞벌이에, 예를 들어 우리가 자신을 노동력이라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에서 경쟁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청년 백수, 전업주부, 취업하지 않은 젊은이, 노인 분일수도 있고 아이일 수도 있고 예술가일 수도 있는데 임금노동을 통해서 화폐를 획득하지 않는다고 이것을 일하지 않는다 라고 인식시키는 현재의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어내야 할까. 그 문제를 얘기하면서 맞살림이라든가 맞돌봄이라는 단어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취업의 경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십대의 경험하고 통하지 않는 데는 돌봄이나 살림이 너무 오염되어서이기도 하고 제가 발제를 너무 개인의 경험에 기반해서 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의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전해지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점에서 이십대가 공감하는 것의 문제, 교육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사회 혹은 국가의 목표를 GNP로 두지 않는 어떤 것을 우리가 짜내야 하는 문제라서 그건 이십대든 노인이든 농민이든 꿰뚫어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해를 사는 방식으로 발제를 했다고 느끼는 것은, 자급적 관점이라는 것이 자기가 의식주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관점이라기보다는 생계적 관점 같은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사람이 건강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 자동차를 만들거나 도로를 만들거나 화학물질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사회가 합의하는 거, 이 합의를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가 제가 이야기하는 자급적 관점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마 좀 다른 방식으로 제가 발제할 때는 이야기가 되었었던 것 같고요. 돈 없이 살 수 있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아젠다를 유통시킬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기본 관점을 가지고 이룰테면 국가단위에서는 성장중심주의를 벗어난다거나 일차산업, 농업을 중심으로 사회나 경제 계획을 짤다던가, 아니면 저는 전희경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마을의 보수성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답할 건데 공동체 복원이라든가, 기본소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더 상상해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희경 선생님이 마을이 너무 가족 중심적이고 이성애 중심적이다 지적했는데, 이런 이야기 저도 많이 들어요. 제가 성미산에 사니까 제가 봐도 싱글이 그 안에서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요. 공간도 없고, 공동육아에 이혼한 사람이 못 버티요. 공동육아가 마치 대안처럼 얘기되고 저도 공동육아에서 아이를 키웠는데, 여기 대청소 같은 거 전부 다 가족단위로 하는 거예요. 공동육아 집이 1-2층이고 마당이 있고, 거기를 부모들이 돌아가면서 남 안 쓰고 청소하거든요. 그걸 다 가족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이혼한 뒤로 공동육아 그만두었어요. 버틸 수가 없어서. 그런 사례가 두 사례 있거든요. 모두 이혼을 기점으로 공동육아에서 못 버티고 나가더라고요. 너무 가족 단위로 움직이고 청소도 가족 단위로 사키고 그런 문제도 보고 있고.

또 하나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상품생산이 중심이 되지 않는 사회시스템, 그런 패러다임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인데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폭력이라는 게 자본주의 이전에도 있었잖아요. 혹은 공동육아라는 방식이 이혼

을 대하는 태도, 그런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공동육아 한편에서는 가족중심주의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익명성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 사회의 보수적인 부정적인 점이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그때는 외면했지만 후에 갑자기 전환이 이뤄지는 지점을 저는 보게 되거든요. 정보가 없고 모를 때는 어쩔 수 없는데 너무 친한 사람이어서 잘 아니까 어떤 지점에서 전환이 되는 그런 지점을 보기도 해요. 양면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동성애 혐오라든가 가부장성이라든가 그런 거를 신비화된 노동을 벗어나는 그것이 해결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한편에서 자본주의가 몸을 상품화하는 방식을 강화하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고는 생각해요. 또 한편에서 성폭력이라는 게, 약자에 대한 폭력이잖아요. 여성과 남성의 권력관계를 바꾸어낼 때 성폭력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다른 방식으로 약화되는 그런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의 남성과 여성의 권력관계는 분명 상품생산과 산업자본주의에 기반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를 완전히 a가 b의 모순을 해결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무것도 그렇진 않죠. 약화되는 지점을 가지고 그 것으로부터 다르게 해결되지 못하는 걸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전희경 선생님이 말씀하신 젠더는요, 저 젠더 사실 약간 헷갈려요. (웃음) 젠더의 개념을 모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여성주의가 뭘까 고민하는 것처럼 젠더가 뭘까 생각을 해 보면...

전희경 토론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 제가 뭘 안다는 것은 아닌 것인데... (참가자 웃음)

사회자 밤새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에게 굉장한 자극이 될 것 같아요. 아쉽게도 시간 제한이 있어서, 박인혜 선생님이 한 부분만 코멘트를 해 주시고 1부 토론은 마감하겠습니다.

박인혜 좀 빠진 게 있어서요. 제가 한 발제가 아니라 질문사항이 6분과 것이 안 왔어요. 제가 6분과 소속인데... 그리고 제가 한 답에 대해서는 제가 듣고 보니까 교육이라는 게 기준에 있는 교육방식을 생각한 질문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새로운 방식의 교육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운동이 된다고 말씀 드린 거거든요. 질문 내용을 다시 한 번 곱씹어 보니까, 지금 있는 기존 시스템의 교육을 가지고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교육까지고는 안 된다,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주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내야 된다. 그게 맞았을 때는 운동이 잘 되지만 그것이 어긋나게 되면 주체를 만드는 것에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교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체가 안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성찰을 좀 해야 된다고 보완하고 싶고요. 저희 6분과에서 나온 질문은 딱 한 개였는데 그 한 개가 안 올라 왔어요.

실무자(이은희) 안 올라온 것이 아니고 전희경 선생님께 한 질문인 것 같아서 드렸어요.

박인혜 아, 이게 제 방법과 좀 연관이 돼서 질문을 소개하고 저희 분과에서 더 논의를 해 보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성주의자 세대 간의 관계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질문이었어요. 저희 분과에는 20대에서 50대까지 골고루 다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소통하고 알까, 어떻게 들어줄까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방식이 어떤 그 활동가 재생산, 활동가 교육과도 연관이 될 것 같고, 또 여기 보니

까 활동가에 대한 정체성 고민들,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활동가 교육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토론 과제로 꼭 챙겨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희경 그 질문인지 피력인지 모르겠어서 미뤄놓았다 빠뜨렸네요. 4분과에서 주신 질문 중에 '활동가랑 노동자의 차이가 무엇이야. 운동을 하다가 주말을 반납하고, 막 노동자로서 일하는 거, 이거 초과근로 아니냐. 여성단체 또한 굉장히 권위적이기도 하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은 돌봄노동자들의 뒷타닥거리에 불과할 수도 있겠다는 점에서 갈등이 생긴다. 활동과 노동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이걸 어떻게 요약해서 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과 '희생과 헌신하는 일이 어떻게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여성주의 활동가가 만들어지고 지속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회원으로 운영되는 단체 재정사업의 경우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교육이 필요한 거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인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정말 87년 이후 조직운동이라는 것이 큰 틀로 시작되고 지속되면서 문제제기가 오랫동안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대규모 단체라 함은 수백 명은 아니고 상근활동가 3인 이상... 우습나요? 민우회가 스무 명 정도되나요? 그 정도된, 한 2십년 정도된, 그리고 규모와 체계와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는 단체들에서 이 문제제기가 나온 지는 거의 2십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내부에서 소통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수당체계와 연차,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거냐, 안식년, 안식월 이런 체계를 바꿔야 되지 않냐.

사실 이것도 저는 세대문제와 같이 가고 있다고 생

각하는데, 세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어느 정도의 박봉을 통해서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혹은 가족적인, 혹은 문화적인 조건 같은 것이 있었다면 지금은 똑같은 금액, 그 월급을 가지고는 할 수 없거나 자기 재생산을 할 수 없거나 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대 경험 같은 것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저는 어떤 식으로든 그 조직이 꼭 사단법인이라는 형식이 아니어도 조직화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페미니스트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형태로든 조직이 필요하고 2인 이상의 조직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직이 지속성을 가지고 역사를 갖거나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한 헌신이나 희생이라는 것이 필요해 지긴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안하고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제 희생이나 헌신, 근데 모든 희생이나 헌신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가슴 뛰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굉장히 나를 살맛나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인간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로도 사는 존재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페미니스트로 내가 어떤 종류의 어려움 내지는 난관 내지는 살기가 좀 피곤한 것을 기꺼이 감당 하겠다면 그 기꺼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사실은 아주 다른 경로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어떤 조직에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인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상근자 선배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막, 이런 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기자회견문 이런 거 좀 안 쓰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이런 거 해서 법이 바뀌고 그러는 게 너무 가슴 뛰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가슴이 안

뛰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것이 류지연 선생님과 어떤 면에서 훨씬 더 가까이 있는 점이 있겠죠. 이것이 내 운동인가? 내 이슈인가? 내 삶을 설명하는가? 라는 물음이 훨씬 더 저를 액티비즘으로 들어가게 하는 첫 번째 관문이었지, 내가 기여하는 일이 크게 보면 역사를 바꾸는 일인가, 이걸 저한테 안 움직이다가 갑자기 일어나게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후 순위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액션의 주체가 되는가 하는 경로들이 다양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좀 밝히고 확인하고 해야지만 뭘 전제한 상태에서 예단하다가 미워하다가 그러지 않을 것이다. 1분만 더 쓸게요.

권리담론,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박인혜 선생님이 권리담론이 유효하다고 하시고 저는 유효하지 않다고 본 것이 아니고요. 저는 권리담론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 식의 역풍을 맞고 있는지 좀 냉정한 평가 같은 것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 거고, 그렇지만 역풍이 있다고 해서 해야 되는 것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리고 분명히 권리라는 단어를 통해서만 이슈화 할 수 있는 의제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나 그런 것들을 권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떻게 문제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무슨 자유주의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이니 이런 얘기 했을 때 한참 애기했던 것처럼 무슨 페미니즘에 단계가 있어서, 가장 최근에 나오는 최신이고 이거 막 가장 첨단이고 가장 값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차피 100년 동안 계속 과도기였기 때문에 너무 여기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저기서는 말이 되는 그런 식의 지역 차이가 너무 큰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동시적으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키워드들이 공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어느 지점에서는 권리라는 단어를 계속 가져가야 되지만 역풍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어느 지점에서는 그것

만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는 다른 키워드들이 필요할 때 그 키워드를 '어떻게 이것도 여성주의 운동이야 라고 묶어낼 수 있는가' 라는 방식으로 한번 토론해 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참가자 중에서 한 분만 코멘트 혹시 지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다 하는 분 있나요? 없으신가요? 모든 참가자들에게 참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다들 솔직하게 생각 말씀해 주시고요. 그 꼭 커밍아웃 하는 것처럼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게 확실히 생각한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생님들의 같은 생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부분들을 지지받고 그 안에 제안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끈을 이어나가는 서로가 알 경우엔 보완도 할 수 있고,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여성운동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대로 혼란할 수도 있겠지만, 늘 저희는 이런 자리를 가짐으로써 돌아쳐보고 언제든지 '아니다 그러면 탁 그만둘 수 있는 결단, 그냥 확 갈 수 있는 거' 그게 오히려 남자보다 여성들이 참 강해요. 어떤 면으로는 이게 왜 그럴까? 어떤 면에서는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이나 그런 것들이 축적되고 역사 안에서 갇혀 있던 유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안 하든 그 안에 참 자유로움이 우리한테 존재하는 거 그것이 우리 여성운동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요. 그러나 혼련을 통해서 멧집이 좀 더 키워져야 되겠다. 정말 뭐가 와도 우리다움을 지켜낼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코어, 아주 분명한 지향이 있는데 그것을 각자가 자꾸자꾸 갖고 담고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치열한 논쟁들이 있어야 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발제는 아니지만 조직이라는 체계 안에서 여러 사례를 볼 때 여기 지역YWCA 사

무총장님이 몇 분 계시는데 마음이 아파요. 조직 안에서 살림을 사시는데 사무총장들이 어떤 면으로 봤을 때, 막 쓰러져 가는 집에 모든 세간살이를 끌고 담고 그러면서도 또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 내는, 책임을 맡고 있어서 가야되는 길이 있지만 그게 여성운동 안에서 잘 보이지 않고, 그런데 또 저희 안에는 수많은 만나야 하는 시민들도 있고 활동가들도 요구되는 상황들도 있고 그런 속에서 고민을 많이 하죠.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이 모두 충만한 기운을 가져가시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원탁에서 토론하실 때 분과의 주제 뿐 아니라 서로가 지켜나갈 수 있으면 내년이든 후년이든 다시 이 자리에 올 때 정말 서로 같이 지켜주고 노력하고 서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염원해주자 하는 소망들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길게 드렸네요. 이 자리 지켜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많은 질문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대답해 주신 네 분의 발표자들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2부

여성운동의
전환을 위한
대화

여성주의, 왜 마을로 들어가야 하는가?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

신자유주의와 여성운동

2011년 1차 여성회의에서 김현미 교수는 한국의 여성운동에 대해 매우 도발적인 문제제기를 던져주었다. 신자유주의의 특징이 국가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기능을 포기하고 안전, 안보 중심의 문화 이데올로기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국민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여성들의 삶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IMF이후 유연화를 통한 여성의 고용불안정과 빈곤화를 더 이 심화시켰고 사회서비스비용지출을 축소하여 여성의 재생산, 돌봄 노동의 부담을 증가시켰으며 가족부양을 위한 여성의 경제적 역할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권리를 주장하는 페미니즘의 담론을 약화시키고 여성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비가시화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운동은 신자유주의하에서 제대로 된 전략을 수립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노동, 복지, 생태, 건강 등 진보진영과 맥을 같이하며 사회적 확장에 동참하는 것은 어떤 리더십을 성취하고 있는지, 거버넌스에 동참하면서 효율적 극대화 목표로 재조직되는 여성운동이 사회적 서비스 담당자의 기능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이 정치를 시장으로 옮겨 정치를 연성화하였으나 그것이 진정으로 대중화에 기여했는지 마켓페미니즘은 아닌지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다. 3년이 지나 신자유주의의 시민사회 관리 방식이 더욱 더 치밀하고 노골화되어가고 있는 지금 여성운동 현장에 던지는 이러한 질문들이 나는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3년 전과 다른 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명분만이 이 불평등한 국가의 유일한 역할이었음에도 2014년 봄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사실이다.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본 이 참사는 국민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국가가 사실은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 과정이었고 우리 사회가 생명을 위해 단 하나의 시스템도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세월호는 여전히 침몰해 있다. 야당의 정치는 사분오열되어 실종되었고 시민사회의 모든 이슈들은 -밀양, 의료민영화, 세월호 진상규명 등- 언론의 침묵 속에 가라앉고 유가족 앞에서 폭식투쟁하는 일베와 서북청년단 부활 등 보수 세력이 더욱 결집되고 있는 상황이다.

풀뿌리 여성운동과 마을

모든 사회운동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운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풀뿌리 운동이 본질이다. 모든 진보적 운동의 결과는 그 운동에 참여하는 대중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운동의 목표에 공감하고 참여했는가가 운동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페미니즘 초기의 참정권 운동이나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 역시 이 운동에 수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때만이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되었다. 여성운동의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것은 개인들의 삶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 정치적 구조적 억압이라는 성찰이며 개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위계화하고 분리하는 근대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이다.

한국의 여성운동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협력하여 여성을 위한 제도화 정착에 전력을 기울였다. 성주류화 전략을 채택하여 여성전담부서를 두어 모든 일반 정책에 성평등의 철학을 심기 위해 노력하였고 여성 폭력 및 모성 보호, 고용과 돌봄 등에 여성정책을 제도화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성평등을 목적으로 했던 일-가정 양립 정책들은 시장의 경쟁력강화와 고용 창출의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정치적 대표성의 문제는 젠더균형의 문제로 탈정치화되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게 된다. 여성의 삶은 빠르게 시장에 포획되어 개별 소비자로 남고 여성의 연대와 공동의 목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다. 위로부터 시작했던 여성운동의 한계에 직면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여성운동이 발견한지 수년이 흘렀지만, 왜 여성주의는 아래로부터의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을까?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운동의 주체를 조직하고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체는 그 사회에서 권력을 갖지 못해 배제되고 비가시화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다. 사회문제를 상층부가 대신 결정하고 해결하는 것을 풀뿌리 운동이라고 하지 않는다. 여성운동은 여성의 삶을 인식하고 불평등한 관계를 변화시키는 여성 자신의 힘을 기르고 함께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켜 가는 과정이다. 결코 일회적 사건이 아니다. 이러한 개인의 변화와 그 변화를 함께 하는 사회운동 없이 성평등한 사회란 불가능하다. 이럴 때 풀뿌리 여성 운동은 '권력을 갖지 못한 일반 대중(여성)이 스스로의 삶의 공간에서 집단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과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와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가려는 의식적인 활동'¹⁾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 여성운동이 여성들의 힘으로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간다는 꿈을 상실한 것이 아닐까. 여성주의 운동이 여성학이나 여성정책과 역할을 혼돈하고 여성들의 주체를 형성해가는 것이 운동의 과정이면서 목적이라는 사실을 슬그머니 잊어버리게 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어쩌면 여성 개인이 살아남기에 전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여성주의를 원하지 않는 마을

우리는 단순히 남성과 동등해지는 것만을 원하지는 않는다. 썩은 파이를 나누기보다 건강하고 평화롭고 생태적인 파이를 갖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여성들 혼자 새로운 파이를 굽는 모습은 아

1 이승수,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창립선언문, 2008

니다. 남성들과 함께 마을과 지역, 사회를 같이 재구성하고자 하는 정치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에 종속되지 않는 성평등의 새로운 실험과 도전을 여성주의가 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더 많이 조직되고 배우고 연대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현실의 마을은 우리 사회의 성평등지수만큼이나 가부장적이다. 많은 여성들이 마을에서 활동하지만 지역사회의 성차별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별다른 방법을 찾고 있지 못하거나 크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2013년에 서울지역 풀뿌리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여성들 165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풀뿌리시민운동의 가장 중요한 가치 선호도 조사에서 10가지 항목 중 성평등은 단 2명이 선택함으로써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²⁾ 여성들조차 성평등을 주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여성주의는 왜 지역의 여성들에게 외면되는 걸까.

풀뿌리 자치연구소 이음에서 풀뿌리운동의 주체에 관한 학습공유회에서 '풀뿌리운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풀뿌리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90%가 여성으로 여성들이 지역 살림과 현안에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강하다. 둘째, 재정의 어려움이 크다. 재정은 회원들의 회비정도로 채워지며 마을운동은 가사노동과 마찬가지로 '자원활동'이라는 명목으로 보상이 거의 없다. 여성풀뿌리 조직은 활동이력에 비해 축적된 자원이 없고 자원동원력이 부족하다. 셋째, 여성은 공동체적 현안, 관계, 삶의 질에 관심을 갖고 윤리적이고 헌신적인 반면 남성은 결과에 집중하고 자원조달방식에 익숙하고 성과, 개발, 정치, 권력, 사회적 영향력, 자리에 대한 욕구와 재능이 강하다. 이러한 성별분업은 지역(에 남는 여성)과 중앙(으로 진출하는 남성)이라는 성별분업으로 확장되고 지역 안에서도 민간(에 남는 여성)과 지역정치(로 진출하는 남성)이라는 성별분업으로 정착된다. 넷째, 관계지향적인 여성적 특성은 풀뿌리운동에 적합하고 대항 권력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으며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의 경험이 더욱 중요한 역량으로 발휘될 수 있다. 다섯째, 활동주체가 전업주부가 많아 성별분업이 고정되고, 결혼한 부부와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 중심의 운동을 넘어서기 어렵다. 여성이 아닌 강요된 모성적 역할의 한계가 있다. 여섯째, 지역은 의제가 중앙에 비해 보수성을 띄게 된다. 풀뿌리 여성운동은 모성을 넘어 사회변화의 비전과 접속할 필요가 있다. 지역운동은 학생운동 출신 남성 패권적 지도력에서 지역주민 관계중심, 지역 살림살이의 주체인 여성중심으로 세대교체하고 참여주체 간 수평적인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³⁾

요약하면 현재 풀뿌리 여성운동은 모성중심으로 조직, 운영되고 있고 그로 인한 자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여성주의 가치- 살림과 돌봄, 수평적 관계 - 를 담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마을은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인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마을이다. 그러나 그 안에 새로운 파이를 만들어갈 새로

운 씨앗인 여성들의 잠재력이 있으며 풀뿌리 여성운동은 그러한 변화의 씨앗을 여성들에게서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풀뿌리 여성운동의 기획

다시 한 번, 서두에 언급했던 신자유주의에 대응하는 여성운동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한 검토를 지금의 풀뿌리 여성운동을 통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진보진영과 맥을 같이 하며 머물기 전략이다. 최근 '모두를 위한 마을은 없다' 책을 통해 지금 마을공동체 운동에 노동, 인권, 여성 등 사회 진보에 대한 기획이 없다는 지적을 하곤 한다. 부문운동으로 나뉘어진 진보운동과 풀뿌리 운동간의 소통과 연계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풀뿌리 운동과 노동운동의 만남, 풀뿌리 운동과 인권운동의 대화 등이 기획되고 환경과 풀뿌리 여성, 여성노동자와 건강이 결합되는 등 부문 운동 간의 접촉도 증가하고 있다. 복지국가 전략이나 민영화 반대 이러한 문제들은 지역의 운동이 되기가 너무도 업지만 점차 시도되고 있다. 세월호 집회를 동네에서 한 것이나 의료 민영화 반대를 동네에서 하는 것 등 점차 접점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전략의 확대가 풀뿌리 여성운동을 어떻게 강화하고 다른 운동들의 성평등의식을 확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그런 운동의 결합에 머물지 않고 여성주의와 다른 운영이 서로 만나 시너지를 내고 함께 풀뿌리 주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획과 실천이 필요하다.

둘째,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이다. 지역의 풀뿌리여성운동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영역이 '복지/사회 서비스' 이다. 지역에서 인정받고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 다문화, 노인, 자활, 저소득층 소외된 이웃 등에 관한 복지 서비스를 하는 것이 풀뿌리 운동의 불문율이 된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기존의 직능단체들의 지역 활동 전략과 같다. 이 전략에는 지역사회와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역할을 통해 지역사회에 일 주체가 되는 장점이 있다. 반면 풀뿌리 단체의 조직과 가치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참여하는 여성들의 성장과 조직화는 또 다른 숙제이다. 또한 국가의 복지사업에 편입돼 시민사회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사회적 서비스의 담당기능으로 전략하여 갑을의 관계가 되어 시민운동의 역동성이 거세되기도 한다. 중앙여성운동의 과정이 풀뿌리에도 답습하게 되는 과정이다.

셋째, 아젠다의 연성화 문제이다. 여성운동이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 현장을 시장으로 옮겨가는 마켓페미니즘의 우려가 풀뿌리 운동의 현장에서는 없을까. 마을은 삶의 현장이면서 정치성이 거세되는 곳이기도 한다. 텃밭과 카페, 공정여행, 환경과 건강,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 안전마을 ... 그것들은 쌀시장 개방, 정치적 수다, 신자유주의의 불평등, 환경오염과 대안경제, 일상의 폭력을 논의할 수 있는 이슈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얘기가 거세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어쩌면 스스로 감시하기도 하고 그러한 정치적 담화에 오랫동안 익숙치 않아서 일수도 있다. 정치적 기획이나 목적이 전혀 들어갈 여지가 없는 사업들이 마을공동체사업 이름으로 이벤트성의 사업들이 지역에 차고 넘치고 있다. 풀뿌리 단체는 선거 시기에도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조직이 많다. 이렇다보니 지역에서는 제대로 된 여성주의 훈련이나 교육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활동가 교육조차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민교육이나 여성

2 장이정수, 풀뿌리단체의 여성참여활성화방안: 여성활동가의 욕구조사를 중심으로, 한양대 석사논문 2013
 가치항목은 총 10개이고 빈도수로 보면 소통이 39%로 가장 높았고 민주주의, 투명성, 환경, 관용, 자율성, 사회적 약자 배려, 비폭력, 돌봄, 성평등 순으로 성평등이 가장 낮았다.
 3 이음 연구모임 제2회 학습공유회 발표자료, 2014년 8월 26일, 박신연숙(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이순임(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 도봉아이나라), 이은희(한국여성재단), 임경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 공동발제문 요약

주의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시민사회의 운동도 이미 위계적으로 이분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중앙시민운동은 정치적이고 전문적인 의제 중심의 자원동원적인 남성적 운동이고 풀뿌리 운동은 비정치적이고 비전문적인 자원이 빈곤한 서비스 중심의 여성적 운동으로 분리되는 것이다. 여성주의 운동은 이미 고풍력의 어떤 특정 여성들이 하는 운동으로 고착된 것이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을 보면 이러한 풀뿌리 운동의 상황을 더 강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13년 서울시 공모사업을 6,580명이 신청하여 2,678명이 선정되었는데 72.8%가 여성이다. 평균연령은 44세로 40대가 43.8%, 30대가 30.1%이다. 경제, 주거, 문화, 돌봄 등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각 단위 사업들은 근본적인 노동의 변화나 사회의 변화, 돌봄 사회의 확대를 꾀하기에는 단기적이고 행정적이고 성과위주의 사업들이다. 대부분의 사업유형은 모성 중심의 지역 활동을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부모커뮤니티나 공동육아는 여성들이 교육을 주제로 모여 같이 교육하고 체험한다. 근본적인 구조나 사회적 약자의 문제가 개입될 여지는 없이 삶의 어려움을 이웃과 함께 위로하면서 해결하고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요구하는 구조이다. 여성주의 가치들이 개입하기가 어렵다. 마을은 주민 세 명이 하는 수십가지 사업들로 인해 서로에게 곁을 내줄 시간조차 없이 바쁘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여성들이 자원을 획득하고 성장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서울시의 사업을 수행한 지역 여성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익숙하지 않은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한 피로감, 정작 자신의 가족이나 아이는 방치되는 모순, 사회적 보상의 부재, 주민참여심사 등 지역주민들 사이의 경쟁, 프로젝트를 잘 쓰는 '선수' 중심으로 마을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 등 지금까지 지역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던 풀뿌리 '운동'이 '사업'으로 변화된 부작용 또한 분명 생각할 지점이다.

여성주의 활동가 혹은 여성의제들이 지역사회로 들어간 몇 가지 사례를 검토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 운동을 여성주의 관점에서 변화시킬 수 있을지, 성과는 무엇이고 한계는 무엇인지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

1) 한국여성의전화의 '움직이는 마을'

가정폭력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었던 여성의 전화가 은평 지역에서 약사회, 사찰 등 다양한 주체들을 찾아가 가정폭력에 관한 문제를 함께 교육하면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 모색하고 실천한 활동이다. 여성주의 관점을 접할 기회가 없는 지역의 주체들에게 스스로 교육을 기획하고 참여하게 하였고 비가시화되는 가정폭력 문제를 드러내도록 하였다.

2) 좋은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비폭력 배움터

여성의 전화 출신의 활동가가 동작구에서 지역사회의 여성들을 교육하여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아웃리치를 진행하고 마을공원에서 비폭력을 배우는 축제와 일시 쉼터 카페 '나무'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에서 청소년과 어른들이 만나 동별로 안전에 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마을이란 CCTV등의 물리적 시설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웃간의 만남과 관계망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3) 초록상상의 '달수다' 봄봄

여성환경연대의 지역조직인 초록상상은 청소년과 아동, 여성들에게 성교육과 비폭력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성교육은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학습해야 할 배려와 존중의 인권교육이며 청소년을 위한 거리 상담과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나를 돌아봄 서로를 돌봄이라는 '봄봄' 프로젝트 등 상품화, 의료화, 대상화되는 여성의 몸을 스스로 돌보고 관계 속에서 건강을 지키려는 여성환경건강 운동을 펼치고 있다.

4) 동북여성민우회의 '여성이 건강한 마을'

여성건강마을 시범사업으로 도봉구의 보건소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과 여성 건강의 관점에서 여성리더 양성, 여성건강 프로그램, 여성건강 축제 등 여성관점의 생애주기별 건강의 담론들을 만들어내고 지역의 네트워크를 통해 여성건강의 다양한 실험과 과제를 모색하고 있다.

5) 살림의료생협의 '다짐'

여성주의 의료생협을 표방하며 은평지역에서 의료에 의존하지 않는 예방차원의 건강운동을 펼치고 있다. 상담과 예방교육, 생활 속의 다양한 소모임과 건강 프로그램, 상업화되어 여성의 몸을 소외시키는 운동이 아닌 여성 내면의 힘을 기르는 운동 등을 통해 여성의 몸과 삶을 돌보는 협동조합을 지향하고 있다.

6) 강서양천여성의전화의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

올해 여성가족재단과 함께 10여 개 지역여성들이 자치구와 서울시의 성별영향평가를 모니터링하였다. 이제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은 공무원의 책상에서 끝나지 않도록 지역의 사업들을 모니터링하여 평가하고 개선하는 의미가 있다. 강서양천여성의 전화는 서울시여성발전기금을 받아 30여명의 여성들이 노인 일자리사업과 장애인일자리 사업,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에 관한 모니터링을 하였다. 정책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가와 감시를 통해 현실에 맞는 제도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모니터링은 지역 여성들이 지역에 대한 정보에 접근토록 하여 지역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어떤 거버넌스를 할 것인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다시, 여성주의에 묻다

여성주의는 왜 마을로 들어가야 하는가. 마을로 들어가지 않는 여성주의는 더 이상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여성주의는 우리들의 삶의 관계를 바꾸어 갈 것이다. 마을에서 여성의 지위와 여성의 관계와 여성의 삶의 질도 변화시킬 것이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 여성이 폭력적 관계에서 벗어나 스스로 힘을 갖는 사회, 돌봄이 여성의 역할로 고정되지 않는 사회, 돌봄과 생명이 자본이나 성장보다 중요한 사회적 가치가 되는 사회, 여성의 돌봄이 사회적으로 낮은 가치로 여겨지지 않는 사회 ... 나

는 그것을 여성주의라고 생각한다. 서로 존중하고 적게 벌고 적게 쓰고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은 가족과 이웃, 학교와 골목, 아파트와 지역사회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제도의 변화나 국가의 힘을 빌어 이루려했다면, 이제 신자유주의는 다른 전략을 병행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 법이 상식이 되고 일상의 문화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여성주의는 대답을 해야 한다. 법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많은 실험과 상상력에 비해 원래 그렇게 작고 초라한지도 모르겠다. 이젠 당위적 차원에서 여성주의와 마을이 만나야 한다는 넘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풀뿌리 여성주의 기획을 논의해야 할 때이다.

1분과

2011~2014 동네방네(동Net 방Net) 프로젝트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마을 만들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서경남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조직국장

1. 문제의 제기 – 여전히 아무도 모르는...

1)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당한 여성들의 통계

살해원인 ¹⁺² 사례분석	2012년	2013년
가정폭력	112건	105건
데이트 폭력	57건	92건
기타		1건
	169건	198건

살해당한 여성들	2012년	2013년
살해당한 아내, 애인 ¹	120명	123명
살인 미수로 살아남은 여성들 ²	49명	75명
자녀, 친정부모 등 그 외 살해당한 사람들	35명	30명
	204명	228명

출처: 한국여성의전화

위의 통계는 공식적인 범죄 통계가 아닌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여 집계한 통계로 최소한 수치이다. 현 정부 들어 가정폭력을 4대악에 포함시킴으로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보다시피 현장에서 가정폭력을 마주하는 현실은 이처럼 비극적이다. 이런 상황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이전보다 나아졌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인식에 반하는 것이다.

2)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

대상 경기도 소재 교도소에 재소 중인 수형자 545명(유효표본 486명)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1.2%가 아동·청소년기에 가정폭력을 직접 겪거나 또는 부모간의 가정폭력

을 목격하는 간접경험을 한 적이 있다

특히 폭력을 수반하는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살인, 강도죄로 재소 중인 강력범죄 수형자 집단이 절도, 사기 등 다른 범죄로 수형중인 집단에 비해 어린 시절 가정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기에 가정폭력을 경험한 집단의 경우 청소년기에 급우에 대한 따돌림, 신체폭력, 금품갈취 등 비행을 저지른 비율이 71.1%로 가정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23% 가량 더 높게 나타났다. 성인이 된 후 본인의 자녀나 배우자에 대해 가정폭력을 행한 경험 역시 어린 시절 가정폭력을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른바 '폭력의 세대간 전이(轉移)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줬다.

2013. 7월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발표

가정폭력은 가정 내의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그 심각성이 너무 큰 사회적 문제이다.

2. '움직이는' 마을 모델 만들기 프로젝트의 출발점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지역사회 네트워킹 모델 만들기 프로젝트'(이하 '움직이는' 프로젝트)의 출발점은 세 가지 문제의식이었다. 첫째 가정폭력은 이웃의 침묵과 무관심으로 완성되고 있고 두 번째, 여성폭력 근절을 목표로 다양한 지역네트워크들이 구성되고 있으나 실제로 재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가정폭력방지법은 피해자보호와 가해자처벌, 신고의무자 규정 등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거의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폭력을/ 마을에서/ 누구나 알아채고 → 관심을 갖고 →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움직이는' 마을의 출발점이었다.

폭력과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 스스로 그렇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폭력을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에 있었다. 이렇게 심각한데, '당신들은 왜 모르니? 혹은 왜 분노하지 않니?'라며 원망을 쏟기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를 함께 묻고 의논하는 동료가 되고자 했다. (여성의 전화 말고도) 마을에서 폭력을 문제 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했고, 폭력이 타자의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실험하는 장이 움직이는 프로젝트였다.

3. '움직이는' 모델 만들기 프로젝트

2012년 시작된 '움직이는' 마을 모델 만들기는 올해로 3년째 진행 중이다. 2012년에 기획팀으로 결합했던 기획위원들은 지역에서 가장 먼저 가정폭력을 접하고, 처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면 2013년도에 마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접점을 만들고자 마을의 경계에 있는 마을 조직, 단체, 그룹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2014년도에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리더들의 네트워크와 2013년도에 구축하지 못했던 종교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1) 2012년 '움직이는' 기획위원

구분	기획위원
연구자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다문화정책센터 연구위원)
지역전문가	박은미 (가정폭력 2차 피해 사례연구팀 / 본회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신경희 (은평구여성정책모니터링팀 / 본회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아동/청소년 전문가	황지영 (갈현초등학교 교사)
	김현미 (구산초등학교 지역사회교육전문가)
	허일 (은평구청소년복지상담센터 CYSNET 담당)
경찰서	문승민 (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
	이윤희 (은평경찰서 형사과 형사지원팀)
구청/정책전문가	김지영 (은평구 희망마을담당관 주무관)
가정폭력전문가	정춘숙 (본회 상임대표)

2) 2012년 '움직이는' 기획위원

구분	기획위원
연구자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사회통합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마을	권오련 (응암동 산골마을 부녀회 회장)
	원점례 (응암동 산골마을 부회장)
	이경미 (응암동 산골마을 부녀회 총무)
	이신애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마을상담원)
교회	문상임 (광현교회)
	용영순 (성산교회)
약사회	우경아 (은평약사회 부회장)
지역아동센터	김명자 (은광지역아동센터 센터장)
경찰서	김미라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아동·여성계 형사)
	박보람 (은평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형사)
아동/청소년 전문가	이정자 (은평구청소년상담지원센터 팀장)
	김현미 (구산초등학교 지역사회교육전문가)
	황지영 (갈현초등학교 교사/은평학부모네트워크)
구청/정책전문가	박소영 (은평구청 가정복지과 주무관)
가정폭력 전문가	조남진 (한국여성의전화 회원/2012 움직이는 네트워크 기획위원)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소장)

3) 2014년 '움직이는' 기획위원

구분	기획위원
연구자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사회통합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마을	고은경 (은평여성연대 여담)
	김다현 (열린사회 은평시민회)
	나상옥 (은평소방서의용소방대)
	박시형 (응암1동 7통 통장)
	이인라 (서부경찰서전의경어머니회)
	이혜진 (북한산래미안어린이집)
	정영록 (응암1동 새마을부녀회)
	임정숙 (아줌마가 키우는 아줌마연대)
종교기관	방데레사 (구파발성당)
의료기관	조미자 (서울시은평간호사회)
가정폭력전문가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신상희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소장)

4) '움직이는' 기획위원의 역할

기획위원은 월1회 정기회의 참석하여 전체적인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논의하였고, 기관별 워크숍,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네트워크를 구동하는 역할을 맡았다.

① 2013 움직이는 기획회의의 진행과정

회차	일시	내용
움직이는 1차 회의	5/29	참석 소감 나누기
		2012 "움직이는" 지역사회 네트워킹 모델 만들기 사례발표 및 2013년 사업계획 공유 "움직이는" 지역사회 네트워킹 모델 만들기 관련 브레인스토밍
움직이는 2차 회의	6/18	영화감상("침묵을 말하라") 및 이야기 나눔
		"움직이는" 네트워크 모델 만들기 논의 - 1차 회의록, 사업계획서 공유 및 논의 "움직이는" 기획위원 위촉
움직이는 3차 회의	7/24	영화감상("우모자") 및 이야기 나눔
움직이는 4차 회의	8/28	영화감상("실뭉치") 및 이야기 나눔
		"움직이는" 네트워크 모델 기관별 실행 계획 논의
움직이는 5차 회의	9/25	움직이는 모델 워크숍 진행 결과 보고모임
		움직이는 네트워크 모델 기관별 실행 계획 및 일정 논의
		움직이는 모델 워크숍 정리 틀 논의
움직이는 6차 회의	10/30	움직이는 모델 워크숍 진행 결과 보고모임
		움직이는 네트워크 모델 기관별 실행 계획 및 일정 논의
		움직이는 모델 워크숍 정리 틀 논의

기획회의 초반부터 기획위원들의 역량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사업의 내용을 만들어가는 것에 집중하였다. 6회차에 걸친 움직이는 기획회의는 참여하는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유됨으로써 사례가 상호 연계되고 있고 기관 상호간의 지원 및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네트워크가 움직이고 있다.

5) 움직이는 워크숍

움직이는 워크숍은 학교교사, 지전자, 경찰 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부모모임), 약사회, 새마을부녀회, 사찰(심택사) 신도 등과 함께 진행하였고, 이 과정은 움직이는 기획위원들의 발품으로 성사되었다. 여성의전화는 움직이고, 움직이는 기획팀이 움직이고, 움직이는 워크숍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이런 움직임이 더 많아지고 더 잦아지는 것이 폭력 없는 마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영화를 본 소감나누기를 시작으로 워크숍의 물꼬를 트기 시작해서 '가정폭력'과 '나'에 대한 얘기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과정을 통해 사람들도 저마다 폭력에 대해서 할 말이 무척이나 많았다는 것을, 그 말을 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었다는 것을 움직이는 프로젝트를 통해 알아갔다. 생각할 시간이 생기고, (서로) 들어주는 공간으로 초대할 때 사람들은 저마다 말들을 쏟아냈고, 아이디어를 냈고, 그 생각들을 현실로 만들기 시작했다. 폭력은 불편한 주제일 거라고, 말하기를 꺼려할 거라고 지레 짐작했던 (여성의전화의) 편견과 주춤거림들은 움직이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지없이 깨져갔다. 여성의전화에서 "폭력은 A이므로, B라고 말해야 하고, C를 만들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D를 해야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이는 마을' 만들기가 '의미'들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 검열이나 진단 없이 폭력에 대한 내 경험, 내 생각, 내 의견을 개진하는 것, 아이러니 하게도 여성의전화에서 "폭력은 이렇게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폭력을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물론, 두드러도 열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움직이는 기획위원들이 열심히 워크숍을 열기위해 고군분투해도 교회 워크숍은 끝내 열리지 못했다. 1차 년도에 진행한 가정폭력 당사자 워크숍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은, 마을에서 이들이 폭력관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곳이 교회나 사찰 등 종교기관이라는 점이었다. 당사자 워크숍에서 생존자들은 통반장에게는 오히려 가정폭력 사실을 말하거나 상담할 수 없고,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등에게 털어놓는다고 이야기했었다. 통반장의 경우 도움을 주기보다 오히려 소문만 돌기 때문에 더 말할 수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는데, 이는 그만큼 통반장의 역할이 중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가정폭력의 특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통반장 그룹에게도 주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종교기관 중에서도 특히 기독교 분야에서 이런 워크숍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았고, 해서 2차년도에는 교회워크숍을 진행하고자 노력하였지만 녹록치 않았다. 지난한 과정이 되겠지만, 여성의전화 상담 과정에서도 늘 제기되었던, 생존자들이 갖는 교회의 높은 접근성(하지만 폭력을 참고 인내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을 고려할 때, 교회워크숍에 대한 문두드림은 멈추지 않을 계획이다. 반면에 관내 사찰 중에 한 곳(심택사)은 기획위원의 연결로 움직이는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었다. <심택사>는

끊임없이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고 고민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가정폭력 없는 마을 만들기’를 위한 종교기관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만들 수 있었다. 신도들과 함께 그것도 ‘법당’에서 가정폭력을 이야기하는 장면은 꽤 낯설다. 하지만 낯설지만 ‘안전한’ 이곳에서 사람들은 폭력 없는 마을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했다. 이후 이 네트워크를 통해 더 많은 마을 사람들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6) 2013 기관별 ‘움직이는’ 워크숍 진행표

기관	일정	대상	장소
성산교회	9/5	지역아동센터 교사, 지전가	신나는애프터센터
은광지역 아동센터	9/26	지역아동센터 교사, 지전가 대상(은평3권역)	연신중학교 교육복지실
	9/14	부모(엄마)모임	은광지역아동센터
은평약사회	9/14	은평약사회 임원 및 회원	은평약사회 회관
은평구청	9/30	새마을부녀회 회원	은평구청 대회의실
서부경찰서	10~11월	지구대간담회 & 교육 (신사, 응암지구대 녹번, 응암3파출소)	교대시간(8회)
은평청소년 상담복지센터	10/2	상담지원센터 내 직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마을	10/22	한빛마을센터	한빛마을센터
	10/18	은평구민체육센터 회원	은평구민체육센터
구산초등학교	10/30	은평구 지역사회교육전문가	한국여성의전화
사찰 심택사	11/5	응암동 주민 및 심택사 신도	심택사 법당

기관별로 1회의 움직이는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지역, 마을 속에 있는 지역의 단위 조직, 그룹들을 가정폭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날 수 있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워크숍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이웃의 가정폭력에 더 이상 무관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 둘째,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대중 교육 및 홍보가 적극 필요하다.
- 셋째, 학교 교육에서 가정폭력 교육 및 지원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 넷째, 가정폭력 공익광고 등을 통해 전화번호 등 연계 가능한 곳을 대중들이 알 수 있도록 한다.
- 다섯째, 가정폭력 지원체계,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여섯째, 가정폭력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일곱째,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 움직이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움직이는 워크숍의 의미는 도출된 결과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였다는 것, 모여서 폭력에 대해 생각하고 변화를 만들기 위한 방법들을 머리를 마주하고 찾아보는 그 과정에 있다. 눈에 보이지 않

지만, 참여자들이 이끌어가는 움직임은 워크숍은 그것 자체로 하나의 변화이자 움직임이며, 그 결과물들을 어떻게 또 다른 움직임으로 만들어갈 것인가는 이 참여자들이 만들어가는 연결고리 같은 것이다. 일례로 2013년 움직이는 약사 워크숍에서 상상했던 “약봉투 뒷면에 연계기관 전화번호 홍보”와 “산뜻한 가정폭력 스티커 제작 및 약국 부착” 아이디어가 2014년 여름 <나와 이웃에 힘을 주는 처방전>약봉투 제작으로 연결된 것처럼 말이다.

[참고] 움직이는 약사 워크숍 결과 내용 중 일부 발췌
(출처: 우경아(2013),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네트워킹 모델만들기 ver2, 자료집, p56-59)

5. 움직이는 약사 워크숍

- ① 영화 소감 나누기
- ② 주제 토론

-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취해지는 조치는? 신고자 신변보호체계는 확보되어 있는지?
- 가정폭력 지원체계를 자세히 알고 싶다.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싶다.
- 피해자에게 부담 없이 접근하는 방식은? 가정폭력 피해자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해도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면 질문하기가 애매하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들었다.

다음으로 약국, 약사로서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활동 내용을 마련했다.

- 약봉투 뒷 면에 연계기관 안내 및 전화번호 홍보하자.
- 가정폭력근절 스티커를 산뜻하게 제작해서 약국에 붙이자.
- 무거운 내용인 만큼 재미있고 편안한 이미지로 부드럽게 정보를 전달 할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 혹 주변에 가정폭력 피해자를 알고 계신가요? 당신의 관심과 애정이 소중한 이웃을 지킬 수 있습니다.
- 리플렛을 비치하여 사회적 관심유도와 홍보도 하고 전문상담기관 연계 및 소개도 적극적으로 하자.
: 피해가 의심되는 손님이 있다면 약봉투에 넣어 주자.
- 상해가 의심된다면 병원진료로 반드시 연결 시켜주자.
- 보수교육이나 지역별 반회 모임에서 일반 약사들 대상으로 교육 및 워크숍을 시도해 이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확대 보자.

6. 움직이는 은평구약사회 모델

결론적으로 이 사업에서 은평구 약사회 모델의 특성과 역할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개국약사는 첫째,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서 대국민 접근성
 둘째, 오피니언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성
 셋째, 건강관련 업무의 전문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약사회는 가정폭력근절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지역거점을 이용해 “적극적인 정보전달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참여사업으로 피해자(사회적 약자) 대상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동참해서 보다 전문적인 관심과 교육을 동반한다면 “지역사회 평화 멘토” 역할까지도 할 수 있다.

〈그림〉은평구약사회가 제작(3만장)해서 관내 198개 약국에 배포한 [나와 이웃에 힘을 주는 처방전] 약봉투. 이 봉투에는 '옆집의 고성에 이웃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과 가정폭력 상황에 놓인 이웃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4. '움직이는' 프로젝트는 계속되어야 한다.

가정폭력은 집 안에서,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해 80%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마을 하면 CCTV, 가로등 개선, 여성안전지킴이 집, 안심귀가 서비스 등 모르는 사람에 의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과 물리적 환경 개선에 치중, 집중되어 있다. 이마저도 폭력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검증되지 않았고 여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강화하고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하다.

여성폭력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는 CCTV나 가로등이 없어도 잘 보이고 잘 들리는 '집 안'임을 기억할 때, '안전마을'은 '집 안'을 움직일 수 있는 방안에 보다 더 골몰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함께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가정폭력 해결의 실마리를 지역에서 찾을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2014년에는 종교기관 모델을 다시 시도하고 마을 속으로 들어가 마을에서 여성폭력에 관한 주체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 여성리더들의 네트워크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2차년도까지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모델을 만들어가는데 집중하였다. 3년차인 올해는 새로운 네트워크 모델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에 구축된 네트워크와 심화 워크숍을 진행 예정이다.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거미줄 네트워크는 기관과 기관의 경계를 허물고 기관과 마을이 언제 어디서나 만나고 소통함으로써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마을로 가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움직이는 마을 만들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정폭력을 마을 어디서나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움직이는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는 계속 되어야 한다.

2분과

위기 그리고 파국,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관하여

김은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사

말문을 열어

연일 쏟아지는 사건사고 뉴스가 넘쳐나는 시절이다. 이제 어지간한 일이 아니고서는 놀라지도 않을 만큼 사람들은 무디어졌다. '사회적인 것(the social)'이 파괴된 자리에 남겨진 허약하고 고립된 개인들로서는 어쩌면 예민한 촉수를 세우고서는 제 한 몸 살아내기 고단하여 무디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의 일상에 무시로 찾아드는 불안이 먼저 '위기'라는 말이 사회적으로 널리 회자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아마도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IMF 경제위기 시절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다. IMF 경제위기를 고비로 한국 사회는 아무리 인간의 얼굴로 가면을 치장해도 냉혹한 비인간성을 감출 수 없는 신자유주의가 곳곳마다 깊숙이 스며들었고, 위기는 일상화되어 버렸다. 여성운동도 다르지 않아서 언젠가부터 '여성운동의 위기'라는 말이 들려왔고, 심지어는 '페미니즘의 죽음'(임옥희, 2010)이라고 까지 언급되기도 한다. 위기의 일상화를 넘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셈이다.

개인적으로 기억을 돌이켜 보면 [여성운동, 새로운 전환의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만났던 3년 전 첫 여성회의 당시에 "여성을 살리는 정치, 정치를 살리는 여성"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었는데, 다시 모인 두 번째 여성회의 자리에서 쉽사리 답을 찾을 길 없는 현실과 여성주의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는 질문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다는 자체가 참 곤혹스런 심정이다.

가라앉은 배, 침몰하는 현대 자본주의

봄바람 불던 그 때 수학여행 길에 나섰던 아이들을 태운 배는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고, 찬바람 불도록 세월호 참사의 해결은 난망하다. 어처구니없이 떠나보낸 소중한 생명, 진상규명과 특별법 통과를 두고 보여준 정치의 지리멸렬함에 시민들은 분노했다. 기다리겠노라 잊지 않겠노라 그리고 행동하겠노라 마음 새긴지 이미 100일을 넘겼지만 한 편에서는 "이제 그만하라"고 말하는 지금 우리가 두려운 것은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달라지 않는 게 아닐까' 하는 절망감이다.



사회학자 리처드 세넷은 『현대의 침묵』에서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두 가지 원리로 가시성과 사회적 고립을 꼽는다(세넷, 1982). 온전히 드러남으로 인해 오히려 개별화 된 개인은 침묵만이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임을 알게 되고, 침묵하는 것을 통해 스스로를 외부와 단절하여 고립된다. 이러한 사회에서 공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공통된 감정은 바로 공포감이다. 불평등하고 불안한 시대에 사람들은 타인과 협력하려는 욕구를 버리고 ‘비협동적 자아(uncooperative self)’가 되며, 그러한 자아는 감정 교류와 사회적 협력으로부터 움츠러들어 ‘가면’을 씌으로써 불안을 관리하게 된다(세넷, 2013).

가만히 있어라, 이제 그만 조용해져라 하는 사람들은 그저 질서에 순응한 것이라기보다 자신도 모르게 이런 ‘공포’를 피부로 느끼고 있기 불안을 관리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안전’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이 여기저기서 제기되었는데, 위험을 회피하고 안전만 추구하는 ‘사냥꾼의 사회’(바우만, 2008)에서 사람들이 목숨 걸고 추구하는 것은 결국 생존과 안전이다. 사냥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사냥감이 되든가!

이런 탓인지 얼마 전에는 현대를 ‘위험사회’로 진단한 울리히 벡을 초청해 ‘안전’을 질문하기도 했는데, 그가 ‘위험사회’에서 분석한 내용이 제대로 공론되었는지 의문이다. 봉건적 신분제는 극복되었을지 몰라도 위험사회에서는 위험을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따라 ‘계급’이 결정된다. “이익은 위로 가고 위험은 아래로 전가된다”는 말처럼 자본주의 사회의 성장과 발전 이면에는 그 발전이 만들어내는 위험을 고스란히 떠맡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월호에 탔던 승객들도 예외는 아니었듯이.

저 멀리 밀양의 오래된 송전탑 투쟁은 어르신 두 분이 귀한 목숨을 버리고 시민들이 연대의 손을 잡으면서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었다. 경찰 공권력이 동원된 폭력적 행정대집행으로 아수라장이 된 밀양 송전탑 투쟁 현장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고, 도시에서 전기를 사용하려면 도리가 없지 않겠냐고 말한다. 삶의 터전이 파괴되는 밀양 주민들에게 ‘안타깝지만’ 전체를 위해 감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할매들의 눈물에 고개 돌린다.

변방의 시선, 함께 살자 살고 싶다 살아가겠다는 외침

쌍용자동차 해고자투쟁 현장 노동자들의 외침에서, 그리고 밀양 송전탑투쟁 어디에서 건 만날 수 있는 할매들의 절규를 통해 우리는 불안과 공포를 극복한 저항의 정치를 만날 수 있다. 포기하지 않고 용감하게 맞서 “우리는 꾸준히 살아갈 것이다”(고병권, 2014)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억압적인 국가와 통치가 아닌 제대로 된 정치와 자치이다. 랑시에르(Jacque Rancière)의 빌리지 않더라도 정치 바깥으로 배제된 자들이 정치 안에서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의 몫을 주장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치이다.



“이 어린이들의 가슴 아픈 죽음이—그리고 그 어린 생명들이 지니고 있던 희망과 약속이—인간의 영혼에 값하는 정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첫 머리에서

연대를 넘어 협력의 공동체: 사회적인 것의 재구성

연대와 협동은 인간 삶의 가장 본능적인 차원인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동시에 자기 한계의 극복을 위한 계기로서 인간 존중에 기초한 이타적 연대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연대의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연대가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집단 이기주의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공동체 와해의 위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국면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제 연대는 개별적이고 특정한 계층과 직업의 범위를 넘어 전체 인간사회로 ‘보편화’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필요한 것은 타자와의 연대이다. 즉, 공동체와 집단의 한계를 넘어선 연대가 그것이다. 그러한 연대를 위한 불발점은 존재하지만 그것은 다만 출발점일 뿐이다(라이너 출, 2000)

파국의 현장인 3.11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일본의 사회운동을 되짚어 논의한 책에 따르면 무엇보다 중요한 키워드는 ‘우리-의식’의 중요성이다(오구마 에이지, 2014).

하지만 ‘우리-의식’을 강조하고, 공동체의 필요성을 선언하는 것이 이질적인 타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까지 알려주지는 않는다(세넷, 2013). 무엇보다 공동체는 내부에 존재하는 이질성, 균열, 갈등, 쉽게 화해할 수 없는 입장의 차이, 불평등과 차별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울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시간을 단축하기 어려운 과정이며,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구체적 장소를 필요로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동네, 마을, 지역공동체,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런 모색의 일환으로 여성들은 국가/시장과 개인 사이에 ‘지역’이라는 사회적 장을 재구성해내려는 노력을 통해 다른 길을 모색하는 흐름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미즈·벤홀트-토텐, 2013). 개별적으로 불안에 대비하라고 요구받는 개인을 공동체의 인간관계망 안에 위치한 존재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도식적인 공공성이 아니라 타인의 말과 몸짓을 알아듣고 승인할 수 있는 심리-육체적 상호교류의 ‘수행적(performative) 공공성’을 통해 자본주의와 전체주의에 대항하는 공존질서를 형성할 수 있고(Sennett, 2003), 다른 어떤 존재보다 여성주의자들이 더 잘 해낼 수 있는 공존의 방식이다. 하지만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공통성이 곧 연대에 호의적이고, 사회적 연대를 가져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여성들 간의 연대나 자매애조차 동일한 사회적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는 자각에서 나온 정치적 행위이다. 여성이라는 범주는 내부에 다양한 이질성이 담겨 있고 서로 경합하기도 하며, 이들을 불러 모으는 힘은 여성이지만 그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형성된 집단의 외연 경계는 다른 경계와 만날 때 언제나 새롭게 재편된다.

그저 해결해야 하는 이슈에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운동이나 활동에 그치지 않는 일상으로 여럿이 부대껴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타인의 고통을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 위계화 되고 불안정한

삶에 대해 '공감' 능력을 회복하고, 각자 개인의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상상력이 중요하다.

지역공동체와 여성 사이의 연관성과 내포된 긴장

여성주의가 유의해야 하는 지점은 지역공동체와 젠더정치의 긴장관계에 있다. 마을에 관한 최근의 무성한 논의들은 공/분리, 성별분업, 정상가족을 중심으로 한 젠더질서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은연중에 여성을 가족의 일원이자 관계중심적 본성을 가진 존재로 상정한다. 이러한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한 지역공동체 운동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해도 단순한 여성동원이나 젠더질서의 고착화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 남성 지식인들이 흔히 도시의 삭막한 인간관계에 대해 한탄하며 잃어버린 낙원 혹은 되돌아가야 할 고향으로서 마을(공동체)를 소환하는 경향, 그러면서 마을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을 주목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계중심성은 공동체를 만드는 원인이 아니라 공동체 만들기 실천의 결과이다. 여성주의적 비판 없이 공동체의 회복을 여성참여와 관련짓는 것은 여성의 성역할과 가부장적 젠더질서의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행정구역으로서의 지역을 공동체로서의 마을로 변환시켜 가는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가 단순한 여성 동원이나 가족주의의 재생산으로 귀결되지 않고 여성주의적 사회변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지역운동을 꾸준히 해왔다”는 언명 이상의 구체적이고 비판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여성주의 관점에서 일구어야 할 지역공동체는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기 보다 질문되고 상상되어야 하는 그 무엇이다(전희경, 2014).

참고문헌

고병권(2014), 『살아가겠다, 삶창』.

라이너 홀(2008), 『오늘날 연대란 무엇인가』, 한울아카데미.

리처드 세넬트(1982), 『현대의 침몰』, 김영일 옮김, 일월서각.

리처드 세넬트(2013), 『투게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김병화 역, 현암사.

밀양구술프로젝트(2014), 『밀양을 살다』, 도서출판 오월의봄.

마리아 미즈·베로니카 벤홀트-툼젠(2013), 『힐러리에게 암소를-자급의 삶은 가능한가』, 꿈지모 옮김, 도서출판 동연.

오구마 에이지(2014), 『사회를 바꾸려면』, 전형배 옮김, 동아시아.

올리히 벡(1997),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홍성태 역, 새물결.

임옥희(2010), 『채식주의자 뱀파이어-폭력의 시대 타자와 공존하기』, 도서출판 여이연.

우에노 치즈코 외(2004), 『경계에서 말한다』, 생각의나무.

전희경(2014), “마을공동체의 ‘공동체성’을 질문하다-서울시 마포·은평 지역 비혼/퀴어 페미니스트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제14권1호.

지그문트 바우만(2009), 『유동하는 공포』, 함규진 역, 산책자.

파커 J. 파머(2012),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김찬호 옮김, 글항아리.

Richard Sennett, 2003/1992, Fall of Public Man, Penguin Books.

3분과

사회적 경제, 여성에게 희망이 될까?

김연순 마을기업 인큐베이터

1. 사회적 경제의 역사

1) 사회적 경제의 태동기

-프랑스에서 1830년 뒤누와이에에 의해 처음 사용됨. 학문의 영역에서 기존 경제학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초기 자본주의 야만성에 의한 다수 민중의 고통 등 사회적 문제 심각한 상황.

-산업혁명의 사회적 문제를 고려한 정치사회적 경제(국가 개입 필요): 지드, 알라스

-실천적 사상으로서 결사체주의자(노동자결사체): 오웬, 생시몽, 푸리에

-공제조합 모델 주창. 노동자, 농민 위한 신용대출과 보험제도 발전에 기여: 라이 파이젠

-영국 로치데일의 영향 받아 소비자협동조합의 중요성 주장한 연대주의자: 지드

-사적 소유 부정하고 공제조합 설립하여 시민-생산자 주권 보장하는 신용대출제도 주장한 무정부주의자: 푸르동, 크로포트킨

-노동자들의 결사체에 의한 임금노동제도 폐지 주장한 밀과 대중결사체 지지한 알라스(자유주의자)

• 사회적 경제는 다양한 사상의 교차로에 위치. (노동자)결사체의 이상을 가졌으며 소유, 이윤, 사회적 불평등, 경쟁 같은 시장의 작동 메커니즘을 비판한 점에서 이들을 사회적경제의 선구자로 부름.

2) 20세기 초반의 사회적 경제

-20세기 들어 사회적경제는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대안경제사상으로서의 지위 상실함

-마르크시즘의 전파 및 노동조합 탄생으로 인해 노동자결사체의 이상을 가진 사회적 경제가 더 이상 노동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유일한 실천방안이 되지 않음

-2차 세계대전 후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으로 인해 다수 노동자와 그 가족의 위험이 공제조합이 아닌 국가제도에 의해 보호됨

-기술발전으로 시장을 통한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노동계층의 생활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

-협동조합 진영은 파편적으로 존재하던 협동조합에 대한 이론 및 운영원칙이 정립되고, 부문별 조직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짐

3) 1970년대 이후의 사회적 경제

-1970년대 이후 전 세계를 강타한 경제위기는 사회적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됨.
-시장은 노동자를 몰아내고, 시장의 역동성에 의지하던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도 늘어나는 실업빈곤층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며 복지국가의 위기 도래함.
-80년대 들어 금융자본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의한 국가주의에 대한 비판
-90년대 중반부터 새로운 사회운동 탄생, 제도화된 사회적 경제를 비판하는 연대의 경제 등장. 남미, 아프리카 등에서도 각기 다른 이름으로 비공식경제, 민중경제, 연대의 경제, 새로운 사회적 경제로 불리는 이 모든 개념은 제도화된 사회적 경제를 쇠신하면서도 애초 사회적 경제가 가졌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수렴되기 시작. 이 운동은 21세기 들어 다른 세계화를 위한 이념으로 세계시민사회의 공통분모가 됨.

2. 사회적 경제의 의미

1) 넓은 의미의 사회적 경제

-남미를 중심으로 등장한 민중경제, 80년대 유럽에서 등장해 남미 및 아프리카로 확산된 연대의 경제 개념을 포괄함.
-애초의 사회적 경제의 정신을 계승하려는 의지, 사회적 경제 전통의 연장선상.
-한국사회의 시민사회 진영에서 논의되는 개념과 가까움.

• 인간관계까지 상품화된 사회, 금융자본의 이익추구를 위해 환경 파괴하는 사회, 남북간의 불평등 등 종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경제적인 문제 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사회를 추구함.

2) 좁은 의미의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의 축소: 자본주의기업과는 다른 경제활동방식
-사회적 경제의 특성
(1) 궁극적 목적이 이윤추구가 아닌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2) 운영(경영)의 자율성
(3) 구성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
(4) 잉여 분배에 있어 사람과 사회적 목적이 자본에 우선함

• 오늘날 사회적 경제는 사상이나 학문이 아닌 '경제조직'으로 인식되고 있음.

3.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접근-문제의식

- 1) 한국시민사회조직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접근은 어떠한가?
- 2) 여성운동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접근은 어떠한가?
- 3) 풀뿌리 여성조직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접근은 어떠한가?

• 여성 일자리창출로서의 접근

-그동안의 여성일자리 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노동시장에 경력단절 여성을 진입하는데 주력함. 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는 지난 10년간 정체되어 있고, 기존 일자리 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에 효과적이지 못했음

-울리히 벡(Ulrich Beck)은 현재 기업 이윤창출과 임금노동 중심의 노동사회가 점차 비공식 영역에 있던 영역이 공식영역으로 확대되고, 공공이익과 유연노동 중심의 시민노동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함. 그리고 기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이탈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시민노동사회의 원동력이 될 것임을 언급함

-실제로 사회적경제 영역의 생성과 성장은 현재 노동시장 중심, 경제성장 중심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줌. 사회적기업의 고용인의 61.1%가 여성이라는 점은 사회적 경제 영역이 여성에게 일자리 문제의 새로운 대안일 수 있음을 보여줌

4. 전망과 대안: 여성협동조합에 대한 의미부여 및 확산

1)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1) 협동조합의 정체성 공유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결사체.

A Cooperative is an autonomous association of persons united voluntarily to meet their common economic and social needs and aspirations through a jointly-owned and democratically-enterprise (by ICA) 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2) 협동조합의 운영원칙 공유

제1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제2원칙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제3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제4원칙 자치와 독립

제5원칙 교육, 훈련 및 정보교류의 원칙

제6원칙 협동조합 간 협동

제7원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2) 여성협동조합의 정의

-여성 조합원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협동조합

-세 가지 특성이 한 가지 이상 나타날 수 있음

(1) 여성들이 소비자나 생산자의 주 구성원이 되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를 충족함

(2) 여성주의적 가치를 표방하지 않아도 일상적으로 여성주의적 가치를 지향함

(3) 여성들이 생애주기에 따라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대안적 노동형태를 제공함

3) 여성협동조합 생태계조성을 위한 필요

-성별통계의 축적 필요

-민주적인 소통 훈련과 참여 구조의 마련의 필요

-조합의 조건과 단계에 맞는 적절한 교육과 지원의 필요성

-여성협동조합 인력 지원 필요

-기타 세금 및 카드 수수료 등의 지원 요구

-지역 단위 협동조합 네트워크의 필요성과 참여의 어려움

4)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의 필요성

-지역 협동조합네트워크에서 지원이 필요한 활동 파악

-교육 공간의 지원과 인적 자원의 연결

-협동조합간의 인력자원을 서로 연결 활용하는 방식. 예를 들어 안정기에 접어든 조합과 신규조합, 큰 조합과 작은 조합의 연결 필요

-경험 있는 여성들을 멘토로 연결함. 지역과 마을에서 협동조합을 준비하거나 결성하는 여성들을 위해 일상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는 멘토 여성들의 연결

-협동조합의 회계와 실무를 지원할 전담조직을 만들거나 지원. 준비와 결성 과정 및 어느 정도 성장단계에 있는 조합들도 대부분 회계처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지역 네트워크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

5) 사회적 경제 간 상호거래 사례: 행복한마켓

-주최: 행복중심 서울동북생협

-주관: '행복한 이야기' 운영위원회, 참여기업들

-장소: 도봉구 마을북카페 '행복한이야기'

-일시: 월1회 개최/ 매월 첫째주 수요일 오후12시~오후6시

2013년 11월~2014년 10월 현재 총 11회 진행 중.

-취지: 마을북카페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상호거래를 통한 신뢰 형성

-참여업체: 협동조합 감중은공방(2013 선정 마을기업)

협동조합 초록폴씨

수유화개(사회적기업)

세움카페(2011 선정 마을기업)

행복중심동북생협 등

- 성과: '협동조합간의 협동' 실현/ 지역사회 내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이해/ 공동사업 추진(마을학교) / 도봉구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및 매출 신장의 기회 제공/ 참여기업들은 매출의 5%를 '행복한이야기'에 기부하고, 기부금은 전액 지역사회에 환원할 예정



거버넌스와 제도화 전략은 여성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김성미경 인천여성연변화 전 회장

뜨거운 감자다. 양날의 칼이다.

여성운동진영에서 환상적인 커플이었던 거버넌스와 제도화는 우리 곁에 이런 모습으로 있다. 거버넌스와 제도화에 대한 깊은 고민과 생각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고 2008년 즈음엔 더 이상의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채 현장에 고민만 무성하다.

운동 재생산의 약화, 탈정치화, 핫 한 이슈들은 메말라 가고 여성운동의 현장은 매일 매일 서류더미에 묻히고 사회복지사인지, 구청 공무원인지, 여성운동가인지 알 수 없는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며 똑같은 일상에 지쳐간다. 생기발랄한 어린 여성운동가 새싹들은 찾기 힘들다. 사회정의도 실현해야 하지만, 생계도 유지해야겠고, 조직도 유지해야 하는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이 여성운동가들의 어깨에 올려져 있다. 시민 없는 시민운동, 여성 없는 여성운동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와 위기감은 이제 일상화 되어 있는 듯하다.

이런 이야기들은 마뜩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저기에서 지역여성들과 함께 지역을 바꾸고 젠더이슈를 사람들과 나누며 자연과 생명, 삶의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잔잔한 활동을 하는 운동가들도 생겨났다. 여성들을 위한, 여성들에 의한, 여성들의 다양한 방식의 체제 저항운동은 이제 조금씩 싹을 틔우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여기 두 번째 한국여성회의에서 제도화와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는 이제 어둡고 힘든 여성운동의 현실에 대해 나누고자 함이 아니다. 문제는 진단하고 그 문제를 인정하는 지점에서 출발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의 에너지를 모아 가기 위해서 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 그 시작이 바로 여성운동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의 반을 시작한 것이다.

우선 거버넌스와 제도화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대략이라도 합의를 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여러 연구자들이 논문등에 정의한 자료들을 차용해 볼까 한다.

거버넌스는 말 그대로 민관 협치를 의미한다. 운동의 제도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 출발인 셈이다. 오늘 토론의 장에서는 거버넌스와 제도화를 분리해서 다루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거버넌스는 운동의 제도화 과정에서의 환상이다. 거버넌스에 대한 이상과 현실의 갭이 너무 컸다는 것이다.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지속적이지 않다. 국가권력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바뀌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이슈를 제도화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슈를 담아낼 정부입장에서는 운동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 담당자와 한 테이블에 초대된 운동의 전문가들이 법제화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고 대부분은 이 과정에서 국가의 통치이념에 맞게 일차 조정되거나 삭제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라도 제도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추진하지만 여기에서부터 균열은 생긴다. 이미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것이다. 법제도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협상의 테이블엔 더 이상 초대되지 않는다. 정부의 입맛에 맞는 그 분야의 다른 전문가들(복지, 정책, 민간연구기관, 연구자들)과 결탁하여 한편은 로비스트로, 한편은 그것을 업으로 삼는 시장이 형성되고 비판과 견제의 능력은 상실된 채 형식적 민주주의 형태로만 존재하게 된다.

제도화에 대한 정의는 다 알다시피 여러 학자들이 사회운동을 어떻게 정의하고 보느냐에 따라 약간의 다른 견해를 내 놓고 있지만 “제도화”란 국가를 비롯한 여타 조직들과의 관계에서 일상적이고 관례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운동이 반복적이고 자기 유지적인 과정으로 접어드는 현상(신상숙 2008)이라고 본다.

그 특징으로는

- ① 자원이 안정된다.
- ② 운동조직의 목적이 온건해 진다.
- ③ 정치적 행동양식이 관례화 되거나 형식화 된다.
- ④ 이익갈등의 중재역할을 하는 기존 제도정치에 편입된다. (김은미 2000, Meyer and Tarrow 1998)

이며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① 일상화(routinization): 제도권 행위자와 운동세력이 공동의 각본에 의지하고 위협상황과 서로 익숙한 유형들로 공유되는 것
- ② 포섭과 주변화(inclusion and marginalization): 제도적 절차를 준수하는 세력은 제도 내 거래에 참여할 수 있지만 절차를 거부하면 억압당하거나 존재자체가 무시됨으로 대화의 장에서 배제된다.
- ③ 흡수(cooptation): 운동세력이 이미 자리한 정치관행을 파괴하지 않는 선으로 자신들의 주장이나 전술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김은미 2000, Meyer and Tarrow 1998)

장점으로는 ‘익숙한 절차와 관례에 따르는 방식들을 통해서 운동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고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여유 있는 재정적 기반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단점으로 이념적 합의와 열정이 식어 운동단체에서 탈퇴하는 운동가들이 생기며 지지

자들을 끌어들이는 호소력이 약화되고 여론이나 지식인들의 주위를 끄는 힘이 약화된다고 보았다.

제도화의 초기 단계에서는 가시적인 동원행위가 지속되기도 하고 제도화 과정 자체가 동원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제도화 수준이 어떤 한계를 유지한다면 동원이 계속 유지되고 경우에 따라 가속화되기도 한다. (김은미 2000, Meyer and Tarrow 1998)

이에 관해 제도화가 관료화와 동원을 둘 다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으며 제도화 과정과 동원은 적대적 관계가 아니며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운동의 서로 다른 측면의 강조가 다른 국면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Oommen1990)

그렇다면 제도화 관련하여 이러한 질문들이 가능하다.

지금 지역정치는 실질적 자치인가, 형식적 자치인가?, 또한 지역운동은 대중화되었고 안정되었는가 아니면 자발적 참여가 안 되고 위축되었는가?, 지역시민사회는 지역주민들의 주체적 참여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소수 전문가들의 참여에 의존하는가? (김은미 2000)

지금 현재 우리의 문제는 이슈의 제도화가 아닌 운동방식의 제도화에 대한 것이다.

지금 여성운동진영, 특히 인권운동의 경우 많은 상담소와 쉼터,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는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단체는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의 간섭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지점이다.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지급을 통해서 어떻게 단체와 관계를 맺어왔는가와 관련한 역사를 보면 젠더주류화와 거버넌스를 통한 제도화가 얼마나 아찔한 선택이었는지 알 수 있다. 과거 관변단체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어 오던 관행을 민주정부시절에 시민사회단체 영역으로 넓혔고 관변단체에 요구했던 관행대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에게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하는 대리인 역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 두 번째는 여성 정치세력화에서의 문제이다.

여성운동의 끝은 정치권 진입이라는 의심의 눈총을 받으며 많은 여성운동가 출신의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을 진출시켰다. 여성운동에서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에 여성운동 경험자들이 진출하는 것은 여성운동에 있어 중요한 제도화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은 제도정치 안에서 여성정치인들은 자율적 결정권행사를 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당 안에 기존의 계보에 줄을 서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한국의 계파정치 소용돌이 속에서 여성운동, 혹은 시민운동가 출신의 정치인들은 운동단체와 관계를 끊거나 멀리 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 활동의 입지가 좁아져 갔다. 물론 여성정치인들의 청렴성과 여성의제의 정책화와 지역 밀착형 정치의 모델을 보여주고 참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의 운동세력이 제도정치권 안에서 정치제도를 바꾸고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지금처럼 여성운동 조직들이 배출한 여성정치인의 관계를 끊고 정치적 중립을 부르짖는 한, 여성정치세력화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일 뿐이다. 그리고 더불어 “여성정치세력화”가 기존의 정치권 안

에 정치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협소하게 생각한다면 정치세력화 운동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

참여의 정치는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닌 실질적 민주주의의 장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제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과 ‘정치적 세력화’가 되는 공론의 장과 경험의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버넌스는 진정한 의미의 협치가 아니었으며 제도화는 여성운동을 신자유주의 시장으로 만들었다. 운동의 급진성을 약화시키고 국가권력에 의존하게 하고 자율성을 상실하게 하며 수동화되었고 알아서 조율하고 스스로 아주 착해지지 않았는가?

이제 질문한다.

1. 제도화는 여성운동의 전략적 선택이었는가, 필연의 귀결인가?
2. 제도화는 여성운동을 활성화 시키고 있는가, 침체시키는가?
3. 여성운동의 주체성과 체제변혁적 급진성을 찾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해야 한다.

지금 끝!

여성학과 여성운동의 관계 : 더 오래 물어야 할 질문

허성우 성공회대 교수, 실천여성학

1. 사회적 신체로서의 여성주의

10여년 이전부터 한국 여성주의(여성학과 여성운동)는 그것의 제도화로 인한 급진성의 상실, 반여성주의 문화로부터의 위협, 신자유주의 경제 원리의 인간의 몸, 일상과 사회적 수준 등에 대한 깊은 침윤으로 인한 여성주의(다른 진보적 가치들)로부터의 무/의식적 이탈과 같은 현상들을 위기적 징후들로 해석해 왔다. 여성주의가 축소되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소멸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은 일각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한편 전혀 다른 입장에서 혹자들은 이제 남녀평등이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로도 그렇게 된다면 여성주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사라질 것이라는 자연적 소멸론의 입장도 있다.

여성주의에 대한 정의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이 많다. 여성주의는 타자화된 여성과 복수적 성적 존재들이 놓인 각각의 위치성 안에서 인간 존재와 삶,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과 움직임, 그것의 변화를 포착하려는 하나의 인식론이자 정치학이다. 따라서 여성주의는 그것을 정의하고 구성하는 주체들의 인문지리적 의미에서의 시공간 위치성에 따라서 다르고, 달라야 하며, 달라져야만 한다.

나는 여성주의는 하나의 사회적 신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신체는 우리가 인지하는, 혹은 인지하지 못하는, 그리고 인지 가능한, 혹은 인지 불가능한 역사적 사회적 DNA와 세포들로 인해 탄생하고 변화해 간다. 모든 생물학은 담론적 사회적 구성물이며(도나 해러웨이), 따라서 모든 신체 또한 그런 것이다. 인간의 신체는 죽음이라는 생물학적 기능의 특정한 소멸 상태에서 종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죽음 이후 인간의 신체는 어떤 다른 종류의 우주적 자연적 신체로 변화해 갈 수 있다(혹은 그렇게 믿는다). 인간과 사회현상을 생성, 확장, 소멸이라는 단선적 과정, 그리고 이는 필연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직선적 시간과정에서 전개될 것으로 보는 것은 ‘팔루스의 법칙’이다. 그러나 다르게 보면 어떤 사회적 신체의 ‘소멸’은 곧 다른 신체(다른 시간과 공간)로의 이동이자 전환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회적 신체라는 은유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여성주의라는 사회적 신체는 생성, 확장, 소멸 과정을 거쳐 사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자기생명을 유지해 가는 생명체라는 점이다. 그것은 스스로 자기 위치와 조건을 충족하는 세포 변형을 할 것이지만, 사회적 생명으로서의 여성주의의 완전한 소멸이란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의 인류역사가 보여주는 바처럼, 여성주의는 어느

시-공간에서는 자취를 감춘 듯 하지만 다른 시-공간에서는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한국 여성주의는 발육부진이거나 혹은 노쇠했는가, 아니면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아파하며 소멸해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곳곳에서 작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며 성장시키고 있는가? 우리의 직접적 감각을 넘어서는 방대한 시공간에서 자라왔던 여성주의라는 사회적 신체는 지속될 것이며 여성주의 그 자체보다 여성주의자 개인들이 먼저 신체적 죽음이라 불리는 때를 맞이해 왔다. 하여, 여성주의의 건강을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그것의 죽음을 걱정하지는 말자. 그것이 언제 아플지 언제 소멸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 답할 수 없는 문제이다. 물어야 할 것, 물을 수 있는 것은 여성주의자들 각각이 정말 ‘여성주의’를 원하는가 그리고 ‘어떤’ 여성주의를 말하고 실천하고 싶은가 일 것이다.

2. 여성학과 여성운동은 여성주의라는 사회적 신체의 일부이다

여성주의는 서구에서나 한국에서나 타자화된 여성들의 억압과 차별 경험에 대한 거절과 저항, 그리고 그것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하려는 개인적 집합적 행동, 즉 우리가 여성운동이라 명명한 현상으로부터 출현했다. 18세기 서구 유토피아 사회주의 여/남성들의 성적 해방 공동체의 실험들, 근대 국가 건설과정에 개입하며 저항했던 자유주의 여성주의자들과 양차 대전기 사회주의, 혹은 무정부주의 여성주의자들의 활동, 그리고 1960년대의 신좌파 운동 내부의 여성들이 급진적이고 독자적인 여성운동을 만들어 내기까지 세기들을 거쳐 여성운동이 축적되어왔다. 60년대 말 경 서구 여성주의자들은 모든 학문이 타자화된 여성들의 경험과 존재, 욕망을 배제한 담론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여성해방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자 했다. 신좌파 여성활동가들과 대학 내 연구진영 내부의 여성주의자들이 본격적으로 대학 내부로 들어가 여성주의적 지식 생산체계를 만들고자 한 것이 여성학 발생의 역사적 맥락이다.

한국 여성운동은 서구와 달리 19세기 말 여성들의 반제국주의 민족해방운동 과정에서 출발했다. 식민지 시기, 해방 직후, 전쟁 이후와 독재시기에 여성들은 자유주의적 민족해방 운동, 항일 무장투쟁, 건국활동에의 참여-동원, 그리고 반독재 투쟁들을 통해 여성이라는 인간의 존엄성과 차별적 권리, 억압에 대한 저항을 실천해 왔다. 한국 여성학은 1970년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여성을 남성과 같은 인간으로 선언하고 평등한 민주적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원했던 ‘새로운’ 여성운동의 큰 파장 안에서, 그리고 UN 중심의 글로벌 여성운동에서 영향을 입으며 이화여대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 70년대 후반 이래 여성학은 대학 교육을 통해 새로운 해방적 인간상을 만들고자 했고, 성차별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심리, 역사, 제도와 법적 측면들에 대한 조사와 연구, 교육을 펼치면서 여성운동의 일부이자 대학 내 학문 공동체의 일부이자 비판자로서 자리매김해 왔다.

즉, 서구에서나 한국에서 여성학은 여성주의라는 한 뿔줄을 감고 나온 생명이었다. 여성학과 여성운동은 여성주의라는 사회적 신체의 일부이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 여성학과 여성운동 사이에 거리가 있으며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제가 등장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가.

3. 여성학과 여성운동의 거리감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80년대에 시작된 ‘또하나의문화’는 여성학자들이 실천한 여성운동 기획이었다. 초기 여성학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초기 조사와 운동에 지대한 역할을 했고 한국 성폭력 상담소 운동은 여성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조직이다. 90년대 후반 서울과 부산, 대구 등 몇 도시에서 등장했던 ‘영 페미니즘’은 대학 내 여성학과 뿔뿔이 뿔 수 없이 밀접한 관계 속에서 자라났다. 졸업 이후 사회로 진출한 ‘영 페미니스트’들이 만들어 낸 크고 작은 온 오프라인 조직들에서 여성주의 감성과 사유는 그들의 정체성이자 삶의 윤리이자 일상의 문화를 채우는 언어가 된다. 여성학은 또한 여성운동 의제의 제도화 과정에도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운동적 실천을 해 오고 있다.

한편 90년대 후반부터(조주현, 1996) 2000년대 초반(윤정숙, 2004, 2005; 조순경, 2000; 조주현, 2000)에 걸쳐 여성학과 여성운동 사이의 단절과 괴리를 토로해 왔던 것은 ‘진보’여성운동 활동가들이었다. 양자 사이에 벌어진 거리는 초기 한국 여성학 형성과 발달의 구조적 맥락적 특성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진보’ 여성운동이 원했던 맑스주의 정치경제학 혹은 비판적 사회과학과 급진적 여성주의의 성 정치 언어들을 연결하고 접합하는 여성학 자원들은 축적되어 있지 않았고 그것은 현재까지도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¹⁾

대부분 80년대 학생운동 출신이었던 ‘진보’ 여성활동가들은 구 사회주의권의 변화 이후 그들이 의존하던 맑스주의/사회주의 사상을 대체할만한 다른 대안적 사상을 찾고자 했다. 이를 위해 민주화 이전 시기와 같이 남성중심적 사회과학에 의존하기를 원치 않았지만 그렇다고 여성학에 기대거나 그들 스스로 학문의 제도권으로 들어가기에 문턱은 높았다. 당시 여성학에는 맑스주의 정치경제학과는 상당히 다른 결의 성의 정치학 언어가 흥미했고 계급-민족의 정치학에 익숙했던 여성활동가들은 성 정치 언어에 모종의 거부감이나 낯설음을 보였다.

여성학이 어떤 여성운동과는 친화력을 가지며 어떤 여성운동과는 덜 친화력을 갖는 데에는 여성운동의 역사적 맥락도 존재한다. ‘진보’ 여성운동이 최고의 사회 정치적 영향력을 구가하던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그 안에는 여성학=이론, 여성운동=실천이라는 이분법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지금도 이 이분법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지는 않다. 수십 년간 의미 있는 여성학적 지식들이 상당히 생산되었으나 진보 여성활동가들은 그것을 그만큼 의미 있게 보지 않았던 것 같다. 맑스의 자본론이 왜 그리 어렵냐고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여성학은 너무 현학적이고 어렵다고 했다. 모든 기초 학문이 어려운 데 여성학만이 쉬워야만 할 이유는 없다. 어려운 여성학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쉬운 번역을 할 사람은 오히려 학계의 생리구조 안에서 생존해야 하는 연구자들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 활동가들일 것이다.

1 예를 들어 JK 김순 그래엄, 2013은 비판적 정치경제학과 탈근대 성정치 담론을 통합한다. 여성학 자체가 하나의 지적 실천적 경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또 다른 논제이다.

4. 여성주의라는 사회적 신체의 모든 부분들을 존중하기

여성학 지식, 곧 여성주의 사상은 여성운동 활동가에게는 일용할 영혼의 양식과 같다. 여성학 지식을 접하는 것이 여성운동 활동의 일부가 되고, 생활의 일부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 양식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인 여성활동가는 여성학 지식을 전문적으로 갖춰야 하는가? 그렇다. 전문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학위과정을 마쳐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여성활동가들이 여성주의를 공부하는 방식은 주로 여성학 전문가들의 일회적 교육이나 간헐적인 세미나 등에 의존한다. 가장 좋은 방식은 자기 활동 의제에 관련된 논문과 책 등 정보를 수집하여 공부하고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며 의제를 분석할 힘을 갖는 것이다. 여성운동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여성학 교육이기도 하지만, 의제 구성을 위한 여성학적 조사 연구이기도 하다. 이 때 여성학 전문가들의 도움을 적절하게 받는 것이 필요하다. 분야별 여성학 연구자들에게 자문을 구해 주요한 지적 경향들을 파악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이 필요하다. 활동가들은 자신들의 문제의식과 필요를 분명히 인식해야 하고 그럴 때 연구자들과 평등한 위치를 가지게 될 것이며, 연구자들로 하여금 여성운동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받아내는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다.

도전적인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여성주의가 하나가 아니며 여성운동도 하나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여성주의에 대한 간결하고 대중적으로 설득력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언어가 있다. ‘남녀평등’과 양성평등이다. 이것은 누구의 정의이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성차별에 저항하고자 한 여성주의가 성차를 인정하게 된 역설에 처한다. 누군가는 젠더를 말한다. 젠더는 스스로 자기 존재를 구성할 수 있는가? 누군가는 젠더 없는 섹슈얼리티를 말한다. 누군가는 젠더-계급을 말하고 누군가는 섹슈얼리티-계급을 말한다. 또 누군가는 섹슈얼리티-계급-인종을 말한다. 여성주의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고 여럿의 여성주의들에 많은 다른 요소들이 섞여서 만들어내는 세포들이 시간과 공간들을 통과하며 변화하고 팽창해 가는 사회적 신체이다. 축적된 여성주의의 층들을 보고 자신의 위치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보고 다시 설정하고 다시 확인하는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생산하는 일꾼도 있다. 한국 여성학 지식생산 풀은 여성학을 포함하여 여러 분과학문 내 젠더 전공자들의 수를 보면 양적으로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 그러나 실상은 여성학적 관점에서 여성운동을 포함한 노동, 성, 가족, 문화, 정치, 경제, 정책, 평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적절한 연구자와 교육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대학의 구조조정과 평가제를 통한 경쟁구도 속에서 여성학 연구자들 중 많은 사람이 생존을 위해 공공기관에 들어가게 되고, 여성주의의 제도화의 이중적 성공의 평행선은 각기 제 길을 달린다. 대학에 소속된 연구자들은 기업화된 대학 정책에 부응하는 프로젝트 수행과 연구실적 압력 그리고 행정적 실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롭고 비판적이며 해방적 삶을 살아가는 지식인을 허용하지 않는 제도화된 대학 내 여성학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여성활동가의 재생산뿐만 아니라 여성학연구자의 재생산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이런 사정에서 나는 여성활동가들 중 대학 내 학위과정을 통해 여성운동 조직 내의 전문적인 연구자와 교육자가 되는 사람들이 소수라도 더 늘어나기를 바란다.

여성학과 여성운동이 탈구되고, 이들이 다른 부분들과 다시 접합하지 못하면 그것은 여성주의라는

신체에서 떨어져 나온 보잘 것 없는 부속품들로서 실제 가치에 비해 턱없이 싼 값으로 장기매매 시장에서 거래되어 팔려 나갈지도 모른다. 이렇게 된다면 '주이쌍스'에 찬 몸의 기쁜 성장이 아니라 가진 자들의 소유의 축적과 지배의 쾌락에 기여할 것이다. 여성주의 신체의 건강한 생명은 서로 다른 시공간적 차이를 내포한 그것의 모든 층위와 요소들의 편안한 집합, 즉 친밀한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6분과

여성운동의 활동가 재생산, 어떻게 할 것인가?

몽 언니네트워크 사무국장

1. 여성운동의 활동가 재생산: 어떤 '위기'인가

(1) 모든 운동이 다 '위기'라고 하는데,

- 일반(여성)과의 괴리, 자발적 참여 부족, 개인/인물 중심의 운동, 조직이기주의, 자원 없음, 전망 부재, 사회적 연대 부족, 폐쇄성,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민주적인 소통 방법론 부재, 운동세대간 단절, 운동의 제도화 및 관료화, 과잉노동, 관성화된 운동, 인정체계 부족, 대중적인 설득력과 지지기반의 부족, 불명확한 조직 목적,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부재, 의제설정의 어려움, 운동의 사회복지화, (여성)주의에 대한 사회적 반발/혐오/전유, 희생과 헌신 강요, 학내 (여성)주의 운동의 약화, 경험 부족 및 전문성 결여, 새로운 이슈 발굴의 강박, 활동가 정체성의 혼란, 재정자립의 어려움, 프로젝트성 혹은 일시적인 이슈 중심의 운동, 생계유지의 어려움 ...

(2) 그런데 '어떤' 재생산의 위기인가?

- 새로운 여성주의자를 재생산하는 문제

: 여성주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여성주의가 문제적인 이유는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할 때의 막막함

: 여성주의가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성주의 활동을 자신의 삶의 전망에 위치시키지 않는 '똑똑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여성주의자들을 만날 때의 당혹스러움

- 여성주의 활동가의 '자기' 재생산 문제

: "너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충격

: "여성주의 활동가의 삶이 여성주의자라면 누구나 하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말을 들을 때의 이중 감정

: 자신의 운동 현장을 이론화할 수 있는 조건이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은 답답함

: 전문가의 분석 옆에 자리한 실무자의 사례로 불러 다닐 때의 허탈함

- 여성'단체/조직' 활동가를 재생산하는 문제
 - :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망, 다른 삶에 대한 가치 지향, 여성주의자로서의 성장이나 보람, 공유된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한 헌신, 공동의 변화를 위한 사회적 연대 - 단체/조직에서 추구되기 어렵다는 무능력
 - : 삶을 재조직하는 선택이 다른 자원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결과를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부당함

(3) 활동가 재생산 이슈가 놓여 있는 상황

- '모든 조건이 동시적·복합적으로 결부된 문제다.'
-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돌파해 나가기 어렵다.'
- '세대를 불문하고 모두가 힘들다.'
-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한다.'

※ 이 모든 문제들에 고민이 다 필요하지만, 모든 것을 이야기하려다가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2. 문제, 조건, 원인, 결과

(1) 무엇이 여성주의 활동가 재생산의 위기로 이야기되는가.

-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대학 여성주의 운동을 다룬 논문들에서의 영페미니즘
 - : 현재 여성운동의 어떤 위기(운동세대 간 단절, 라이프스타일 페미니즘의 확대, 페미니스트 재생산 위기, 단체/조직화 혹은 정치세력화에 대한 경시, 자기 자신에 대한 집중을 넘어선 고립, 개별화의 심화, 차이의 정치학의 왜곡, 탈정치화의 위협 등) 진단의 근거이자, 원인이자, 역사로 소환되거나
 - : '새로운', '급진적인', '젊은', '매력적인' 여성주의 운동에 대한 향수, 혹은 가능성에 대한 기대로 소환되거나
- 지켜온 질문, 관심 없는 대답
 - : "그때 그 '영' 페미니스트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 : "그래서 요즘 대학 페미니스트들은 다들 어디에서 뭘 하고 지내나요?"
- 여성주의 활동가의 재생산에서 '새로운 단체/조직/상근 활동가 충원' 외에 대학/젊은/새로운 여성주의자가 호명되는 것은 언제인가 (폼이 덜 드는 인적자원)

(2) 무엇이 '전망'으로 존재하는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다들 너무 많다. 정말 다들 몸이 축나도록 활동한다. 그만두면 얼굴이 다들 편다. 그런데도 차고 넘친다. 나는 구굴이고 네이비고 싶다. 훌륭한 기자였으면 싶다. 최고의 강사, 새끈한 기획자, 열혈 투쟁가, 모금가, 그리고 또또..."

- 지금 현재 활동가 자기재생산의 위기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문제가 되는가에 대한 논의는 너무 부족한 상태인데 반해,
 - "여성주의자, 여성주의 활동가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직/상근 활동가로 살고 싶지 않다"는,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의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조직에게 "너나 잘 하세요"라는 것)
 - : 조직/정치화/세력화에 대한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 이전에, 그것을 위해서 어떤 조건이 자기 재생산에 위협이 되지 않는가에 대한 차선의 판단 (고용불안, 불투명한 취업전망, 비정규직 등의 조건에서 "이렇게는 살 수 없어서" 아르바이트는 하지만, 전업 활동가는 염두에 두지 않는다.)
 - : 이것을 현재 '나 중심의 주체 인식에 익숙한 세대'로만 설명하고 있는 상황
 - : 오히려, '우리'라는 공적/집단적 주체가 되는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공간, 기회로서 (단순히 취향과 조건에 따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혹은 단체/활동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답하기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
- 무엇이 그 삶에 '전망'을 가져다 줄 수 있나?

3. '어떻게'와 '왜'

(1) 여성운동의 활동가 재생산, 어떻게?: 실천력의 문제

- 장애여성공감의 여성주의 활동가 재생산의 문제는 여성운동과 사회복지 사이의 긴장을 피해갈 수 없지만 언니네트워크와는 대체로 무관 / 언니네트워크의 경우 이전까지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의 경험을 가진 구성원들이 자신의 관계에서 주변인들이 새로운 활동가를 '끌어오는' 경로, 대학 여성주의 운동의 약화는 직접적으로 단체의 재생산에 큰 영향, 채용 형태를 가진 조직과는 상대적으로 다른 재생산 경로
- 재생산 위기의 현황과 실태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 문제를 파악하고 원인을 진단하는 것도 각기 다를 수밖에 없고 < 일괄적인 전망과 대안이라는 것 역시 불가능

(2) 하지만 '왜 해야 하는가'라는 공동의 질문

- 여성운동 활동가 재생산의 '위기'에 대한 해석, 조건과 원인에 대한 판단: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여성운동의 그림
- 동일한 입장과 동일한 해답이 아니라, 공유된 문제의식: 어떤 조건이 지속/변화되어야 여성주의 활동을 자신의 삶의 문제로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인가
- 정말 스스로에게도 '여성운동 활동가 재생산'이 그렇게 절실한가 질문 필요
 - : '누구나' 활동가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아무나' 활동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의 차이가 있는가.
 - : 자기재생산이 불가능한 조직이라는 결과가 변하지 않는 이상, '마음'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지 않다. 모두들 안녕하지 않지만 아무리 모여서 '재생산'을 이야기해도, 돌파할 수 있는 대안이나 전망이 없다.

농업과 먹거리의 위기, 여성운동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김신효정 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한 줌의 농민, 밥상은 어떻게 차려질 수 있는가?

시절이 하수상하다. 정부는 농민들과 어떠한 상의 없이, 어떠한 대비도 없이 쌀 수입개방을 발표했다. 그나마 한국 식량자급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쌀마저 이제는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과연 식량을 지켜내는 것은 누구의 몫일까? 농민들의 책임일까? 쌀을 비롯하여 모든 농산물이 수입 개방되면 어떻게 될까? 언젠가 농민이 사라진다면 우린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 생협에서 공정무역으로 수입한 유기농산물을 사먹으면 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을 먹어야 하는 것일까?

식량을 지킬 권리와 의무는 매일 밥상을 차리고 음식을 소비하는 우리 모두의 몫이다. 우리 개개인이 주권을 가지고 있든 우리 모두는 식량주권 보장을 이야기하고 지켜낼 책임이 있다. 식량주권이란 생산자가 지속가능하게 식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안전하게 식량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식량주권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스스로의 식량 체계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민중의 권리이다. 또한 자신의 땅에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건강한 식량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식량주권을 외치는 여성농민운동은 이제 소수자 운동이 되어버린 것 같다. 20세기 한국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사회구조가 변동했고 급속한 도시화와 이농현상으로 인해 농촌인구는 대폭 감소했다. 농업의 여성화, 고령화, 빈곤화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가 되었다. 한 줌의 농민들이 경작하는 농산물로 대다수 인구의 밥상이 차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나마도 이젠 어려운 상황, 아니 멸종의 상황이다. 현재의 농업과 먹거리 위기는 단순히 '농민 생존권'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우리 모두가 관여하고 있는 '식량주권'의 위협이다. 이러한 식량주권의 부재 상황에 대해 과연 여성운동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여성농민 당사자 외에 함께 손 내미는 자는 누구인가? 기존 여성운동과 여성농민운동의 연결과 연대는 어떠한가?¹⁾

한편 여성학의 측면에서 여성농민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와 80년대에 다층적으로 활발히 진행되어

1 대표적인 여성농민운동 단체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는 2006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을 탈퇴하고 전국여성연대를 조직했다.

왔지만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구조 변동과 수적으로 소수자가 된 여성농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²⁾ 이렇듯 여성농민에 대한 연구는 지난 20년간 여성학 담론 내에서 도외시 되어왔다. 후 기구조주의의 난해한 여성학 이론과 당장의 생존권을 말하는 여성농민 사이에는 커다란 격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격차를 들여다보면 무엇이 옳고 그르다기보다 여성농민운동이 생각하는 '현실'과 여성학 이론의 '현장'이 각기 다른 지형을 그려내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여성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지금의 여성농민운동을 어떻게 호명하고 어떠한 말 걸기를 할 수 있을까? 이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³⁾의 식량주권운동을 중심으로 농업과 먹거리의 위기 상황에서 여성운동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여성운동, 제도화의 한계를 인정하기

여성농민운동은 제도화에 대해 거는 기대가 미미하다. 전여농을 포함한 여성농민운동 진영의 요구로 2001년에 제정된 '여성농업인육성법'은 반쪽의 성과이다. 이 법으로 인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시도군이 매년 여성농민에 대한 정책의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 것과 땅이 없는 여성도 농업인으로 규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⁴⁾은 성과이지만 실제로 이 법을 추진한 목적을 달성했는지의 여부는 미지수이다. 여성농민운동 진영에서 이 법의 제정을 추진한 목적은 여성농민이 당면한 법적, 사회적, 교육적, 경제적 권리와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실제로 이 법이 제정되고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 권리보장에 있어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또한 이 육성법은 현재 실제 집행과 시행에 있어 권리보장보다는 복지 정책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육성법에 따라 운영되는 여성농업인센터는 그 원래의 목적이 여성농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고충을 해결하며 이러한 권리보장을 위한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아동보육과 노인요양⁵⁾ 등을 위한 복지 시설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으로 현재 이명박 정부 이후로 중앙부처에 여성농민 전담 부서나 담당관은 없는 상황이다. 여성농업인을 지원하는 법은 여성농업인육성법을 비롯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약 65개의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조례가 각 시군별로 제정이 되어있다. 그러나 이 조례들도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이 조례들 중에서 시행규칙이 있는 곳은 2군데인데 그마저도 경기도의 경우 위원구성규칙과 회의 횟수, 수당 지급 등과 같은 내용이 중심이고 실제적인 여성농민에 대한 지원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주도의 경우 시행규칙의 이름 자체가 '제주특별자치도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규칙'으로 자문회의 개

2 여성학 학위논문에서도 지난 20년 간 여성농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학술논문의 경우에도 여성농업인 정책 및 농촌사회 다문화 연구가 소수 존재할 뿐이다.

3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하 전여농)은 1989년에 조직된 여성농민단체이다. 이전에는 전국농민회총연합의 한 분과로 있었으나 1990년대에 이르러 자주적 여성농민운동으로서 독자조직을 결성하였다. 현재 전여농은 9개 도 연합과 60개 시·군 여성농민회로 구성된 약 3만 명의 회원을 둔 조직이다.

4 201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여성농민의 토지소유는 10% 미만이다. 이로 인해 기존의 농지 소유를 중심으로 한 농업인 규정은 여성농민을 법적 농업인으로 규정하지 못했다. 이에 전여농은 농지원부에 여성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90일 이상 농업경역을 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농업인으로 규정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주도했다.

5 올해 개정된 여성농업인육성법은 여성농업인센터의 노인 돌봄, 요양에 대한 역할을 추가로 명시하였다.

최 및 구성에 관한 부분만 담고 있다. 물론 시행규칙의 제정 및 보완을 통해 여성농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기존의 ‘복지’ 프레임 넘어서 여성농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장하기 위한 현실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실 여성운동의 제도화에 대해선 그 성과의 이면에 자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조이어울(2006)은 여성운동의 제도화로 인해 여성운동의 급진성은 보수화되고 운동성은 미약해졌고 여성주의의 원래의 원칙을 잃게 되었다고 비판한다. 특히 연대체 중심의 여성운동은 지나치게 지도자 중심적이고 정치화 되었고 탈급진화 되었다고 설명한다. 정경자(2005)는 페미니스트들이 국가를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운동의 목표와 운동계 전체의 연대에 있어 분열을 초래했음을 지적한다.

사실 여성운동이 법을 만드는 순간 이러한 제도화에 저항하는 운동이 함께 시작되어야 한다. 즉 제도화라는 안과 밖을 동시에 변화시키기 위한 이중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전략을 실천하는 것은 자원과 인력의 어려움을 겪는 여성운동진영에 있어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전여농은 제도화의 한계를 인정하고 제도화를 유지, 개선, 확장하는데 모든 역량을 쓰기보다 여성농민 개인과 지역공동체의 일상적 삶이 변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전여농의 식량주권운동의 일환인 사회적 기업 “언니네 텃밭”은 이러한 전여농의 운동 지향을 보여주는 실례라 할 수 있다.

여성운동의 프레임 전환: 대정부 투쟁에서 당사자 운동으로

“언니네 텃밭”은 기존의 다른 여성을 대변, 대리하는 방식의 여성운동과 법과 정책 중심의 제도화 여성운동을 넘어서서, 마을과 공동체에 기반한 여성 당사자들이 대안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중요한 여성운동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생산자가 농산물 생산을 위해 땅, 물, 씨앗을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식량주권은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그 지역의 문화에 맞는 음식과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식량주권은 민중을 먹이기 위한 식량체계와 정책의 중심을 시장과 기업의 요구가 아니라 생산과, 공급, 소비를 하는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하며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언니네 텃밭은 여성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회복하고, 토종씨앗 지키기, 전통음식문화 보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⁶⁾

현재 “언니네 텃밭”은 ‘얼굴 있는 생산자와 마음을 알아주는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우리 텃밭으로’ 이라는 구호 아래 농촌지역 여성 소농민들의 고용을 창출하여 여성이 중심이 되는 지역 친환경농업의 생산, 가공, 유통체계를 설립하였다. 언니네 텃밭은 제철꾸러미, 장터 등 도농직거래를 통한 여성 소농민

6 전여농 홈페이지 참조.

의 생계보장 및 경제적 자립을 확보하고 토종종자보급 및 친환경농업 확대와 이를 이용한 가공 사업으로 지역먹거리 체계를 세우고자 한다. 2014년 5월 전국 17개의 생산 공동체에서 133명의 여성농민이 생산자로 참여하고 있고⁷⁾ 매달 약 2500명의 개인 및 가족 소비자 회원에게 약 5700개 이상의 꾸러미를 배송하고 있다.

“언니네 텃밭”과 “토종씨앗지키기 운동”⁸⁾을 비롯한 전여농의 식량주권운동은 대정부 투쟁에서 당사자 운동으로의 프레임 전환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전여농은 1990년대에 쌀 자급 및 직불제도 요구, 쌀과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및 수입개방에 대한 투쟁을 적극 벌여왔다. 이러한 우루과이라운드(UR) 반대투쟁, WTO 반대투쟁과 같은 수입개방 반대투쟁은 농민운동과 함께 전개한 운동이었다. 전여농은 농민운동과 한국 농업에 대한 위기를 함께 공유하는 한편 여성농민으로서 학교급식제도 개선 및 급식 무상화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2000년대에 이르러 농업은 무역협정(FTA)과 같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더욱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가와 정부 중심의 농업 체제 하에서 유지되어왔던 농산물 가격보장, 농산물 수매제도 등이 개정, 폐지되면서 여성농민운동뿐만 아니라 전체 농민운동에 위기를 초래하였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전여농은 쌀 수입 개방 반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반대, WTO 각료회의저지를 위한 홍콩원정투쟁,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미국원정투쟁 등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을 중심으로 한 농민운동의 방식은 활동가들에게도 부담으로 느껴졌고 농민운동 자체가 위기를 맞았으며 이에 여성농민운동진영은 새로운 해결책에 대해 더 절실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1990년대에도 여성농민운동진영은 대안에 대해 고민하였지만 이는 대개 ‘정책과제 중심의 제안’에만 머물러 있었고 체제 내에서의 대안제시에만 머물러 있었다(김현진, 2012). 그러나 2000년대에 이르러 신자유주의 세계화 아래 더 이상 출구가 없는 농민운동은 운동방식에 대한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에 전여농은 정부에 대한 투쟁 중심의 운동 프레임에서 개개인의 여성농민이 대안과 변화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전환하게 된다. 이러한 전환에는 더이상 농업 농촌의 문제를 정부나 국가에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농민 개인이 생산의 주인’으로서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여성주의 정치학⁹⁾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식량주권운동과 젠더

신자유주의 농정 하에서 농산물의 가격보장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농민의 생존권 문제는 그 어느 때

- 7 이중 절반 이상이 60대 여성 소농민으로 이들은 언니네 텃밭 운영에 있어 중요한 주체들이다. 이는 농촌의 여성화,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존 복지 수혜 정책 패러다임과 대조적이다.
- 8 2000년대 중반이후 토종씨앗 지키기 운동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토종씨앗지키기 네트워크 ‘씨드림’을 구성하고 유전자원 실태조사를 전개하는 한편 여성농민들이 직접 토종씨앗 채종포 만들어 토종씨앗 농사를 시작하게 된다. 특히 여성농민의 1농가 1토종종자 지키기 사업은 여성농민 스스로 식량주권에 대한 고민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
- 9 한국 사회에서 여성운동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에 저항하는 담론과 실천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성하여 왔다. 사회에서 주변화된 여성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문제를 제기하려는 여성운동은 그 동안 여성의 권리와 지위향상을 위한 법적, 제도적인 변화를 이끌어왔고,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기치답게 우리 사회에서 비가시화 되어온 성폭력과 같은 여성문제들을 공론화하는 역할을 해왔다(이현희, 2004:1).

보다도 절실하며 더 이상 한 국가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여농은 2004년 국제농민운동조직인 ‘비아 캄페시나¹⁰⁾’에 가입하면서 식량주권운동을 여성농민운동의 주요한 전략이자 목표로 가져오게 된다. 황경산(2013)은 젠더불평등을 야기하는 세계식량체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전여농의 식량주권운동이, 특히 초국적 여성운동 진영과의 연대에 기반한 여성농민권리의 모색으로서의 세계 식량 체계의 대항담론으로서 가능성을 제기한다. 현재 전여농의 토종씨앗 지키기 운동과 언니네 텃밭 사업은 이러한 식량주권운동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존에 여성농민운동이 실천해온 여성농민의 권리 보장을 운동의 목표로 삼고, 목표달성을 위해 남성과 ‘동등한’ 여성농민의 생산권과 경제권을 ‘국가’에 요구해온 방식은 그 성과가 미미했다. 다시 말하자면 여성농민의 권리 획득을 ‘남성’과 ‘국가’에 귀속시키는 방식의 제도화 운동은 현실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초국적 연대에 기반한 식량주권 프레임은 여성농민운동에 있어 새로운 운동 전략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비아 캄페시나에서 시작된 식량주권운동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개인과, 지역, 세계의 시스템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식량주권 개념은 2000년대 중반이후 전농과 전여농의 주요한 운동 전략으로 포섭되는데 이를 바라보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과 전여농의 시각차이가 존재한다.

“전농의 회원들 중 일부는 식량주권이 사회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한국사회의 당면한 문제, 분단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식량주권을 위해선 반미로 가야한다고 봐. 농민정책연구소에서는 식량주권을 식량안보라는 개념의 대안으로 패러다임 전환으로 보고 있어. 그러나 전여농은 식량주권이 이론적 담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성주의적 관점을 통해 실천적인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해. 그래서 여성농민의 실천과제로 언니네 텃밭, 토종씨앗 운동을 하는 것이고. (2014년 5월 전여농 상근자 인터뷰 중에서)”

전농 회원들 중 일부는 식량주권을 정치적 수단으로 보고 있는 반면 전여농은 식량주권을 여성농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천적인 과제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듯 식량주권 프레임 또는 전략은 각 운동주체의 젠더와 운동의 지향성에 따라 상이하게 분석되고 있다. 여성주의가 단일하지 않듯 식량주권에 대한 해석도 단일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여성농민의 식량주권운동은 ‘여성주의’가 강조해온 ‘실천’을 담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차적인 운동 프레임 또는 이중 전략은 전여농이 여성농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여성농민 스스로가 실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데 중요한 시장을 제공하였다. 이렇듯 전여농은 ‘여성주의’를 전면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식량주권’을 통해 여성농민 당사자 운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초국적 식량 위기, 운동의 확장 가능성을 탐색하기

현재 전여농은 여성농민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식량주권운동을 어떻게 여성농민들만

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여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으로 확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여성농민 생산자의 권리를 위한 토종씨앗지키기 운동과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언니네 텃밭 사업 중심의 식량주권운동을 확장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지역 먹거리 체계 개선, 학교급식 사업 개선, 식생활 개선, 여성귀농귀촌 연계 등을 통해 더 많은 여성들과 지역과 마을에서 만나길 원하고 있다. 특히 갈수록 고령화, 여성화되어가고 있는 농촌 현실 속에서¹¹⁾ 여성농민운동의 주체와 공간을 확장시키는 것은 절실한 목표이기도 하다. 전여농은 식량주권운동을 하면서 농민단체와의 연대를 넘어서 여성환경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등의 환경운동단체 및 도시농업 단체, 학교 선생님들과 연대를 할 수 있었다. 현재 전여농에서 운영되고 있는 식량주권 포럼 또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연대, 서울여성회가 함께 하고 있다.

사실 지난 20년간 전여농은 내부조직화와 강화에 힘을 쏟아왔고 이로 인해 전체 여성운동진영과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은 약했다. 이는 단순히 전여농만의 문제라기보다 전반적인 여성운동진영의 파더니십 부족으로 인한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전여농은 초기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의 회원단체로 활동했었다. 당시 전여농은 여연의 호주제 폐지 등의 여성주의제를 안아갔지만 이와 달리 여성농민의제는 여연 내부에서 제안되거나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 이에 전여농은 2006년 여연을 탈퇴하게 되고 새로운 여성운동 연대체인 전국여성연대를 설립하는데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국여성연대의 경우에도 지역여성회를 조직하는데 노력을 쏟으면서 여성농민의제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미 FTA 투쟁이 유일하게 여성농민의제에 다른 여성단체가 함께 연대를 한 경험이었다. 당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와 여연 등이 함께 연대체에 참여했다. 최근에 새로운 긍정적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여농은 새천년개발계획의 후속 논의이자 새로운 국제 사회의 개발 목표인 ‘포스트 2015’와 관련하여 여연으로부터 여성과 농업 분야의 논의에 함께 해줄 것을 제안 받았고 이에 함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으로 여성농민운동이 더 많이 더 넓게 여성운동과 만나야 하는 상황은 현재 여성운동에 여성농민운동의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지난 10년간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1차 피해자는 농민 생산자였지만, 이 피해는 더 많은 사람들과 특히 여성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한국은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 46개국과 9개 FTA 발효하였고 이러한 FTA 경제영토 규모는 칠레, 멕시코에 이어 세계 3위이며 미국·유럽연합(EU)·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등과 모두 FTA를 체결한 나라는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한 상황이다¹²⁾. 농업에 있어서 시장은 모두 다 개방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현재 FTA의 독소조항 완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 등으로 인해 서비스업, 금융업, 의료업 등 더 많은 분야에서 시장이 개방될 예정이다. 특히 TPP의 경우 이는 농업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른 시민사회영역에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농민은

11 현재 농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고 60대 이상이며 농업노동의 66.2%를 여성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통계청, 2013).

12 2014-03-27 연합뉴스 “FTA 10년...세계 변방에서 FTA 중심국으로”

동진영만이 이에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여성농민운동을 단순히 ‘떡거리’ 운동이나 여성농민의 권리 운동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근대화, 세계화의 과정에서 저항해온, 개인의 실천을 통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는 여성운동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의 여성운동진영과 여성농민운동은 서로에 대한 더 많은 이해와 연결, 연대가 요구된다.

여성운동의 원칙을 돌아보며

초기 여성농민운동은 국가와 남성에게 귀속되어있던 권리를 여성농민에게 ‘동등하게’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가 경계를 넘어선 초국적 흐름과 세계화는 여성농민의 삶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고 이에 여성농민들은 더 이상 자신의 권리를 국가와 남성에게 요구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과 프레임으로 운동을 전환시켜왔다. 여성농민운동은 개인 스스로의 실천과 변화를 통해 여성농민들만의 연대가 아닌 더 많은 여성들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변형은 여성농민운동이 여성주의의 ‘원칙’-변화를 위한 저항성-을 계속해서 체화해가며 실천으로 연결시켰기에 가능했다. 전여농은 제도화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존 여성운동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운동 전략으로서 식량주권운동을 여성농민운동에 통합시켰고 이를 통해 다른 여성운동과의 새로운 연대를 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농민운동은 많은 한계들을 담보한다.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문제,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와 같은 농지 수탈과 여성농민의 생존권 문제에 있어 전여농은 지역차원에서 제주와 경남의 여성농민회를 통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힘을 보태고 있으나 전여농 전체 조직의 당면과제로 다루지는 못하고 있다. 여성농민의 정치 세력화 문제에 있어서도 고군분투 중이다. 전여농은 2004년부터 배타적 지지를 해온 민주노동당(이후 통합진보당)에 대해 2013년 지지를 철회했다. 여성농민의 정치적 요구에 대해 당은 이를 적극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어떠한 방식으로 여성농민의 정치 세력화를 실천해야할지 전여농은 아직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쌀값문제, 기초 농산물 수매 문제, 기후변화 등 농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도 보장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성농민들의 식량주권운동이라는 실험은 때론 다른 농민운동으로부터 ‘개량화’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아비투스(習性)가 바뀌는 것은 정치적 국면의 그 한 순간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며 정치적 진복은 사회적 실천과 연결되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여성운동이 상정하는 특정한 목표와 사회변화는-그것이 여성/소수자의 해방이든 인권의 보장이든- 여성운동의 외연이 어떠한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계속해서 탐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가능하다. 다시 말하자면 여성운동의 원칙인 변화를 위한 저항적 실천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 실천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여성운동이 아니다.

여성들, 여성주의들, 여성운동들은 단일하지 않다. 각각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한다면 단일한 관점과 목표를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것은 상이한 관점과 목표 아래 개개인이 변화를 위해 어떠한 실천을 수행 하는가 하는 것이다. 여성주의도, 여성운동도 결국 개인의 집합체로 재현된다. 따라서 개인의 변화 없이는 집합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으며 단일한 집합체 홀로 사회변화를 이루어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여성주의들과 여성운동들은 개인들과 집합체들 간의 차이에 기반하면서도 여성/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복합적 억압과 착취,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연결과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성운동의 연결과 연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결국 “여성들 사이의 새로운 연합과 연대의 토대는 통일적인 정체성이 아닌 여성의 공동관심에서 찾아야 하며 이리할 때에 여성 공동의 관심사는 여성의 자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변인들과 타자-여기서는 인간에 대한 타자로 자연도 포함된다-에 대한 배려와 관심으로 확장될 수 있다”(이상화, 2014).

출구는 있다. 그 출구는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결국 내가 처한 현실, 이 사회의 현실을 직면하는 것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참고문헌

고은실. 1999. “여성농민운동” 한국여성단체연합 엮음, 『한국여성단체연합 10년사』 동덕여대한국여성연구소.
 김현진. 2012. “여성농민운동의 프레임 전환에 관한 연구-90년대 이후 전여농의 운동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김효정. 2011. “토종씨앗 지키기 운동을 통해 본 여성농민의 토착지식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인혜. 2004. “여성단체 활동가의 입장에서 본 ‘반(여)성폭력과정’의 제도화의 한계.” 이화여대 여성학과 20주년 기념토론회. 「여성운동, 새로운 지도 그리기」.
 엄영애. 2007. 『한국여성농민운동사』 나무와 숲.
 이상화. 2004. “에코페미니즘의 의미와 전망: ‘한국’에서의 ‘에코/페미니즘 (eco/feminism)’을 논의하기 위한 몇 가지 테제”. 대외문화아카데미 포럼 바람과 물 ‘한국적 에코페미니즘을 찾아서’ 자료집.
 이현희. 2004. “생협운동의 여성주의 정치학으로서의 가능성”, 『여성학논집』 제 21권 2호. 한국여성연구원.
 정경자. 2005. “여성 운동의 제도화 그 후 20년: 호주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 발간자료』 한국성폭력상담소.
 조이여울. 2006. “‘진보적 여성단체’의 위기”, 『진보평론』 제28호. 진보평론.
 황경산. 2013. 젠더 불평등과 세계 식량 체계-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식량주권 운동을 중심으로, 성공회대 NGO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홈페이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http://www.kwpa.org>

신문기사

2014-03-27 연합뉴스 “FTA 10년...세계 변방에서 FTA 중심국으로”

3부

새로운
여성운동의
기획과 전략

여성운동은 왜 마을로 들어가야 하는가?

서경남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조직국장

1. 주제별 논쟁점

여성운동이 마을로 들어가는 것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기획할 인력과 기획역량이 부족하다. 본부는 마을운동을 강조하지만, 지역은 고민을 할 수 없는 구조다. 지역은 중앙보다 더 가부장제와 제도화에 포섭되었고 새로운 여성주의 기획이나 교육을 수행하기도 역부족이다.
- 자원활동가를 교육시켜서 지역을 보완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자원활동가를 교육할 훈련된 인력 자체가 없는 지역의 현실(춘천민우회는 대표 2, 상근1 (올 12월까지만 하겠다 채 2년도 안됨, 활동주기가 점점 짧아짐, 30대 후반) 활동역량이 축적되고 있지 않다.
- > 자원배분을 지역으로 더 많이 해야 한다. 2:8(중앙:지역) 여성운동 내에서 중앙과 지역의 자원 배분의 격차도 심하다. 지역에 맞는 자원을 발굴하고 이슈를 만들어야 한다.

2. 여성주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은평사례를 통해 여성운동의 주요이슈였던 가정폭력문제를 지역으로 갖고 들어가 성공적인 실험을 하였다. 이러한 여성운동의 이슈를 지역에서 실험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 중앙단체는 여성이슈와 정책 생산의 노력이 필요하다.
- 백화점식 운동에서 지역은 지역에 가장 적합한 운동을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을 참조해서 독자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여성환경연대와 초록상상의 관계: 초록상상은 역량에 맞는 운동을 선택함) 이를 위한 여성운동의 지원이 필요하다.

3. 지역 여성주의 리더십의 딜레마

- YWCA의 경우 사무총장의 지속성이 탈핵이라는 사안의 지속성을 가져왔다. 3년동안의 학습과 공유, 중점사업으로의 선택 등. 그런데 여성단체는 짧은 임기와 리더십이 바뀔 때마다 조직의 분위기가 달라짐에 따라 지역의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움이 있다. 좀 적극적이면 출마하냐고 하고 ... 지역조직에 맞는 여성 리더십은 무엇일까.

4. 합의된 실천행동

- 본부와 지역이 결합한 여성주의 모델을 개발하자
- 여성주의 연구자들과 여성학이 지역운동을 연구하는 기록해야 한다.
- 지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지역운동 하기 전에 지역사회(복지,교육,아동청소년,청년, 행정)네트워크 형성을 해야 한다.
- 자원을 지역에 우선배분해야 한다(인적/물적)

5. 향후 과제

- 제도화를 넘어서 지역으로 (제도화를 넘어서기 위한 심장이 필요하다)
- 지역이 살아야 중앙이 산다
- 모든 단체가 지역조직과 지역여성운동의 중요성을 조직적으로 인정하고 주요활동으로 추진해야한다.

사회적 이슈(세월호, 밀양 등)와 여성주의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보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이 문제에 대한 즉각적 해결책보다 문제의식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토론을 하였다.

1. 문제의식

- ① 많은 여성들이 “엄마”의 이름으로 활동하지만, NGO 운동과 분리된 채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성 NGO 운동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 ② 세월호, 밀양, 군대내 성폭력 등등에 여성운동은 합의된 목소리로 개입하지 못한다.

2. 문제의식에 대한 논쟁점

- ① 많은 여성들이 “엄마”의 이름으로 활동하지만, NGO 운동과 분리된 채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성 NGO 운동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 (1) 시민운동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 NGO에 대한 거부감, 조직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적 운동은 넘버에서 끝나고, ‘NOT IN ANYWHERE’로 까지 넓어지지 못하고 끝나게 되는 한계가 있다.
- (2) (세월호의 경우) 운동진영이 이슈에서 배제되길 바라는 유가족의 분위기가 존재하고, 무엇보다 생명의 문제에 젠더 관점 (가족중심의 이슈 방식, 모성에 부각, 아버지 부각)의 논평을 내는 것이 스스로도 부담스럽고 죄송하여 부담된다.
- (3) “어머니의 이름으로, 내 아들의 안전, 가족 지키기”라는 표현은 젠더적 문제보다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는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생명이라는 가치로 표현될 수 있다. 다만 생명이라는 가치와 여성주의가 아직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을 뿐이다.

- ② 세월호, 밀양, 군대 내 폭력 등등에 여성운동은 합의된 목소리로 개입하지 못한다.

(1) 여성운동의 꼭 합의된 목소리가 필요한가? 다양화가 더 좋다. (쟁점으로 남음)

- 요즘 풀뿌리 운동으로 들어가면 예전에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목소리와 방법이 나오는데 그게 더 좋다고 느낀다.
- 요즘 보면 NGO만 같은 이야기를 계속한다고 느낀다. 예를 들어, 성매매특별법이 생긴 10년간 검찰과 경찰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은 많이 좋아진 반면, 여성운동의 논리가 계속 그대로이다. 운동에서 법 제정을 목표로 할 때는 여성의 현실에 대한 이론이 격렬하고 다양하게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2) 여성운동이 다양해져서 합의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

- 여성단체들은 프로젝트가 많아서 즉각적인 사안에 바로 대응하기 힘들다.
- 언론은 기자회견, 복잡한 논리를 싫어하고, 기발한 퍼포먼스만 좋아한다. (그렇지만 언론이 좋아하는 방식만으로 운동을 할지 합의할 수 없다.)
- (군대 내 폭력) 이슈에 대해 발언할 논리가 있지만, 발언하면 평소 사업을 못하게할 만큼의 파장 (전화 항의, 테러 등)을 겪는 것을 피하고 싶다. (나쁜 학습의 효과)
- 언론에서 소비되는 연속된 큰 사건들에서 대한 개별적 논평을 넘어서서 보편성과 정의에 여성주의로 평가할 시각이 더 필요하다.

실천과제

- ① 여성학과 행정의 결합뿐 아니라 운동과 여성학이 좀 더 긴밀하게 연결될 필요가 있다.(자기 운동을 설명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현재 이론이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 ② 밀양, 세월호 등의 문제 등에서 “어머니, 가족중심”을 포함한 포괄적 생명 가치에 대해 여성주의와 연결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 ③ 개별 현상이 아닌 공공성, 정의에 대해서 여성주의적 설명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 키워드: 생명 가치와 여성주의의 연결, 여성이론의 필요성

사회적 경제, 여성들에게 희망이 될까?

어라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 사무국장

〈3분과에 오신 이유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명진숙: Y에서 회원을 만나는 지역 운동을 하고 있음. 운동성과 사업 지속성이 동시에 고민되는데, 협동조합이 수익적 모델 뿐 아니라 운동적 기반이 되지 않을까함.

이해리: 사회적 소수자 계층 등 기존 노동 시장에 편입되기 어려운 여성들이 스스로 직업을 창출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를 생각함. 실제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까? 기존 노동시장과의 차이점은?

임경진: 어떻게 하면 여성과 소수자를 임파워먼트하기 위해 사회적경제를 사용할 수 있을까. 현재 경제 구조가 유지되면 여성은 계속 소수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고민임. 자기개발로 몰려 남성화되거나 경쟁에서 밀려 도태되는 것 말고 대안을 찾고 싶음.

서선자: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폭력에 취약한 지를 현장에서 활동하며 마주하고 있음. 어떻게 하면 여성을 경제적으로 자립시켜서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예비사회적기업을 2년 동안 운영했었지만 자립하는 과정에서 문 닫는 절망적 경험을 했음.

권순형: 시민사회단체는 생존해야 되는데 경제가 안 좋음. 원주가 사회적 경제의 모델 도시라고는 하는데 신통한 건 없는 것 같음. Y에서 살림도우미를 하고 있는데 상황이 열악함. 실패한 것만 봤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성공한 곳이 있지 않을까. 성공사례에 대해서도 듣고 싶음.

어라: 스스로 사회적 경제가로 정체화하고 있음. 사실 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흑자 아니면 적자. 이 사실은 받아들여야하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생각. 어떻게 하면 흑자를 낼 수 있을지, 그리고 여성주의적으로 흑자를 낼 수 있을지 함께 머리를 맞대보고 싶음.

한미란: 나이를 떠나서 노후가 불안하고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편하게 미래를 담보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재정립해야 될 것 같음. 고생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그 이후를 대비해야함. 사회적 기업의 폐해는 지원이라고 생각. 시작의 순간부터 책임이 약화되는 구조임.

1. 실천계획

1-1. 논쟁점

- 사회적 경제, 기업의 개념 정의가 서로 다를 수 있음.

좁은 의미: 경제조직의 구조로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형태로서의 개념

넓은 의미: 경제적인 문제 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사회를 추구하는 가치로서의 개념

- 지원은 필요한가?

인건비 위주의 기존 지원 정책에 대한 입장

: 노동자의 책임성과 보람을 저해하고 사업주의 경영 책임감을 낮춰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더욱 낮추는 방식 VS 사회적 자원이 출발선에서부터 부족한 사회적불이익계층(취약계층)의 현실을 직시해야.

자활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 민간노동시장에서 구직하기 어려워 자신의 업무를 소중히 여기는 경우도 많음. 노동하는 경험 자체가 사회적 가치가 됨.

1-2. 합의점

- 교육, 여성주의 가치를 담은 교육, 좋은 자체 프로그램

: 사회적경제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 교육, 심화 교육, 임파먼트 교육 등 교육은 다다익선.

: 여성주의 가치 담은 사회적경제 교육, 경영 노하우 공유하기. 살림도우미 일급제→월급제 갈등이었던지만 가정 내 여성 위상 확실히 높아짐. / 행복중심생협 임직원 리더십 교육에 빠지지 않는 여성주의 교육 / 아시아 자매회의 실천사례, 성공사례로부터 배운다!

: 5년 이상 유지된 23개 사회적경제조직 인터뷰 해보니 좋은 '자체 프로그램' 보유, 운영 중

-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섬세한 지원책, 대안적 지원책

: 인건비 지원 → 임대보증금 지원 / 자금 지원 → 사람(전문가) 지원

: 정부, 지자체 지원 말고 시민자본의 필요성. 자립성과 책임성, 연대성 고양

- 지역 네트워크

: 부족한 자원과 경험을 지역 연대로 타개.

행복중심생협조합원모임에서 출발한 감중은공방 행복중심생협 입점뿐 아니라 한살림도.

: 교육 프로그램 자체 개발 어려울 땐 경험 있는 곳에서 마련해서 함께 공부.

: 지역 신규 사회적경제 창업 조직에게 첫 공부, 첫 관점을 누가 갖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

- 평가에 대한 다른 기준점 마련

- : 현실을 사회적경제조직에게만 극복하라고 요구하는 매출, 수익성 위주 평가 재고.
- : 적극적인 사회적가치 평가와 인정체계 만들기.

- 무엇보다, 역시 오래 살아남은 여성주의 사회적경제 모델 많이 만들기
- : 행복중심생협 시작해줘서 고마워요. Y의 놀라운 규모 뿌듯해요. 살림의료사협 새싹파이팅.
- 앞으로도 여성주의 가치 담은 사회적경제 모델 더 많이 생겨나서 서로에게 힘이 되길.

2. 핵심가치, 키워드

- 교육, 공정임금, 협동, 사회적 가치, 모두가 주인인 곳, 마을 필연성, 사업 자체의 공공성, 경영 자립성

3. 여성운동의 향후 과제

- 여성 사회적 경제 전문가 양성(김@순 복제 작전)을 여성운동의 미래에 중대 과제로.
- 여성주의 이론과 닮아도 너무 닮은 협동조합 방법론, 연관관계 더 깊이 탐색, 전유하기.

분과패널발표_4분과

거버넌스와 제도화 전략은 여성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1. 주제별 논쟁점

(1) 제도화는 여성운동의 전략적 선택이었는가, 필연적 귀결인가?

- “제도화”란 국가를 비롯한 여타 조직들과의 관계에서 일상적이고 관례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운동이 반복적이고 자기 유지적인 과정으로 접어드는 현상.
- 제도화는 여성운동의 성과로서 여성운동이 이니셔티브를 주도하였다. 제도화의 초기에는 의제의 대중적 확산 등 긍정적인 면도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화의 긍정적인 결과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보수 정권이 장악한 이후, 여성운동의 제도화 전략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시점이다. 법제화 이후 법의 테두리에 갇히게 된다.
- 제도화, 거버넌스, 정치세력화는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한다고 이해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거버넌스는 민관의 협치를 의미하면서, 제도화의 과정에서 여성단체를 들러리로 세우고 합의를 강제함으로써 여성단체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을 왕왕 볼 수 있다. 여성운동가들의 정치 참여 또는 제도권 진입이 제도화의 논쟁을 불러왔으며 거버넌스의 구심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를 여성의 정치세력화로 이해할 수 없다. 운동의 제도화와 구분하여 건강하게 주체들이 제도권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를 바꿀 수 있다면 이것을 거버넌스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세 가지의 측면이 서로 맞물리며 결과를 개선하거나 악화시키는 상호보완재의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두를 섞어서 평가하는 것에는 주의를 필요로 한다.

(2) 제도화는 여성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있는가, 침체시키는가?

- NGO에 대한 정부의 갑질, GO가 NGO를 파트너로 대한다면 거버넌스는 이상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거버넌스에 대한 환상에 불과할 수 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거버넌스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폭력적인 양상으로 거버넌스 대상으로 바뀐다. 또한 거버넌스의 경우는 지역이나 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편차를 보이고 있다.
- 제도화는 운동(방식)의 제도화, 이슈의 제도화, 주체의 제도화(제도적 방식으로 사고하는 의식의 식

- 민화 포함)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운동의 제도화이다.
- 제도화의 결과는 여성운동단체의 성격에 따라 상이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 여전에게는 법제화를 통한 운동 방식의 제도화 과정으로서 법제화 이후 시행령에 귀속되면서, 상담소 개설이 상담 운동 방식의 흡수를 낳고, 정부의 감시와 통제 하에 작동하고 상담이 시장을 형성하며 이게 복지시설인지 운동 조직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질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 제도화가 여성운동의 다양한 전략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전략처럼 인지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위기이다. 운동가들의 공무원화, 인력의 소진, 재생산의 어려움, 의제의 빈약함, 운동성의 소진.. 즉, 제도화의 강화는 운동의 약화를 가져온다.
- 여성운동의 의제가 정부 및 대중문화로부터 소비되기도 하는데, 이는 여성운동 의제가 제도로부터 흡수되는 것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 여성 의제의 대중화로 이해할 수도 있다. 운동적인 관점에서 이는 의제의 경쟁이라는 제도의 패러다임에 갇힌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반면, 여성운동의 의제의 소진이 라는 점에서 제도화의 폐해로 보일 수도 있다.

(3) 여성운동의 주체성과 체제변혁적 급진성을 찾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 이슈 파이팅 또한 제도 밖에서만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운동체는 재원 마련의 방법이 필요하다. 이슈파이팅하고 사회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현실을 목도해야 한다.
- 정부 프로젝트가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목표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시민들의 주머니를 열게 하는 것인 운동이다.
- 여성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과연 합당한 전략인가? 정치적 색과 정당 지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면 그 결과로 거버넌스의 확실한 틀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후에 운동의 힘을 받을 수 있다. 정관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명기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여성단체는 민주당과의 협력관계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 현존 여성의원이 여성 정치세력화에 과연 도움이 되는가? 여성 정치인에 대한 모호한 입장이 여성 정치세력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 여성 정치세력화는 협의적으로 여성의 제도권 진입보다는 정치 의제 및 정치인 발굴 등을 대중운동의 방식으로 실현하는 것인 만큼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2. 합의된 실천행동

- 거버넌스의 핵심은 권력균형이다. NGO가 주도적으로 거버넌스를 이끌기 위해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 어떻게? 필요하다면 정부와의 단절 또한 고려할 수 있다. 노 들러리, 노 구걸, 필요하다면 노 땡큐.
- 제도화냐 탈제도화냐 반제도화냐 반:제도화 전략 중 하나로.
- 거버넌스에 대한 이중 전략이 필요하다. 포기와 침투의 전략의 활용 적절히!
- 제도를 활용하되 탈제도, 제도의 경계를 넘나들며 융통 가능하다. 제도를 순응적으로만 대하지 않는다.

- 정치세력화는 절대적으로 연대의 힘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정치 전략은 양날개로서 전환해야 한다. 단체 내에서 대중적으로 정치 교육이 필요하다.
- 정치권 외곽에서 결속체를 만들어 여성정치인들에 대한 확실한 지지 혹은 비판을 하여 현재 균열을 내며 동시에 연대를 강화한다.

3. 여성운동의 향후 과제

- 연대, 소통, 재생, 맞장
- 솔직하자. 차이를 드러내고 만나면서 서로가 조금씩 서 있는 곳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소통하자.
- 욕구를 인정하자.
- 주체의 재생산 뿐만 아니라 현재의 재생/지속할 수 있도록 주체의 내면에 귀 기울이고 미래를 전망하자.
- 당당하자. 스스로 원하지 않는 게름칙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힘을 키운다. 지금^^

여성학과 여성운동의 능동한 대화 : ‘그리고’를 넘어서

서지영 대학교 수료

1. 실천과제: 합의점

- 일회적, 간헐적 세미나를 넘어 자기 활동 의제와 관련된 공부 필요. 일주일에 하루는 활동가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자: 여성학(이론), 여성운동(실천)의 이분법을 넘어서
- 여성운동, 여성주의 공부 대한 선배 그룹의 구체적, 실천적인 컨설팅 노력이 있어야 함.
- 여성주의를 학습할 수 있는 교육자료 아카이브 구축 되어야 함.
 - > 기록된 정보가 없어 지역 또는 대학 내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하지 못함. 방법 및 교재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 연구자, 활동가들은 대중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을 모색해야 함. (저술서 등)
- 연구자, 활동가들이 모두 SNS 등의 온라인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고 정보를 생산, 전달, 공유하여야 함.
 - > 현재 20대 청년들은 여성주의에 관심이 있어도 정보를 얻을 통로가 없다. 청년들에게 정보 제공을 위한 방법 모색필요.

2. 논쟁점

- 20대 여성주의 공부에 대한 수요와 단체 측의 학습 공급에 대한 간극
- 보충설명:

* **젊은 층은 공부할 수 있는 공간 부족, 이와는 대조적으로 단체 측에서 모임 개설하면 젊은 층이 오지 않는다. 이러한 간극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20대가 원하는 주제에 대한 강의가 거의 없고, 수강료가 부담이 된다.
- 지역의 경우 비슷한 주제의 강의와 강사 반복되는 문제 -> 새로운 교육 기획이 필요 함.

- 2030에 대한 여성단체들의 고민이 필요. 이들을 위한 교육, 여성주의 실천 기회 제공할 수 있는 방향 모색해야 함.
- **경험1.** 강좌를 열면 학생들이 없는 것이 문제. 여성주의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소수일수도. -> 학생들이 강의정보를 얻을 통로가 없던 것도 사실이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해야 한다.
- **경험2.** 단체에서 총여학생회에 집담회 협조 요청을 하였는데, 취업 때문에 바쁘다고 거절함. -> 예전에도 쉽지 않은 방식에서 여성운동 이루어졌음. 직접 만나야 한다.
- 관계가 있어야 얹이 있다.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20대와 지역 활동가들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키워드

- 접근성(어떤 방식으로 만날 것인가?), 얼마나 건강한가, 공부를 통한 진정한 실천, 운동은 학습, 사랑, 끊임없는 의미화의 만남, 젊은 생각, 무르익음

여성운동의 활동가 재생산, 어떻게 할 것인가

몽 언니네트워크 사무국장

주제별 논쟁점

1. '어떤' 재생산의 위기인가?
 - 1) 새로운 여성주의자를 재생산하는 문제
 - 2) 여성주의 활동가의 '자기' 재생산 문제
 - 3) 여성'단체/조직' 활동가를 재생산하는 문제

2. 모두가 활동가 재생산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진짜 '여성운동 활동가 재생산'이 그렇게 절실한 문제인가? 그렇게 절실하다면 왜 우선순위의 문제가 되지 않는가?

3. 재생산의 문제가 2030 새로운 여성주의자의 유입, 의식화 여부의 문제 이전에, 현재 여성주의 활동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기 재생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 지금 현재 자기재생산의 위기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문제가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너무나 부족하다.
 - 2030 뿐만 아니라 특정한 시기, 연차, 세대의 활동가 역시 자기재생산의 위기를 겪는다. 재생산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이야기할 필요.
 - 예) 여성단체 장이나 대표급을 역임하고 난 이후에는 어떤 고민이 펼쳐지는가, 지금 내 나이, 생애주기에서 현재 나의 여성주의 이슈가 무엇인가?는 현재적 고민

합의된 실천행동

1. 활동가 재생산을 위한 조직 내 물질적 기반을 조금씩 만들어가야 한다.
 - 1) 현재 활동가들의 삶을 재조정하기 위한 조건
 - 어떤 순간에는 조직 내 활동량의 절대량을 하향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직구조의 문제가 활동가들 사이의 감정적 갈등 문제가 됨)
 - 2) 새로운 여성주의 활동가를 재생산 하기 위한 조건

- 여성주의 활동가, 사람을 키우고 성장시키고 조직의 비전을 공유·확산시키는 것에 대한 조직적 관심과 우선순위
 -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교육 사례
 - : "활동가 재생산이 진짜 절실한가"에 대한 솔직한 대답이 필요하다.
 - : 현안 대응이 중요한 단체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단체를 (조금씩이라도) 바꿀 수 있는 시도들이 필요하다.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30 청년 젠더활동가 양성과정' 사례
 - : 스펙 쌓기가 아닌 여성주의 활동이 하고 싶어서 참여하는 젊은 여성주의자들, 새로운 상근활동가가 유입되기 바라지만 그것을 위한 단계로서 인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여력,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단체 : 대학 여성주의자와 단체 간의 연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앞/뒤의 특정한 단계가 필요하다.
 - 한국여성민우회 '물길 캠프': 3년 동안 이어진 조직 내 체계적인 프로그램화 노력
2. 여성주의 활동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평가, 인정이 공식적으로 필요하다
 - 활동가들이 자기재생산이 어려운 중요한 조건의 1순위는 '돈'이라고 하는 경제적 조건이라기보다, 자신의 비전나 지향을 확인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조직의 노력이나 관계의 문제인 경우가 대다수
 - 여성주의 활동가가 자신의 경험을 분석하고 이론화 하는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 활동가로서의 전문적인 활동으로 구체적으로 평가, 인정하는 작업
 - '내가 진짜 가슴 뛰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작업 ('조직적인 사람사업'), 돈 외의 다른 자원의 의미
 -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말 이외에, 활동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평가
 - 소소하더라도 특정한 시기나 기점에는 공식적인 세레모니가 필요할 수 있다. (연차,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 등)

여성운동의 향후 과제

1. 여성운동 분야별 특성과 환경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
 - 조직 특성과 주요 이슈에 따라서 활동가 재생산에 대한 전혀 다른 대답, 대응, 과제
 - 예) 상근활동가+비상근활동가 체계일 경우, 상근활동가의 연결, 조직 역할이 증가
 - 예) 사회복지/상담소 활동과 여성주의 운동성 사이의 긴장

2. 여성운동 활동가의 경제적·물리적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조직 계획이 필요하다
 - 활동가들이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최소조건
 - 모든 재생산 문제에 대한 대답이 경제적 조건, 상근활동비의 문제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문제이지만, 현재의 상황에 변화가 필요한 우선순위 중 중요

농업과 먹거리의 위기, 여성운동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1. 토론 내용

- 현 자본주의 산업형 농업 체계가 공동체를 깨버리고 농민 개개인의 주권을 빼앗아가는 문제
-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먹거리의 문제에 대해 여성운동이 목소리를 내야한다.
- 한국정부가 쌀 수입을 개방하려고 하는데 필리핀이나 일본은 쌀 수입에 유보조향을 두고 있다. 일본은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해서 지켜나가고 있다. 쌀까지 수입 개방되면 식량자급률은 물론이고 먹거리, 밥상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 이는 과연 각 계층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식량주권이 없다면 여성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가까운 평창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태국노동자가 약 1,500명이고 캄보디아, 조선족도 많다.
- 식량주권은 여성폭력과도 연관되어 있다.
- 그런데 식량주권이라는 개념이 보수적으로 들리기도 한다. 오히려 먹거리 안전이 더 다가간다. 방사능 오염, GMO로부터 먹거리 안전에 대한 대중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 도시농업, 생협은 돈 있는 사람들의 문화처럼 보인다.
- 생명의 밥상을 이야기할 때 생명이 다른 생명논의(예를 들어 낙태권)와는 어떤 차이를 갖는가?

2. 제안내용: 실천적 계획

- * 식량주권, 먹거리 안전, 농업의 문제에 대하여 여성운동에서 공동의 의제와 실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 식량주권이 없다면 여성의 삶은 어떻게 될지, 먹거리와 농업의 위기가 여성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각 계층 여성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토론회, 집담회를 열어서 이 결과를 미디어를 통해 대중들과 공유
- 지금 여성운동의 전환을 위해 결의해야 할 선언문을 작성해서 합의하는 것. 예를 들어 현재의 쌀 수

입개방과 GMO의 문제를 다루는 “생명의 밥상에 대한 여성 선언문”을 공동으로 내자.

- 식량주권 공동행동: 먹거리 교육, 생명감수성 키우기 소모임,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논의, 초국적 식품과 농기업을 대한 감시
- 먹거리 안전은 방사능, GMO 문제를 포함한 대중운동이 필요하고, 각 운동단체에서 다양한 실천계획이 필요하다.: 여성환경연대, 민우회에서 비혼여성 1인가구 건강밥상 프로그램, 독거노인에게 흰쌀이 아닌 유기농 현미 지원(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 “연대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기원을 알아가는 것.” 다양한 과제, 가치들을 어떻게 묶어낼 수 있을까?

3. 키워드

돈보다 생명, 안전한 먹거리, 평등의 재개념화
관계성, 행복, 돌봄, 생계적 관점

4. 여성운동의 과제는 생명이다.

종합토론

사회자(박기남) 각 분과별로 해당 주제의 토론 결과를 논쟁점 합의점, 실천과제 등의 키워드로 정리하여 발표하였으니 이에 대해 전체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경희 저는 어제 4분과에 있었는데 방에 들어가니까 여기 회의 왜 이렇게 뻑세게 하나고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니 12시 넘어서까지 토의를 해서 정말 활동가들의 넘쳐나는 열정과 에너지를 볼 수 있었고요. 여성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관심과 고민 등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일단 토의 방식이, 발표자가 발표를 하고 플로어에서 토론하고 질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피드백이 있고, 어제 밤에 이야기한 걸 오늘 아침에 발표하고 그걸 또 논쟁거리로 만들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아까 6분과에서 발표했던 것에 대한 질문한 가지와 여성재단에 바라는 바,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6분과 주제가 “활동가 재생산 어떻게 할 것인가”였는데, 저는 재생산도 문제가 있지만 소통의 구조가 현재 여성운동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통의 단절은 여러 가지 측면에

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활동가와 연구자의 단절, 제일 심각한 것은 세대 간의 단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 어제 여성회의 오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젊은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요즘 어디 가면 젊은 사람들 만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반가웠는데, 여하튼 그럼 세대 간의 단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어제 4분과에서 젠더 거버넌스에 관해 이야기했는데 단체활동을 했던 분들이 정치의 현장으로 가는데, 정치인이 되면 후배, 선배와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과 여성 활동가들간의 단절, 왜 이렇게 변했어 하는 원망의 마음도 있지만 막상 그 선배는 정당에 가서 괴리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후배들이 왜 그 것처럼 대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해와 불신, 그런 분위기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젠 단절의 문제고 소통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단체 사업을 할 때 상근자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상근자와 비상근자의 단절적 구조가 생기고, 그래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단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세대 간의 단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대 간의 단절을 이룰 수 있는 이음의 소통방법이 뭘까 고민했던 것들을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여성재단에 바라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단절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이음에 대한 프로젝트를 구상하시면 어떨지 제안을 합니다. 많은 자원 예산이 없어도 좋은 기획력이 있다면 여러 가지 단절을 이어주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주시면 여성운동이 정말 성장할 수 있고, 활동가와 여러 가지 단절된 부분에서 소통하고 이어나가면서, 오해라든가 불신은 소통의 부족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몽 세대 간의 단절이 어떻게 다시 연결될 수 있을 거냐, 저는 기본적으로 그게 소통구조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는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날 기회도 없고 이야기하는 방법에 대한 소통의 방법론이라는 건 분명히 필요한데 대부분 소통의 방법론이 이야기되기 전에, 어떤 부분에서 저는 ‘입장의 차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입장은 세대하고 연관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입장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성정치인의 문제, 여성학자와 여성활동가의 관계, 나이 든 선배 페미니스트와 젊은 후배 페미니스트의 관계, 그게 소통이 없다, 교류가 없다는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는 분명히 입장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죠. 여성정치인이, 어쨌든 여성단체활동을 마친 활동가가 정치 쪽으로 나가고 제도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제도화를 관철시키는 역할을 한다, 올해에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제정이 됐잖아요. 이것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갈 것이냐, 성평등기본법으로 갈

것이냐는 논의가 실제로 제도화 현장 안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 이것이 세대 간의 특성인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입장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런 입장 차이를 이해하는 장이 얼마나 있을까. 다들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죠. 저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 차이라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다 없다, 혹은 이것을 같이 협상하자, 이런 시도 자체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는 굉장히 무섭고 두렵지만 그 입장 차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들고, 그건 제도화에 대한 입장에도 마찬가지로 세대 간의 입장에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윤박경 6분과에서 중간중간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세대 간의 단절부분은 정말 많이 얘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전체가 서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사실 서로에 대해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모르면서 너희는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내 경험이 그랬으니까 너희들도 그러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하면 그건 독백이 되거나 일방통행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대간 소통에 있어 중요한 거는, 내가 저 친구의 고민에 대해 모를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같이 듣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대와 어떻게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을 건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건가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여성운동의 운동적 측면에서의 대

외적인 가치도 있겠지만 ‘현재 네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그건 단지 청년과 지금 젊은 우리 후배들, 활동가뿐만 아니라 50대 이후의 여성주의 활동가들이나 선배들이, 이후의 자기 삶에 대한 기획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20대가 여성 노인의 문제를 정말 줄기차게 고민하는 페미니스트들을 보면서 참 감동이였다. 이런 것처럼 자기 생애 주기에 따라 내 삶의 어떤 것과 여성운동이 만나는 것을 연계하다 보면 여성의 삶에, 아니면 인생주기에 있어서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참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잘 모를 수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겹쳐놓게 열어놓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현재 여성주의자의 삶에서 어떤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 동안 페미니즘 그룹에서 많이 떨어져 생명운동그룹이나 녹색당 이쪽에서 많이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페미니스트로서 어떻게 “생명”이라는 언어를, 한 살림운동이나 여러 가지 속에서의 여성주의, 또는 에코 페미니스트로서 어떤 언어를 가져야 할까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참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까 단절 이야기를 김경희 박사님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우리끼리만의 고립된 방식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운동들과 이어지고 우리의 색채를 좀 더 명확하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질적인 것을 만나면서 ‘나라는 것이 더 분명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절이라는 부분을 우리 안에서 만의 단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운동을 확장해내고 여성주의가 정말 상식이 되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좀 이질적이고 중요한 사회변화를 위한 다른 사회운동들과도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단절의 범위를 좀 더 넓히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양한 여성의 이슈나 여성주의적 변화의 지점들이 더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시도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희경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조금 전에 나왔던 6분과는 새벽 4시 반까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세대 얘기도 제가 꺼낸 것이어서 조금 피력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는 세대 간 소통과 연결이라고 할 때 소통이 꼭 격려나 지지, 이런 것이 아니라 논쟁도 소통이라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세대 간 연결성을 다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자칫 역사의 한 줄을 이어서는 방식으로만 귀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예요. 이 점은 몽 선생님하고 입장이 일치하는데, 그러니까 나이든 5,60대 페미니스트들이 과거의 여성주의 역사의 증언자로만 항상 발언을 하시고 20대 페미니스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미래를 담보하는 사람으로만 발언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50대, 60대, 40대들의 지금의 자기 페미니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저는 굉장히 좋았구요.

두 번째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선언 말씀하신 7분과에서 저는 사실 ‘생명’이라는 키워드를 ‘여성운동은 생명이다’라는 문장으로 마지막에 정리하셨는데 저는 듣자마자 딱 복잡한 심경이 들었어요. 왜

냐면 저한테 “생명”이라는 단어가 연상시키는 것은 낙태권이거든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우리사회에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읽히는 단어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효과를 발휘하잖아요. 신자유주의 시대에 ‘자유’라는 단어가 진짜 매가리 없게 느껴지듯이, 그래서 지금 막 저출산시대에 낙태를 불법화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3,4,5년 가져온 상태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일단 “돈 보다 생명” 이진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냥 여성운동의 과제는 “생명”이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문제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할지, 그리고 생명운동하는 단체, 윤박경 선생님이 생명운동하는 판의 엄청난 가부장성에 대해서 증언해 주셨거든요, 어젯밤에,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단어가 지금 어느 판에서 무슨 이슈를 가지고 등장하는 단어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토론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고 싶었어요.

또 하나는 중앙과 지역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민우회에서 하는 일은 없지만 정책위원 이름을 걸고 있는 상태여서 지부가 있는 큰 단체의 경우에 중앙과 지부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바람결에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은 중앙에서 정책이나 이슈를 정리하고 지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발표를 하실 때, 그런데 이진 어떤 면에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문제제기해오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반대되는 제안이 나온 게 아닌가? 왜냐하면 계속 이거는 분업 같은 거, 중앙에서는 계속 브레인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지부에서는 실행하는 그런 식의 분

업구조, 진짜 핵심은 중앙에서 생산된다 라고 하는 그런 분업구조를 해체하지 않으면, 해체에 대한 플랜을 짜지 않으면, 이 상황은 계속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실천과제가 나온 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맥락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김신호정 여성운동이 생명이다 라는 마지막 문장을 정리할 때, 낙태권에 대해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전히 낙태를 하고 있는 여성들이 있고 여성운동이 권리를 요구해 왔고 지금도 싸우고 있죠. 그래서 낙태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낙태를 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낙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더불어 조금 더 폭을 넓히는 게 필요하고, 평등과 생명에 대하여... (마이크 불량으로 녹음과 기록이 좋지 못합니다. 화자나 독자 모두에게 양해를 구합니다.-편집자)

이안소영 생명의 밥상 선언문 채택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식량주권을 제목으로 내걸면서 하자는 제안도 있었으나, 식량주권이라는 것이 너무 내셔널리즘이라고나 할까, 국가단위의 보호? 하여간 우리가 지양하려고 하는 어떤 것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이고, 식량주권이란 소비자, 생산자를 묶어내는 살림과 안전의 문제, 이런 것들을 크게 이야기 못하는 그런 게 있어서 식량주권이나 쌀수입, 이렇게 하지 말고 생명이라고 하자고 한 거고요.

마지막 문장인 ‘여성운동의 과제는 생명이다’, 이것

은 사실 논란이 될 수 있는, 아니 논의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제 분과토론에서 낙태권 이야기도 나오고 사실 생명운동 내의 거부장성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사회적인 맥락에 있어서 오염된 가치나 언어를 전치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두려워하거나 미루고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성운동이. 그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생명이기도 하고 어제 제기했던 제가 뭐 살림이라든가 돌봄, 이런 것이기도 한데 여성운동이 그런 방식의 돌봄이나 생명이나 이런 거 말고 여성주의적으로 말하는, 그런데 다들 그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를 다르게 말하는 것을 논의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사실 이런 의미를 더 많이 담고 있어서 저는 역시 전희경 선생님의 문제의식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자 어떻게 보면 여성농민운동과 여성운동이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제 소통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저도 발제문을 보면서 여성농민회가 이렇게 고민하고 여성단체에 있다가 탈퇴했고 지역에서 여성단체가 아닌 다른 단위들과 연대하고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성운동에 대한 소통이나 논의 이런 것들이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다시 조금 더 진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나요?

장이정수 질문은 아니고 답변을 하려고 해요. 저는 1분과 발제를 맡은 여성환경연대 장이정수 이구요.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지역운동 이야기를 지역에 계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같이 해봤는데 기존의 지부라는 개념 자체도 우리가 이제 좀 바꾸어야 되지 않나, 전근대

적인 용어잖아요. 기존에는 우리가 여성운동하는 데 있어서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자원을 어떤 식으로 배분할 것인가 논의도 했는데, 현재는 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얼마 안 되는 여성운동도 중앙단체에 자원이 집중되어 있고, 그 중앙도 상근인력 유지에 거의 에너지를 다 쏟고 있기 때문에 어렵죠. 그런데 지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풀뿌리에서 정책이나 요구도 여성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지역에 의제를 먼저 발굴해 내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나 중앙 집중적이어서 참 어려워요. 저희가 사실은 자원 배분을 몇 대 몇으로 할까 할 때 중앙과 지역을 그나마 2:8 정도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중앙을 해소시킬 것인가? 저의 생각은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럼 중앙은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정말 삶의 본질들이 지역에서 제기되고 지역에서 고민하고 지역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점차 사회를 바뀌어나가는 프로세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지역이 그러한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단위와 인력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 지금 타협점으로 중앙이 최소한 모든 정보와, 사실은 정보 자체가 권력이잖아요. 중앙정부의 정책의 흐름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사회의 자원에 관한 정보를 중앙단체가 일단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이 해야 하는 것은 그런 정책과 이슈의 과제를 논의하는 기본 단위로서의 역할을 하고 당분간 유지하되 전체 운동의 역량, 목표와 지향의 측면에서 어떻게 지역을 강화하고 살릴 것인가로 가지 않으면, 즉 대중화라고 말해도 좋고 여성주의 확산이라고 말해도 좋는데 그런 식으로 나가지 않고서 계속 중앙단체를 유지, 존치 존립하면서 지방을 소외시

키는, 지방에서 전혀 사람을 안 내고, 한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는데 이런 형태로 운동이 계속되어서는 여성주의 확산은 이뤄지기 어렵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과감하게 여성주의 운동과 연구는 지역으로 가고 그 사례들을 연구하고 거기서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성재단도 그 방향을 과감하게 지역으로 돌려서 성평등조성사업 배분도 그것에 맞추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지역을 심지어 사업계획서를 쓰는데 밀려쓰기 해가지고 서류가 보이지 않는, 이렇게 사업계획서 쓰는 거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어떤 새로운 운동을 기획하겠는가. 우리의 자원을 지역으로 보내서 지역에서의 운동을 새롭게 기획하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는 여성재단에서 연구에 관한, 예를 들면 이화NPO여성리더십과정은 활동가 리더십을 기르고, 성공회대 실천여성학과정은 학문적인 코스인데 과연 그 발표되고 있는 논문들이 공유되고 있는가, 그리고 연구주제들을 누가 어떻게 설정하는가, 관련 현장의 고민들을 연구로 연결하고 있는가, 그리고 최소한 그 연구 성과물들에 대해서 지역의 활동가들이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전체운동의 흐름에 대해서 여성재단이 기획해야 되고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재생산 얘기 말고 제가 참가자로서 2분과의 사회적 이슈, 세월호와 밀양에 여성주의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코멘트 정도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세월호나 밀양, 강

정, 논산 이런 일종의 국가적 폭력이나 재난이라고 하는 상황에 여성운동이 하나의 합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해서 문제적이라기보다,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어도 좋은데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적절하게 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하게 되고요. 두 번째, 만약 여성들이 엄마의 이름으로 NGO와 분리된 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는 밀양이나 세월호에 결합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많은 퍼센티지는 다 여성주의자입니다. 여성단체에 소속되어서 활동하고 있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운동들이 여성운동의 성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성주의자들이 여성단체라는 구조가 아닌 다른 인권운동의 영역이나 다른 곳으로 많이 이미 확산되어 있고, 성장했고, 그 영역으로 이동해 있어서 그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성운동의 성과고 그것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여성들이 어머니나 며느리의 이름으로 사회운동을 하는 것이 전혀 문제적이지 않고, 하지만 어떤 어머니, 어떤 며느리인가를 질문하고 싶은데, 지금 세월호와 밀양에 결합해서 미디어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주의자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를테면 세월호 유가족인 동혁엄마, 용산 며느리인 정영신,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냥 여성의 삶을 살다가 이러한 계기를 딱 맞이했을 때 정말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여성주의 활동가로 변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은 여성주의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굉장히 큰 판이라고 볼 수 있는 세월호나 용산이나 밀양이나 강정이나 이런데서 여성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 의미가 무엇인

답는 순서: 참가소회 나눔

지 해석해 줄 수 있는, 이것들을 확산시킬 수 있는 여성주의자가 여성주의 활동가가 이 안에 있으면 좋겠다. 물론 인권활동가인 친구들도 굉장히 의지가 되고 그 친구들 관점도 굉장히 좋지만 이거를 적절하게 포착해낼 수 있는 현장의 여성주의 활동가라는 존재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느끼게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밀양에 김영옥 선생님이 참여하시고 했지만 저는 그런 포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이게 김신희정 선생님이 생명문제를 이야기하셨지만 여기도 이게 사회적 이슈잖아요, 쌀, 물, 여성의 노동에 관련된 것, 그러니까 굉장히 여성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중에 경제적 침탈이 굉장히 심한데 이것들을 아우르는 사회권에 대해서도 여성주의 안에서 논의가 너무 없더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시작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자 약속된 시간 상 3부 종합토론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박2일 동안 소통하고 토론하면서 오전에 분과별 발표한 내용들을 사후 자료집에 내면서 구체화하고, 또 토론이 필요한 경우 분과별로 요청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구요. 2차 여성회의의 결과를 3차 여성회의에서 팔로우업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내용을 모두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연순 소감은, 일단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해야 하는 것은 우리 내부에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정말 잘 공유가 되어야 되겠다, 공유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유하고 싶은 것은 먹거리 기본권, 농업 이야기 나왔지만 여성운동이 잘 결합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행복중심생협에선 진작부터 결합해서 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세대 간의 소통, 청년여성, 20대 여성들의 필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와 관련해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찌감치 행복중심생협에서는 협동복지기금이라는 것을 조성하고 지원해 왔습니다. 매월 1천원이나 5천원, 1만원씩을 건어서 출자를 하는 기금조성 상태에서 3년째 배분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성재단과는 비교가 안 되죠. 일 년에 1천만원 모금해서 1천만원 배분해요. 다섯 단체 하는데,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냐면 20대 여성청년들이 모여서 이 친구들이 처음에 라면과 인스턴트로 밥을 때우는 친구들이었어요. 심지어 김치도 비싸서 못 먹는다는, 과일같은 거 껌도 못 꾸는, 그런 친구들이 먹을거리의 안정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모이기 시작했고 달랑 2백만원을 지원받아서 제철 채소를 준비해서

먹고 반찬을 같이 만들어 먹고 이런 활동과 준비모임을, '징검다리 반찬모임'을 시작해서 지원하고 1년이 지났더니 지금은 주거협동조합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전환을 한 좋은 사례들이 있으니 좀 널리 알리고 연대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서로 여성들끼리 여성조직들끼리 연대를 많이 해야 하는데 먹거리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내부에서 많이 확산시켜야 하고 내부의 상호거래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 여성재단에서 마련한 워크숍의 간식은 왜 칠성 사이다일까? 왜 몽셀 통통일까? 행복중심생협에 건강한 간식 많은데 꼭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숙 어제 발표에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그 옛날의 여성운동가들이 현재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걸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정말 어느새 어제 박인혜 선배와 우리가 나이가 들긴 들었구나, 이렇게 둘이 지내는 침대방을 주다니 지난번과 다르게. (참가자 웃음)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흐뭇하면서도 놀라워했습니다. 근데 가끔씩 제가 일에서 물러나 있으니까 가끔 후배들이 연락도 하고 제가 전화해서 만나기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영웅담을 이야

기 하게 되는 경우나 우린 이랬는데, 이만큼 헌신적이었는데, 이만큼 치열했는데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아주 관성적으로 되기가 쉬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30년 전에, 20년 전에 이랬던 나는 지금 어떤 고민과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고 여러분의 눈으로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를 알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지금의 나는' 이런 걸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반가웠어요. 제가 기운을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허성우 저는 '여성학과 여성운동'을 주제로 한 5분과에 있었어요. 젊은 친구들이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보충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실 여성학 연구자와 여성활동가가 같이 모이는 자리인데 생각보다 여성학 연구자가 적었습니다. 좀 아쉬웠고요. 그래서 그 소회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은 여성운동 쪽에서 여성주의 연구자들이나 지식생산하는 사람들에게 여성운동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특히 진보운동 쪽에서 많았다고 생각해요. 연구자 측에 있다 보니까 제도화가 여성운동 쪽에서만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여성학의 제도화도 어떻게 보면 여성운동보다도 대학 자체가 너무나 신자유주의적인 평가체제를 갖추었기 때문에, 사실 여성학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공공기관으로 많이 가셨고 대학 내에 자리 잡으신 분들이 적고, 또 생존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여성학자들의 풀pool도 어떻게 보면 여성주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풀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여성운동 안에서 공부해 해서

전문적인 연구자들도 나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성주의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여성주의를 할 거냐, 어떤 조직은 어떤 여성주의를 지향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차이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 여성주의 지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공부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과 그런 분들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성주의 지식을 활동가들이 스스로 배우고 하는 과정들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분과에서도 '여성학은 이론과 실천의 통합이야, 활동가들은 다 여성주의야.' 이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 공부하는 공부하고 운동은 다른 거고, 이론과 실천 간의 이분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학위를 하실 분들은 학위를 하는 거지만 또 내부적으로 어떻게 여성주의 지식들을 찾으면서 자기 활동을 의미화 할 건지를 찾아야 하는데, '여성주의를 공부해야 하는데 어떤 것이 없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자료나 그런 것들을 아카이브를 만들어 주고 연구자들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도 해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분과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토론과정에서 잘 전달이 안 됐어요. 여성재단에서 프로젝트도 될 수 있겠다. 기존에 나와 있는 많은 자료들을, 어떤 자료들이 어떤 대상에게 더 적합한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전문 연구자들이 잘 정리해서 알 수 있게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연구자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여성주의자들이 공부하는 활동이 아니야 이런 거보다는 여성주의 공부나 우리 실천의 일부이다, 공부와 활동을 나누지 않게 되었을 때 자기의 여성주의를 찾아갈 수 있고 여성주의를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분과에 젊은 분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의 고민을 같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개인적으로 집에서 오래 지냈는데 이렇게 나와서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문제제기하고 많은 분들이 다른 분과들에서 이야기하는 거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호숙 저도 에코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사람들과만 만나다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과제를 가지고 다양한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기대감과 설렘, 호기심이 충족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7분과에서 생명의 문제를 페미니스트들이 자기 삶의 문제로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많은 젊은 페미니스트들도 만나고 대중 활동가들을 만나면서 드는 고민은 신자유주의라는 놀라운 기술, 이것을 군사적 기술로 만일 표현을 한다면 이전에는 한 개에서 네 개밖에 못 쓰는 총이었는데 지금은 한 방을 터트리면 몇 천발, 몇 만발이 가서 박히잖아요. 우리에게 날아오는 그 총알들을 다 맞고 있는데... 저희가 토론을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건, 연대라는 것이 어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준다거나 힘을 연합하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의 기원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의 중요한 생명 먹거리라고 얘기하고 생명 밥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신자유주의가 우리에게 수많은 과제를 던지고 수많은 힘을 빼앗고 무력화시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삶이 지속되고, 예를 들면 결혼을 한다거나 출산을 한다거나, 삶을 이어간다가

나, 사람들이 늙어간다거나, 노동을 한다거나 생명의 전 과정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거잖아요. 말이 식량이지만 우리 삶을 지탱하고 재생산하는 문제가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각 삶에 어떤 영향들을 미치는지를 얘기해야 한다. 정말 그 문제를 우리가 전면적으로 이야기할 해야 한다. 식량주권 막 이런 것이 흔들릴 때 여성장애인은 어떻게 변하는지, 또 비혼여성들의 생기가 있게 사는 삶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다. 그래서 하나의 연원을 찾아가는 계기로서는 먹거리, 식량 주권이 개방이 되었을 때 노동은 어떻게 변하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민해볼 중요한 고리이겠다. 연대의 중요한 포인트이겠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선언문도 내 보자, 이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각개 격파와 고립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것이 우리 공동의 문제였잖아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는가가 사실은 전환이라고 생각해요. 전환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건가가 아니고 그 근원의 문제를 잘 파악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의 힘을 키우는 방향의 전환을 이룰 것인가 라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해주신 것들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데 큰 힘이 되고 동력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또 있으면 또 오고 싶다. 논쟁이 되고 어쨌든 서로 이야기를 자꾸 꼬집어내어 이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서순화 이 자리가 저는 처음이고요. 저는 10년 정도를 NGO에서 하다가 지금은 정년퇴임해서 강의활동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번 여성회의에 분과별로 다

양한 주제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이 당면한 문제 중에서 수치스러운 1위를 하고 있는 자살문제라든가 또는 저출산문제라든가 하는 주제가 빠진 것이 좀 서운하거든요. 다음에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선언문을 만들자는 제의가 나왔는데 그런 게 있으면 미리 안내하고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길 여성단체의 많은 선배님들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너무 이 자리가 소중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많은 활동가들과 함께 오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팔랑 가장 젊은 삼십대 초반의 활동가와 둘이 와서,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7개의 주제를 가지고 저희도 12시 넘게끔 아주 시종일관 진지하게 토론하면서 되게 많은 것을 느낀 어젯밤의 시간과 다른 친구들과 여성운동을 하는 판에서 활동가로서의 에너지와 힘을 받고 갑니다. 이 자리에 제 얼굴과 목소리를 꼭 남기려고 일어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임경진 저도 특히나 뒷풀이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응원과 지지를 받았구요. 저희 417호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주로 비혼여성들이 모였었는데 우리가 고립되었다고 느꼈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가 80년의 운동의 역사와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특히나 비혼여성들은 차라리 사회생활을 할 때는 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성주의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가장 창피해하는 삶속에서의 그런 경험들을 다 똑같이 갖고 있었는데, 너만 그렇지 않아, 우리도 그래, 같이 하면 돼, 나이 50이 넘으면 은평에 가

면 되겠구나, 막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든든함을 얻었는데요. (참가자 웃음)

이번 회의에서 소통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소통이라는 것이 흔히 이런 자리에서 소통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면대면 소통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통의 중요한 기재 중의 하나가 허성우 선생님이 살짝 말씀하셨던 바로 그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첫날에 저희 테이블에서 이해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선배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후배들은 기록을 찾아보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남기셨는데, 'SNS를 아무리 뒤져도 기록이 없었어요'라고 하는 간극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의 역사가 담긴 사진 하나라도 아카이빙이 되고 아카이빙이 각각의 단체 창고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중간 조직들을 중심으로 그것들이 유통되고 기획되고 전시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도 돌아가서 기획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구요. 여성재단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결과보고서를 PDF본과 인쇄본으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유통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순간에 3년 전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시종일관 우리랑 함께 하셨던 선생님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리에 선배 세대가, 지금은 조형 선생님 계시고 한테 정말 많은 할머니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통부분에서 일반 대중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

다. 얼마 전에 UN에서 <He For She 캠페인>을 벌인다고 하면서 엠마 왓슨이 연설하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남성과 어떻게 함께 이런 문제들을 풀어갈 것인가를 조금 더 고민해야 되겠다. 특히 저는 반성폭력 운동하는데 항상 남성들을 교육장에서 만나면 짧은 치마 이야기를 해요. 제가 처음에 23년 전에 교육할 때와 지금이 별반 그렇게 다르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남성들과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앞으로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앞으로 반성폭력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열심히 모아서, 저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이런 부분을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명선 하고 싶은 일이 더 생겼는데요. 머리가 하얗게 할머니가 되어서도 여성회의의 계속 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년 전에 오고 오늘 다시 왔어요. 누가 오라고도 안했고 의무도 없었는데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오고 싶었습니다. 제가 여성활동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인데, 여기 와서 다른 어느 지구의 구석에서 나와 비슷한 생각과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연결되어 있고 힘을 느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와서 말씀 들으면서 비슷한 고민과 비슷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을 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이 되는 거 같아요. 새로운 에너지와 비전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한 가지 더 있는데 할머니가 될 때까지 이 자리에 와서 앉고 싶다는 것과, 또 하나는 공부 얘기를 활동가들이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막 학교

로 간 여성활동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저는 또 하나 하고 싶은 소망은 여성운동으로 배우러 가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게 만드는 교육, 그런 여성운동의 한 장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과 함께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영 일단 와서 새로운 것을 배워서 반갑고요. 저는 활동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여성주의에 대한 혐오가 요즘 많이 있어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성주의끼리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아까 에코페미니즘 같이 환경단체나 다른 사회운동단체와 여성주의가 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논의를 해야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저희는 고립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소통하고 알리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행자(이은희) 이 회의를 정말 수차례 모여 논의하면서 갑론을박, 좌충우돌하고,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모두의 의견으로 수렴해서 함께 기획하고 열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기획위원 분들 일어나 주십시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각자 분과에 한 분씩, 사회 또는 발제의 역할로, 내지는 배후의 존재로 여러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하구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발표 주제들이 좀 컸어요. 그래서 전희경 선생님이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하는 거냐 물으시며 당황해하셨는데, 그런 황망함 속에서도 멋지게 주제 발표를 해내신 1부, 2부

의 발제자님들 일어나세요. 우리 모두 고맙다고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토끼눈으로 밤새 분과발표들을 정리하여 오늘 아침에 또 멋진 내용을 교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3부 패널발표자님들 일어나세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현장 이야기를 진심으로 솔직하게 나누고 덕분에 질 높은 토론 내용을 서로에게 제공하신 우리 모두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1박2일 동안 저를 소개하지 않고 막 왔더라고요. 저는 한국여성재단의 연구사업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은희입니다. 저는 두 마디의 소감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정리하겠습니다.

2014년 여성회의에 참여한 여성주의자들여! 여성주의자의 삶으로 얻은 실존적 고통의 곤란을 피하지 말자! 그러나 고립의 유혹과 강요에는 맞서 싸우자! (무슨 국민교육현장 같긴 한데) 이제 다시 여성주의와 운동의 근본을 새롭게 하여 우리의 정치력을 세우자! 남성, 제도화 등 (지금 당장은 생각이 많이 안 나는) 다양한 세상과 전략들과 엮이되 낡아지는 맴시다! 이상입니다.

2014 여성회의의 처음을 열어주셨던 조형 이사장께서 달는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조형 어찌하다 보니까 박영숙 선생님 떠나시고 그 다음이 된 것 같아요. 72살이거든요. 은퇴를 해도 여러 번 했어야 되는 나이고, 곧 은퇴는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모여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나의 기분은... 제가 79년에 처음으로 여성주의자들,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 몇 명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 '여기가 해방구야!' 하는 느낌을 가

졌었어요. 뭐 일일이 다 소개를 안 해도 그냥 기분을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명함을 한 장 주면 '아, 너 지금 뭘 하고 있구나' 그러나 그 이상은 더 소개할 필요가 없는 그런 여성주의 친구들. 금방 만났어도, 말이 없어도, 설명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동료야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었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 외국사람들이어서 었을까, 아니면 그때 여성운동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발전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럴까, 평우회도 83년이요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운동의 역사 이전의 이야기겠지만 나는 그런 황홀했던 순간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데 뭐 의견도 다를 수도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될 숙제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숙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3년 전보다 문제가 훨씬 더 구체화 되고 그것들이 다 나의 문제들로, 나는 이제 뭘 더해야 되나, 이런 과제들로 가져가게 된 손에 잡히는 과제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훨씬 더 기쁘고요. 그리고 감사할 인사는 이미 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여러분들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여성재단에 대해서 이것도 주문하고 저것도 주문하고 하셨는데요. 많이 하고 싶죠. 또 해야 될 일을 많이 발굴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성재단은 여성단체 총 연합회는 아니잖아요. 총연합회가 있다면 훨씬 여성재단이 일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쪽과 이야기를 해서 어떤 사업을 더 지원할까 어디에서 기금을 모을까, 기부자들은 어떻게 모을까 이런 것들을 다 의논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 불편하긴 하지만 우선 다양화 되는 거가 지금은 순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화되는 모습이 아주 좋구요.

그 다음 순서로는 장이정수 선생, 전희경 선생이 이야기한, 중앙과 지역의 관계, 그것에 대해서 아까 발제한 사람들과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이 들 수 있겠다 싶어요. 이제는 중앙의 권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것을 받아서 중앙이 정치세력화, 의제화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중앙의 역할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중앙이 기획하고 지원하고 해서 지역으로, 우리 제목이 잘못된 거 같아요. "왜 마을로 들어가야 되는가", 그거 아니예요. 지역에서 중앙으로 나와야 하는 거죠. 마을에 있는 운동을 발굴하고 마을에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활동가들이 도와주는 것이지, 그렇게 중앙에 있던 단체나 사람들이 지역을 식민화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저도 느낀 점들이 많지만 나중에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정말 고맙고 사랑스럽습니다.

진행자 2011년에 참여하셨지만 올해 회의에 오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중에서도 특별히 작년 5월에 세상을 떠나신 박영숙 전 한국여성재단 이사장님을 기념하고자 여성재단 1층에 <박영숙홀>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혹은 단체에서 세미나 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거나 하시면 거점으로 이용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먹거리의 위기와 생명을 주제로 토론하는 회의에서 먹거리 준비의 민감성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먹고, 다시는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여성주의 회합에서도 꼭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다들 어려운

상황이고 나누기 어려운 주제였는데 1박2일동안 흔쾌하게 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구요, 앞으로도 우리 유쾌하게 웃음을 잃지 말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14 여성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가자 박수로 폐회하다.

분과별 명단

1분과 여성운동은 왜 마을로 들어가야 하는가?			5분과 여성학과 여성운동의 농명한 대화: '그리고'를 넘어서		
사회	서경남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조직국장	사회	김홍미리	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발제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	발제	허성우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 교수
토론	김용숙	영광여성의전화 부설 영광여성상담센터	토론	김지아	너머서 청년젠더활동가
	문신애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대리		남기은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활동가
	손영옥	춘천여성민우회 대표		서지영	대학교 수료
	우미강	동해YWCA 사무총장		설지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젠더활동가 인턴
2분과 사회적 이슈와 여성주의는 어떻게 만날 것인가?				여유진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팀장
사회	전현숙	서울YWCA 사무총장		오경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발제	김은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사		정미은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상담사
토론	김수경	여성인권 티움 공동대표		조수현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대리
	송유진	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최명순	여성인권 티움 활동가
	윤정숙	녹색전환연구소 이사		최민정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업부장
	이명선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특임교수	허미경	안양여성의전화 활동가	
	이보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6분과 여성운동의 활동가 재생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주영	한국YWCA연합회 홍보팀 부장	사회	몽	언니네트워크 사무국장
	홍현희	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팀 차장	발제	류지연	평화여성회 인턴
	3분과 사회적 경제, 여성들에게 희망이 될까?			박기남	한국여성재단 사무총장
사회	어라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 사무국장	박인혜	성공회대 연구교수	
발제	김연순	마을기업 인큐베이터	윤박경	대화문화아카데미 프로그램팀장	
토론	권순형	원주YWCA 사무총장	이미경	이화여대 리더십개발원 특임교수	
	명진숙	한국YWCA연합회 지역운동국장	전희경	이화여대/성공회대 강사	
	서선하	사)나사랑자살방지협회 사무국장	7분과 농업과 먹거리의 위기, 여성운동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해리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장	사회	한경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부회장
	임경진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네트워크팀 과장	발제	김신호정	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한미란	서울한부모회 대표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4분과 거버넌스와 제도화 전략은 여성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김희숙	속초YWCA 간사	
사회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김황경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국장	
발제	김성미경	인천여성의전화 전 회장	마정윤	이화여대 여성학과 대학원	
토론	김경희	이화여대 객원연구위원	배영란	속초YWCA 사무총장	
	윤재실	인천여성의전화부설센터 소장	이래경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강원연합 회장	
	이영숙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정책국장	
	정윤경	춘천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이윤숙	한국YWCA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부장	
	최병일	안양여성의전화 대표	천정윤	한국여성재단 경영지원팀장	

참가자 명단

이름	소속 / 직함	이름	소속 / 직함
권순형	원주YWCA 사무총장	오경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구현주	한국여성재단 연구사업팀 대리(실무)	우미강	동해YWCA 사무총장
김경희	이화여대 객원연구위원	유성희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윤박경	대화문화아카데미 프로그램팀장
김성미경	인천여성의전화 전 회장	윤재실	인천여성의전화부설센터 소장
김수경	여성인권 티움 공동대표	윤정숙	녹색전환연구소 이사
김수희	여성신문사 기자	이래경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강원연합 회장
김신호정	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이명선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특임교수
김연순	마을기업 인큐베이터	이미경	이화여대 이화리더십개발원 특임교수
김용숙	영광여성의전화 부설 영광여성상담센터	이보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김은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사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정책국장
김인아	국회의원 황주홍의원실 사무부국장	이영숙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김지아	너머서/청년젠더활동가	이윤숙	한국YWCA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부장
김홍미리	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이은희	한국여성재단 연구사업팀 팀장(실무)
김황경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국장	이주영	한국YWCA연합회 홍보팀 부장
김희숙	속초YWCA 간사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남기은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활동가	임경진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네트워크팀 과장
류지연	평화여성회 인턴	이해리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팀장
마정윤	이화여대 여성학과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
명진숙	한국YWCA연합회 지역운동국장	전현숙	서울YWCA 사무총장
몽	언니네트워크 활동가	전희경	이화여대/성공회대 강사
문신애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대리	정미은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상담사
박기남	한국여성재단 사무총장	정윤경	춘천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박인혜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조수현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대리
배영란	속초YWCA 사무총장	조형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서경남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조직국장	천정윤	한국여성재단 경영지원팀 팀장
서선하	나사랑자살방지협회 사무국장	최명순	여성인권티움 활동가
서지영	대학교 수료	최민정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업부장
설지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젠더활동가 인턴	최병일	안양여성의전화 대표
손영옥	춘천여성민우회 대표	한경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부회장
송유진	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한미란	서울한부모회 대표
송지영	한국여성재단 경영지원팀 대리	허미경	안양여성의전화 활동가
어라	전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허성우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 교수
여유진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팀장	홍현희	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팀 차장

한국
여성운동의
전환을
꿈꾸다



2014 여성회의